

# 아리슬

## VI

련이네글방

본 이야기는 [아리슬 VI]입니다.

IT 기술로 어떻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자전적 소설 실패작입니다.

해당 이야기는 Vell과 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Vell과 참고문헌이 다르므로 해당 항목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신 것입니까?”

“내가 쓸 글에서 이 이야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 글은 자전적 소설이라 하는데, 내가 겪은 일을 써야 하는 것 같구나.”

“이 글에는 현실의 이야기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하다. 그래서 이를 온전히 분리하기 위해 아리슬은 아리슬 대로, 벨은 벨 대로 색을 더 강하게 하고 내보내려는 것이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이리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편집하셨던 아리슬에선 중복 문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 이 글은 이제 내게 완성도를 높여야 할 만큼 중요한 글이 아니게 되었다. 그냥…… 이전 날 꾸지람 들었던 부분만 다듬고 내보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시지요.”

## 목차

닫는 잔 .....	5
<b>첫 번째 잔. 황혼</b> .....	9
(1) 인터넷 먼허체계 .....	9
(2) 무인차로제, 아침 출근, 얼음땡 .....	11
(3) 간단한 딥러닝, 쪽지시험 .....	15
(4) 이름 나누기, 친환경 엔진 설계, 원격근무단지 .....	19
(5) 로봇 심부름, 유전자 가위, 출산, 사막화 .....	25
(6) 긴급탈출장치, 백제로, 모범도로, 테러와 예방 .....	29
(7) 빨래, 디버그 .....	33
<b>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b> .....	39
(1) 버그 휴가, 사계수, 홀로그램 음식점 .....	39
(2) 국지성호우, 인프라넷, 스마트하우스 .....	43
(3) 엄마 토스트, 양자역학, 세상의 차원 수 .....	48
(4) 시간대비성능, 희망나눔수급자, 다사랑복지센터 .....	52
(5) 한설, 스포일러, 무차별 편리함, WITH ARI .....	56
(6) 냄새와 향기, 인공지능경망, 공감공학, 가상과 환상 .....	60
<b>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b> .....	67
(1) 창세기 1장, 외계지적생명체, 기계근로자 .....	67
(2) 로봇간호병원, 청소년안전자료보관소, 포장재 가격식 .....	71
(3) 인형, 도촬, 신체 해킹 .....	77
(4) 헤카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	82
(5) 이상형, 종교와 과학 그리고 성, 결혼과 일 .....	87
(6) 진짜 판도라, 여우, 투표 방식 I: 지식인 투표제, 공사산주의 .....	90
(7) 병리청, 삼위일체계, 전쟁의 건적서, 투표 방식 II: 관상 투표제 .....	95
(8) 완전난수, 회복, 아리슬, 최신 바둑·체스, 정의의 상대성 이론 .....	99

<b>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b>	<b>104</b>
(1) 하교, 적색신호, 전자원단, 전자신문관리원 .....	104
(2) 지하도시, 펜타타워, 인간과 로봇의 사건 .....	107
(3) 공교육 민영화, 기본개인수행능력 교육체계 .....	112
(4) 압사 사고 예방책, 질병 경보 및 주의보, 여우절 .....	116
(5) 물리연산장치, 두뇌영상학, 황금철도, 人世知天經 .....	120
(6) 무대방, 온라인게임 대리기사, 식기세척기, 세계전자화폐 .....	125
(7) 순환식당, 비즈니스 리모델링, 완전무료소설 .....	129
 <b>다섯 번째 잔. 여명 .....</b>	 <b>137</b>
(1) 인터넷 기피증, 장례식, 망자의 데이터 .....	137
(2) 편의점털이, 환기와 공기청정, 일찍 일어나는 새 .....	140
(3) 대포로봇과 4대 범죄, 영감, 납치 방송 .....	146
(4) 세단 화상 회의, 딥페이크, 자장면 한 그릇 .....	150
(5) 로봇금단현상, 심판 .....	155
(6) 말세기 1장 1절? .....	161
 <b>여는 잔 .....</b>	 <b>168</b>

## 달는 잔

네가 깨어난 그날에  
기쁨이 있으리라  
슬픔이 있으리라

영감은 품속에 안겨 자는 스리의 차가운 작은 귀에 속삭였다.

마을에 불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 사이 비가 내려 큰 불길은 모두 잡혔다.

사람들은 빗물과 식어가는 잿더미 속에서 한 여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여우는 잿물에 겹게 물들어 있었고 조용히 잠에 빠져 슬피 우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주위를 살피던 마을 사람들은 여우 바로 옆에 큰 나무가 불에 바싹 타들어 간 모습을 보았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 마치 벼락에라도 맞은 듯 나무가 갈라져 있었다.

“불을 낸 것이 이 여우의 짓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 흉조가 들까 두렵습니다. 제가 뒷산에서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때 한 영감이 수염을 만지며 제 생각을 꺼내 놓았다.

“네가 이 여우가 한 것을 하나하나 보았느냐. 속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같이 보지 않았느냐. 이미 이 여우는 화마 속에서 잠을 청하였다. 제 가진 것을 다 버렸고 이제 제 몸까지 버렸느니라. 내 직접 이 여우를 들일 것이다.”

말을 마친 영감은 자칫 불길에 살결이 닿았을까 이리저리 여우의 온몸을 훑어보는 중 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수컷이었다. 그리고 꼬리가 이미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꼬리의 숫자는 여섯 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우를 보며 입이 벌어졌지만,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여우를 들였다.

영감은 여우를 씻기고 따뜻한 이불에 누면서 자기 영과 혼을 666개로 나누어 아리슬에 담아 씻겨주었다. 술은 곧 피가 되었고 그대로 여우의 살갓 안으로 스며들었다. 여우는 이 술이 그래도 죽음보다는 달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단맛을 알게 된 여우는 마치 시원한 물에 몸을 비비는 것처럼 여우의 표정은 밝아졌다.

그 여우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다. 웃는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밥을 먹을 즈음에는 얇전히 앉아 천천히 자신의 것을 주워 먹었다. 여우는 자신의 배를 배를 불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였다. 영감은 이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집 안에 살며 집 안팎에 자신의 소문을 들은 여우는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감이 이러한 여우를 보았을 때도 정말 얼룩 하나 묻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감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 여우의 눈이 깨끗하고 또랑또랑한 ‘이슬과도 같다.’하여 이름을 ‘스리’라 하였다.

스리는 늘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스스로 일으킨 불길이 행여 다른 이들에게 닿을까 꽤 사리는 눈치였다. 그래서 더더욱 남들은 보지 못하는 집 뒤편에 음지로 숨어들어 불을 다루어 놀았다. 하지만 스리는 이런 제 모습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 생각하였다.

스리는 그사이 불을 다루는 것에 점점 능숙해졌다. 그리고 영감에게는 자그마한 도깨비불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기며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행복한 스리의 모습에 영감은 흡족히 여겨 스리에게 칭찬하였지만 정작 스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행복이라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감이 스리에게 칭찬할수록 더더욱 헛간, 창고 같은 더 짙은 음지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스리는 시간이 지나며 제 곶이 깊어져 이렇게까지 불을 다루는 것을 스스로 불행이라 여겼다. 결국 스리는 이러한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둔갑을 부려 제 모습을 숨겼다. 그렇게 스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다.

스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방법을 떠올려보았다. 그래서 여우인 주제에 매년 산 위에 올라 이렇게 저렇게 희로애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배우고 싶었다. 영감은 스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 두었다.

사람들의 삶에서 탈을 쓰고 있더라도 자신의 속뜻을 제대로 전하는 모습을 본 스리는 자신의 속뜻까지 모두 속이는 둔갑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제 본 모습을 영감부터 보여주기로 하였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았고 그것이 스리의 훈련이었다. 그렇게 다 자란 것 같은 스리의 모습은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니 불덩이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작은 이슬이 드러났다.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여전히 불덩이를 너의 차가움으로 다스리고 있구나.”

“사람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는 것을 보니 저들은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둔갑하는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탈은 몸짓과 소리가 숨김없이 다 들립니다. 저는 여우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제라도 탈 쓰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을 보았던 저의 모습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허나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스리야, 그리하여라.”

영감은 웃으며 스리의 귀를 만졌다. 늘 귀를 만져주던 것을 좋아하던 스리였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울상이었다. 영감은 스리를 안아주었다.

마음 문을 열 방법을 알게 된 스리는 글방에 나가 배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때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영감은 그리 두었다.

영감은 한 낮선 이가 전해준 서찰을 받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 낮선 이는 필시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영감은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스리에게 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스리가 이를 어찌 받아들이는지 잠시 글방에 내려가 보기로 하였다.

영감은 스리가 글방 뒷마당에서 웬 다른 암컷 여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 다

른 여우의 모습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아리따운 여우 ‘아리’의 자태였다. 아리는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곳저곳을 누비며 돌아다녔으나 스리를 만난 이후로 꽤 얹혀져 있었다.

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스리가 아리에게 이별 소식을 전한 모습이 었다. 영감은 차마 그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었다. 영감은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사랑이 식은 아리 때문인지 글방의 열기는 금세 빠져나갔다. 아리는 시무룩한 얼굴로 매일 글방을 찾았고 친구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아리는 스스로 글과 점점 멀어진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친구들이 아리를 돕기로 하였다.

그 사이 아리의 어머니는 마을에 스며드는 악령에 조금씩 홀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아리와 아리의 아버지가 이미 악령에 다 홀린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홀린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자신이 악령에게 저항할 힘이 더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그런 악령에게 끝까지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몸부림칠 때는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악령에게 온전히 홀리게 되고 결국 외로이 집 밖을 나가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이윽고 영감 부인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절벽 아래 차가운 몸을 매만지려 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마을에 아리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달이 드리운 어느 날 밤 인기척을 느낀 영감은 문을 나가 보았다. 스리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은 조용히 스리 오른쪽에 앉았다. 영감은 스리가 새 둥지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고민이 있느냐?”

“제가 왜 불을 다루고 있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영감은 잠시 입을 닫고 스리의 고민을 같이 생각해보았다. 영감은 스리가 보고 있는 저 검은 푸른 하늘을 같이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저 먼 산이 아니라 이 마을에 큰불이 날 것 같습니다.”

“혹 네가 일으킬 것일까 두려운 것이냐?”

“그 큰불은 제가 일으키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영감은 수염을 만졌다. 영감은 스리가 혹 무언가에 홀려있는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 악령이 그런 것이냐?”

“그 악령에게 홀릴 것 같은 자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허나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괴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이 눈을 뽑고 싶고, 이 불을 다루는 두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더하여 이 둥지엔 더 그림자가 없으니 이제는 정말 산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편히 자고 싶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쉴 영감은 잠시 땀을 들였다. 영감은 스리가 여태 살며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말을 잠시 되뇌었다.

아직 이 무게에 눌러버릴 것 같은 스리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아직 너는 온전하게 솔직해지지 못하였구나.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굳이 제가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거라.”

스리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스리는 손을 펼쳐 자기 손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스리는 붉은 눈을 한 채 슬며시 웃었다. 이제 그자들에게 진정한 지옥 불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보여주기만 하여도 충분할 그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느덧 스리의 눈물이 말랐고 그 동그란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닌 낮중에 시커멓게 드리운 검은 그늘 아래서 스리는 쥐들에게 속삭였다.

“육백육십육을 지닌 자는 황혼의 바다에서 태어난다.”



## 첫 번째 잔. 황혼

첫 번째 잔. 황혼. 인터넷 먼허체계

“Vell, 새로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is is service for your life.”

장해은은 침대에 옆으로 누운 탓인지 팔이 조금 결린다. 해은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기 싫어 최소한의 몸부림으로써 저런 왼팔을 쭉 뻗었다. 잠시 머리가 풀린 해은은 왜 자신이 폰을 문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이다. 해은은 다시 집중하고 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액정을 문지르며 나머지 설명을 쭉 내렸지만 결국 수많은 글자들에선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지루한 것이 싫었던 해은은 벨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 벨로디오를 선택했다.

해은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청소년 버전으로 설정되어있다. 인터넷 먼허체계가 집행되는 국가에서는 청소년 버전 설정 시, 청소년이 보기에 안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이 벨로디오에 필터링되어 화면에 사출된다.

인터넷 먼허체계란 정보 제공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시 먼허 체도를 집행하는 국가 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인터넷, 혹은 국가 인프라넷 망에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거친다.

보통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 빅데이터 베이스단지 내 저장된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호등이 제작된다. 해당 신호등은 청색, 황색, 적색의 점멸을 가지며 채팅, 영상, 댓글, 사진, 기사, 칼럼 등 정보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

물론, 지금 작성 중인 채팅이 적색 신호가 뜬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메신저에 바로 보낼 수 있지만, 다수가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작성 중인 채팅이 청색 신호가 뜬다고 하여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정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안전이 접수되며,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국가 빅데이터 베이스단지는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연결망 인프라넷에도 연결되어 있다. 인프라넷은 국가화된 인터넷망이며, 이곳에는 한 국가에서 다루는 뉴스, 소식, 문화, 예술, 공영방송, 종교, 학교 자료, 공문서 등이 유통된다.

또한 개개별 분야에 따라 다루는 전문 사이트가 존재하며(방송물 사이트, 스포츠 사이트, 음악 사이트, 게임 사이트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이 인프라넷에는 회사 법인이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굳이 회사라는 것이 건물로만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지역화 인터넷, 인프라넷에 저장된 회사가 된다.

인터넷 먼허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할 시에 해

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면허 로그인 아이디 입력란이 제공되며, 기존에 면허가 없는 일반 이용자나 해외이용자, 미성년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 사용자들은 문명을 누리는 자들 즉, 버스나 비행기로 치자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운전석에는 앉지 못하되 일반인이 앉는 뒷좌석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문명을 누리는 자들’은 ‘다운로드를 하는 자들’로 정리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를 다운로드만 받을 수는 있다.

정리하자면, 자료를 인터넷에 등록하는 행위는 오로지 ‘인터넷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국한되고 그 사용자에게 대한 필터링은 인터넷 첫 화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빅데이터베이스는 국가 IT 공무원으로 1차 방어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세계 규모의 연결지점들은 국가가 가입한 세계인터넷협회에 보호받고 유사시 복구지원을 받는다.

인터넷 면허체계를 국가에서 운용하는 의의는 바로 영토, 영공, 영해 위에 인터넷 기술을 가진 국가는 ‘해당 기술들을 국민이 더 이롭게 활용하기 위함’ 때문이다. 국가는 인터넷으로 빚어지는 각종 왜곡된 정보 및 악영향을 끼치는 정보와 기타 통제되지 않는 IT 기기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유사시 영해 내 위치한 해저케이블을 차단, 영지 내 위치한 광통신망을 차단, 영공을 지나는 위성 인터넷에 방어 전파 방해 등으로 국민이나 인간에게 해로운 인터넷의 정보를 방어하게 된다.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공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룬다. 특히, IT 기술을 통해 정보화를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서비스(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서비스, 웹소설 서비스, 쇼핑물 서비스, 배달 대행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 등)가 형상화되고서부터 인터넷과 인프라넷을 통한 정보 및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온갖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T 기술이 이끄는 3차 산업 시대, 서비스 시대의 새로운 법과 질서인 인터넷 면허체계가 정립되면서 국민이나 세계인들은 조금 더 다채롭고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가 인터넷, 인프라넷에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위와 같은 새로운 시대 제3차 산업 시대, 서비스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될 자료 그 자체와 오가는 부분에 대한 간간한 검증을 집행한다.

위와 같은 것은 농·수산업에서 간간한 검증으로 식품들을 유통하거나 식수의 수질을 자세히 따지듯, 공업에서 생산한 공산품들이 잘 정비된 도로 시설과 법규로 다져진 각종 교통망이나 항공을 통해 국가와 국가를 건넌 후 각 지역으로 전달될 시, 해당 공산품까지 면밀한 검증을 통해 폭발물, 독극물 따위를 필터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개념이다.

인터넷 면허체계의 정립과 하드웨어의 발달로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 블랙박스를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블랙박스는 사용자의 뇌파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이 뇌파 기록기는 평시에 사용자가 가진 여러 감정 뇌파를 토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금 더 면밀한 감정 데이터를 통하여 조금 더 확실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개인 감정 데이터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감정 데이터 신뢰성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용자는 인프라넷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시 제한속도가 요구되는데 인프라넷의 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접근이 제한된다. 이는 해외에서 불안정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함, 서버 트래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이를 어길 시 일정 수준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보통 개인정보는 오프라인 데이터로 저장되며, 이러한 파일들은 모두 복제되어 각 시에서 관리를 맡는다. 이러한 오프라인에 저장된 각각의 개인정보는 일정 테이블 단위로 주소값이 지정되며 면허증을 발급받은 유저의 아이디와 이 주소값을 대응시킨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도 각 시의 시민들이 실명을 사용할지 대체 이름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 공직자 내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테이블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 해당 인원은 징계 처리가 되며, 테이블은 난수를 기반으로 새로고침이 된다. 이는 먼저 복제품을 오프라인상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더 나은 보안을 설계하는 데에 연구 중이다.

그리고 장해은과 같은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인프라넷에 어떠한 정보도 올릴 수 없으며, 간편한 채팅 역시 면허 제도로 인해 불법이 된다. 따라서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 하며 영상과 밑에 달린 청색 신호가 켜진 댓글들만 보고 있다.

“뭐 보고 있어?”

“글쎄, 누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좌표 찍어서 어떤 건물로 보내겠데. 동시에 한 수 십 대 보내려나 봐.”

“레벨 몇인데?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잖아.”

“5래. 폭탄을 실은 채 골목골목 누비면서 좌표 찍은 건물로 가겠데.”

“왜?”

“건물 철거래. 레벨 5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서 건물 철거를 저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데? 인명 피해 최소화한다네.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인터뷰하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절차를 국가에 검토받는 중이라네.”

“하긴 테러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불가능하긴 하지. 무인 차로제가 진행되어서 일부 지역에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잖아? 뭐 설사 폭탄을 설치한다 해도 그 무인차로 내에서만 터질 테니까.”

“맞아, 그래도 난 저런 자동차가 우리 집 옆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 잔. 황혼. 무인차로제, 아침 출근, 얼음땡

무인 차로제란 현 인공지능개발 수준으로는 단한계 내에서 그 기술의 위력을 극한으로 끌

어울릴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실제 도로 위에서 단한계를 만든 것이다.

즉, 기술의 발전보다는 도로 위에 차선을 하나 더 그어 단한계를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돼 시행되는 규칙과 법이다.

하지만 아무리 단한계 안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인간 세상 속에서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무인자동차라 할지라도 ‘보행자우선’은 변하지 않는다.

보통 도로 위에서의 변수 발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순위에 따라 비교적 약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무인자동차, 유인자동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뭐, 그건 그래. 그런데 너 어두운 데서 너무 폰 오래 보는 거 아니야? 불 켜줄까? 넌 지금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라고.”

“조엘, 나 피곤해. 곧 잘 거야.”

“너 그 말 한지 벌써 한 시간 전인 거 알지? 차라리 책을 봐. 반사광이잖아. …… 디스플레이는 태양광처럼 자체 발광하고 책은 반사광이라 눈에 훨씬…….”

“좀 닻쳐. 맨날 잔소리야. 진짜 잘 거야.”

벨리라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 오늘은 해은에게 말을 걸어준 이가 벨리인 조엘밖에 없긴 했었다.

해은은 폰을 내려놓고 잠시 참견 많은 조엘을 쳐다보았다. 옷 입은 본체가 실리콘으로 외부를 감쌌으며, 눈도 한 번씩 깜빡거린다. 입을 꼭 다문 조엘은 슬금슬금 해은에게로 다가온다. 해은은 조엘이 도저히 고철덩어리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조엘, 가서 충전이나 하고 있어. 제발 가서 너도 좀 쉬라고. 그만 와.”

“아니, 넌 대체 왜 자는 거야? 폰질만 할 거잖아.”

“진짜 너 뒤흔다.”

해은은 결국 왼팔에 쥐가 생겼다. 그리고 해은은 쥐가 나는 이 고통을 요만큼도 모를 조엘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조엘은 그런 해은을 보고 고개를 젓더니 방구석에 놓인 X타입 무선 어댑터에 앉아 충전을 시작하였다.

조엘에게 아까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눈이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깜빡이더니 눈에서 초록색 빛이 켜졌다. 그리고 곧 눈이 감졌다. 해은은 그런 조엘이 마음이 들었다. 해은은 무사히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해은이 깊은 잠에 빠질 무렵 정은영은 해은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은영은 먼저 해은에게 다가갔다. 은영은 행여 해은이 깰 새라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은영은 조엘에게 다가갔다. 어느샌가 해은을 더 많이 봐주는 믿음직한 녀석이 되었다. 처음엔 장민혁 그리고 은영 본인의 반대도 컸고, 무엇보다 해은이 벨리를 가지기 싫어했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벨리는 꽤 윤리코드를 풍성하게 가진 로봇이 되었고 어느덧 큰돈을 들여 벨리를 장만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 해다. 그동안 아무런 정말 아무런 말썽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꽤 지낼만 하였다.

이제는 오히려 은영 자신보다 해은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벨리 아니, 조엘이 되었다. 은영은 그저 해은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하다.

‘잘 했어 조엘. 앞으로도 우리 해은이 잘 좀 봐줘. 많이 덤병대고 놓치는 아이인 것 너도 알잖니. 부탁할게.’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영은 해은의 방 안을 둘러보다가 어질러진 방을 보고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천천히 돌아누워 조엘을 보았다. 해은은 솔직히 조엘에게 고마웠다. 조엘의 참견이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조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지 않았어도 해은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은영은 벨리를 장만하지 못했다. 벨리 한 대가 상당한 금액인 것도 그런데 실은 그것이 다가가 아니었다.

가족 중에 민혁이 처음 벨리를 장만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이었고 민혁도 그렇게 꺼리는 모습도 아니었다. 처음엔 은영도 꽤 괜찮았었다.

하지만 해은까지 벨리를 장만할 무렵, 어느새 은영은 민혁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자신의 벨리를 ‘레오나’라고 불렀고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은영과 방을 나누어버렸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예 은영이 찬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다. 은영은 그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은영 본인만큼은 늘 민혁과 해은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더 벨리를 장만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벌써 조엘을 살짝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기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은영은 ‘벨리는 고철덩어리’를 되새겼다. 방에서 나온 은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막했다.

오전 6시 반. 은영은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 은영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 서는 레오나가 오늘의 추천 요리를 조리 중이었다.

“스크램블에그와 남아있는 방울토마토를 얹었네요. 우유와 함께하면 든든하겠죠. 은영 씨? 그리고 달걀도 남은 거 다 조리한 거거든요. 오후에 보충 부탁드려요.”

“그래그래 알았어. 좀 씻을게.”

레오나는 일터에서 특히 활약한다. 더하여 벨리는 외부에서 항상 사용자와 함께 다녀야 한다는 사용자 원칙 때문에라도 레오나는 민혁을 따라 회사로 간다.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은영이 아침이면 늘 레오나에게 냉장고 브리핑을 듣는 편이다.

눈을 비비며 거울을 본 은영은 푸석해진 머릿결을 보았다. 머리칼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딱이진 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나머지 손으로는 칫솔을 들었다.

은영은 수건을 한 장 꺼내어 머리를 푹푹 싸맸다. 조금 선명해진 초점으로 이제 얼굴을 점검하였다. 밝은 표정으로 마무리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해은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직 조엘은 방에서 충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해은은 웃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은영을 보고는 밝은 표정을 지어주었다.

해은은 아침 일찍 이라 정신없었지만 그 찰나의 인간미가 느껴졌다. 해은은 은영이 집안일에 하나둘 손을 뻗 때부터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은영은 자신의 방에서 화장을 하나씩 시작하였고 해은은 변을 보았다. 두 여자가 각각의 일을 보고 있을 때 벌써 용모를 끝낸 민혁이 부엌으로 나왔다. 레오나가 민혁이 앉은 자리 앞에 스크램블에그를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식빵과 우유가 함께 있었다.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었다.

“은영은?”

“볼 일 보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응 그래. 맛있네. 이것도 네가 한 거지?”

“그럼요.”

“나중에 은영한테도 좀 알려줘. 싫어할라나?”

레오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프리징 상태란 벨리가 처리할 수 없는 알고리즘과 버그 발생 감지 시엔 현실 상황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답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레오나는 반영구 동면상태로 들어갔다.

“맛이 갔구만.”

민혁은 얼어붙은 레오나를 보고 잠시 손가락을 놓았다. 레오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고 입을 살짝 맞추었다. 이렇게 프리징이 된 벨리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약속해둔 행동으로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언프리징 시엔 벨리는 프리징 바로 이전의 상태로 초기화된다.

“얼음땡이네요.”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는 녀석이 뭐가 문제였어. 됐고, 오늘 업무 정리해줘.”

“꽤 많이 남기셨는데요.”

“어, 그건 여보야한테 맡기고 나갈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혁이 나간다는 말에 은영이 방에서 나왔다. 은영은 민혁에게 어깨를 주물러주었다. 이어서 은영은 민혁의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너무 손질이 잘 되어있어서였다. 민혁은 허공에 병 찢 채 멈춰버린 은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우리 남편 고생해. 오늘도 파이팅이야.”

민혁은 은영의 엉덩이를 힘껏 잡았다가 놓았다. 은영이 황급히 뒤를 돌아 화장실 쪽을 보았다. 다행히 해은은 아직 화장실에서 씨름 중이었다. 다시 민혁을 돌아본 은영은 민혁에게 다가가려다 말았다. 민혁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레오나가 말했다. 그제야 은영은 민혁 어깨 위에 올린 손을 내렸다. 민혁은 확실히 은영이 겁을 먹은 것이 보였다.

레오나가 현관문을 열었지만 민혁은 아직도 은영을 보고 있다. 은영은 어쩔 줄 모르며 레오나와 민혁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다. 민혁은 은영에게 키스하였다. 은영은 따뜻한 민혁에 포옹에 화답해 주었다.

첫 번째 잔. 황혼. 간단한 딥러닝, 쪽지시험

“아우, 아침부터 꼴불견이야.”

어느새 화장실에서 나온 해은이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채, 한마디 특 뵈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놀라며 민혁에게서 떨어졌다.

민혁은 그런 은영을 보고 활짝 웃었다. 은영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표정을 가다듬고 민혁에게 말했다.

“이제 가.”

“그래. 집 잘 지키고 있어.”

은영은 닫힌 현관문을 잠시 멍하니 보고 있었다. 역시 아무리 그래도 민혁의 벨리 언프리징 신호를 입맞춤으로 한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영은 짧게나마 혀를 차며 해은이 방으로 향했다.

‘아, 조엘. 그건 저기 위에다 올려다 줘.’

해은은 등교준비를 하면서 조엘에게 방 정리를 시키는 것 같았다. 은영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 민혁이 남긴 스크램블에그를 보았다. 아직 식지도 않았다. 열려

있는 빵 봉지를 묶다 말고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은영은 가스레인지 쪽을 보았다. 은영은 레오나가 조리한 스크램블에그를 데웠다. 해은은 은영에게서 구워진 식사를 받았다.

“잼 발라줄까?”

“응! …… 아니.”

“그래.”

“엄마, 근데 그거 아빠가 먹던 거 아니야?”

“맞아.”

“가족끼린데 뭐.”

해은의 입이 쪽 튀어나오다 뒤집어지기까지 했다.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빵에 잼을 발라 자신의 입속으로 넣었다.

“왜?”

“엄마는 집에서 뭐해? 그냥 궁금해서.”

“집에서 뭐하긴, 집안일하지.”

“레오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애는. 있다 보면 보여. 왜? 갑자기 엄마 걱정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엄마가 놀았으면 좋겠어서.”

“나는 괜찮아 해은아. 정말이야. 엄마는 요즘 놀라운 게 해은이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해주는 게 신기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배부르고 기쁘다?”

해은은 자신 방에서 아직 어댑터에 앉아있는 조엘을 떠올렸다. 물론, 충전은 지난밤에 모두 완료되었다. 해은이 갑자기 조엘을 떠올리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은영 머릿속에서도 그 ‘벨리’란 것이 동실동실 떠다녔지만 끔찍한 빗더미를 생각하니 곧 먹구름이 되고 말았다. 은영은 해은을 보며 애써 웃어주었다.

벨리가 비록 집 반 채 가격이라 하여도 ‘우리’는 큰맘을 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해은이를 이렇게 낳은 것만 해도 큰맘을 먹은 것이었다. 해은은 그저 웃고만 있는 은영을 보고 어느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스크램블에그는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해은은 입맛이 없었다.

“더 안 먹어?”

“맛없어. 난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

해은은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편이었다. 입에 남은 이물질들이 영 싫었나보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마지막 용모를 마친 해은은 현관문을 나섰다.

은영은 식탁에 앉았다. 민혁 반 접시, 해은 반 접시, 그리고 프라이팬에 남은 은영의 몫 한 접시. 은영은 2인분 모두를 해치우고 소파에 퍼졌다.

먹는 고통을 떠올리니 그만 눈에서 눈물이 조금 흘렀다. 깜짝 놀란 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것이 떠올랐다. 은영에게는 오늘의 집안일, ‘달걀 사기’가 있었다.

해은은 버스정류장 옆 작은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 아래에는 인조 잔디로 된 자그마한 축구장이 있었다. 풋살 축구장을 들어가기 전 해은은 고개를 들었다.

‘미리내고등학교 B캠퍼스’라는 명판이 보였다. 명판만 보는데 ‘공립학교’라는 것, 그리고 저 자그마한 학교에 들어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지식을 머리에 쑤셔 박을 자신과 겹쳐 보이니, 해은은 기가 찬 웃음이 나왔다.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의 시간지연 수식도 가뿐히 계산할 수 있는 조엘이 물었다. 해은은 조엘을 내려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해은은 교문을 들어갔다.

교실 문을 들어가기 전 선생님의 벨리가 해은을 잠시 막았다. 해은은 벨리를 잠깐 손으로 젖히고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로 가방을 던졌다. 시계를 보았고 무사히 자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해은은 늘 그랬듯 아침잠이 쏟아졌다. 그리고 책상에 그대로 엎어졌다. 잠깐 눈을 감았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것을 느꼈다.

“장해은.”

“네, 왔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해은은 조용히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출석은 형식적인 거고. 실은 오늘 쪽지 시험 보려고 한다.”

한 교실에 있던 7명 전원이 경악하며 괴성을 질렀다.

“됐고, 1학년은 영어 시험. 2학년은 코딩.”

“코딩 어디예요?”

“어제 배운 거. 인공 신경망 기초. 그리고 신경우? 우리 정우는 코딩 시험 보자?”

해은은 한숨이 폭 새 나왔다. 해은은 어제 내도록 조엘에게 인공 신경망을 계속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해하는 척으로 끝났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폰질이라도 덜 할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정우는 1학년이지만 해은과 같이 코딩 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총 10문제였다. 해은은 오른쪽을 보았다. 민에서는 뭐가 저리 신나는지 고개를 흔들거리며 자기 흥에 빠져있다. 예서 앞자리 민애는 긴 다리를 책상 밖으로 쭉 뻗 채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민애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이 드러나도록 등을 긁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이 시험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는 듯하였다.

시간이 모두 흘렀다. 해은의 시험지가 선생님 손에 들어갔다.

“시험 1등은…… 말할까?”

“어차피 정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예서가 까칠하게 말했다. 1년 아래인 정우였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했다. 해은은 어차피 자신이 1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현석이야. 서현석, 1등.”

“재가 뭘데 1등을 해?”

예서의 목소리가 반 전체에 찌렁찌렁 울리는 것 같다. 해은 오른쪽 귓구멍은 짜릿하다 못해 이명까지 생긴다. 해은은 얼얼한 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개를 왼쪽 뒤로 돌려 현석이 앉아있는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웃고 있었다.

현석이 해은 쪽을 보더니 눈썹을 슬쩍 올렸다. 해은은 현석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알자마자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뻗뻗하게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해은은 현석이가 어젯밤 무얼 했는지 궁금해졌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다. 그나저나 해은 바로 앞에 있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굳어버린 것 같다.

해은은 절망하는 정우를 보느니 차라리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은 바로 왼쪽에 앉은 박대현은 부드럽게 볼펜을 돌리며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해은은 대현의 옆모습을 잠시 감상하고 싶었다.

“언냐, 뭐해. 책 읽으라고 책. …… 아휴, 내가 못 살아.”

예서가 무리한 자세로 다리를 쪽 뻗 뒤에 해은의 의자 밑바닥을 찼다. 선생님은 어느새 칠판에 글씨를 적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른쪽 앞쪽에 있던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앞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보다 말고 왼쪽 앞자리에 앉은 이수아를 보았다.

“잠깐만, 수아야? 이수아. 애, 너 껌 씹니? 뱉고 와.”

왼쪽 앞, 대현 앞에 앉아있던 수아는 해은보다 한 살 어린 고1이지만 해은이 볼 때는 이렇 수록 더 어려 보이는 아이다. 수아는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휴지를 찾았다. 수아는 하필 앞쪽으로 나가 휴지에 껌을 뱉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망, 그리고 삼진법 반도체에 대한 역사를 읊었다. 해은은 줄기차게 읽어나가다가 두 페이지 반 쯤 와서 잠시 글자를 놓쳤다.

“언냐, 누설전류, 누설전류상태.”

예서가 놓친 글자를 짚어주었다. 예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었다. 해은은 애써 무시한 채 세 페이지 쯤 되니 읽는 속도도 느려질뿐더러 여기저기서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다.

선생님은 이어서 연쇄법칙과 편미분, 가중치와 편향, 마지막으로 시그마 친구 ‘파이’에 관해 설명했다. 선생님이 이 끝에 있는 ‘딥러닝’을 두 번 읊었다. 몇몇 학생은 무언가의 암호로 최대한 축약시켜 외우기 위해 애를 썼다.

다음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이전 시간에 뻔 진도가 꽤 어려운 개념이고 중요한 부분이니 같은 비지도 학습 역사 수업으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그리 길게 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시간은 해당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자율학습이 이어졌다. 선생님은 남은 업무를 마치기 위해 교실을 나갔다. 교실은 여전히 이전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고요했다.

선생님은 해운에서 수아에게로 주자를 넘겼다. 한숨을 돌린 해운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여도 도무지 억지로 읽히지도 않는 글을 읽는 것은 안 되었다.

결국, 교과서 한구석에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된 이리저리 꼬여있는 시냅스들처럼,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신호가 누출되는 것을 막는 미엘린처럼 머릿속이 헝클어지고 여기저기서 짹짹 조여지는 것 같았다.

해운은 마치 중학교 때 배운 메모리 주소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개념처럼 전혀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업이었다. 해운에게는 다행히 다음 시간이 사회시간이라는 점이였다. 선생님은 잠시 교실을 떠났다.

“Hah……. HEY GUYZ, CAN YOU DIG IT? 머리가 그냥 아주 고철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야, 민에서. 너 아까부터 계속 나댄다?”

“언니는 괜찮아? 아니 쌍, 언니도 봐봐, 이게 사람 읽으라고 써놓은 거냐고.”

“아! 줌, 닥쳐!”

결국 앞자리 민애가 뒤를 돌아 직접 예서를 보며 성질을 내었다. 예서는 의자에 퍼질러진 채 민애를 무시했다. 저 둘은 저러다 곧 또 친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잔. 황혼. 이름 나누기. 고백. 친환경 엔진 설계. 원격근무단지.

해운은 둘과 자신만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저 둘이 저렇게까지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대현이나 정우까지 나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다들 말이 없다. 해운은 말없이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복습을 시작했다.

“언냐언냐, 이거 봐. 빨리 업데이트 했데. 봤어?”

“아니, 언제?”

“지금 막. 뭐 이전에 알려준 대로 미성년자 감성 대화 데이터 수집했고, 고거 기반으로 일반인 적용 뭐 어찌구.”

“야, 그건 또 언제 수집했데?”

“기억 안나? 얘기했었잖아! 벨루랑 뉴스에서 그 머냐 베이트 머시기에서 데이터 좀 쓴다고 하루 종일 난리였는데.”

“빅데이터베이스센터.”

“조용히 해라, 이수아. 여튼. 그렇다고.”

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말들을 보며 잠시 눈을 붙이려했던 해은은 팬스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겨 다시 눈을 떴다. 당연하지만 해은에게도 ‘벨리 업데이트 항목’은 조금 중요한 사항이었다. 해은은 업데이트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려 하였다. 집중을 시작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해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야, 너 따라 와 봐.”

해은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들어보았다. 대현이었다. 대현을 정면으로 바라본 해은은 저절로 눈이 커졌다. 폰은 스스로 화면이 꺼졌고 해은은 금세 무언가에 홀린 듯 대현을 따라 교실을 나갔다.

예서는 해은을 따라 고개를 돌리다가 해은은 문을 나간 시점에 눈이 마주칠까 책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가 웃었다. 이윽고 교실은 먼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둘의 인기척이 다 사라져갔다.

“어떡해, 어떡해. 나 몰라. 나 몰라!”

예서가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렸다. 수아가 예서를 한 번 보았다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책상에 엎어졌다. 민애는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리는 예서의 손을 잡았다. 둘이 씨름을 시작했다.

이 자그마한 학교에도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었다. 대현과 해은은 벨리를 잠시 안 보이는 곳에 두고 프리징 상태를 걸어두었다. 동면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면, 부모에게 연락이 되어 무슨 짓을 하든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 하였다. 뒷문 분리수거장 옆에서 대현이 등을 대었다.

“피곤해?”

“어? 아, 아니. 그나저나 여긴 왜 온 거야?”

해은은 어느덧 혹시나 하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저 짜증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대현은 슬며시 웃으며 천천히 해은을 바라보았다.

“너 오늘도 나 봤잖아. 이제 그만 좀 봐 달라고.”

“어?”

“부담돼.”

해은 머릿속을 송곳 하나가 강하게 찔렀다. 해은은 잠시 바닥을 보면서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고개를 들어 대현을 흘겨보았다.

“대도시면 뭐 하나고. 학교가 쪼그매가지고 100명도 없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는 거 쉽지 않은 거 같아. …… 내가 부족한 걸로 치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

“대신 벨리 이름 나눌래, 우리? 아니, 너랑 나.”

“…….”

“뭐야 말 좀 해. 아 쌍, 몰라. 내 벨리는 ‘아서’야.”

대개 벨리 사용자들은 자신의 깊은 내면,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혹은 숨겨진 본능 따위를 벨리에 녹여내는 비율이 높다. 게다가 벨리의 이름은 자신의 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벨리를 분석하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 얼굴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전혀 신용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꽤 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이용해 아예 다른 인격을 벨리에 심어버리는 이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로 정해진 법은 없지만 벨리의 이름조차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들끼리의 암묵적인 금기로 되어있다. 정말 가족이나 연인, 정말 돈독한 사이가 아닌 낯선 이들끼리 벨리의 이름을 서로 아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해은은 그만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은 눈물이 흐르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해은은 붉어진 얼굴을 그대로 대현에게 보여주었다.

“대체 왜 그러는데?”

“……. 사랑해서 미안해. 됐지?”

“……. 어. 나도 좋아해. 그리고 내 벨리 이름은 조엘이야. 그나저나 너 꺼 되게 촌스럽네. 의외다.”

“남자였냐? 알아봤었어. 그리고 네 꺼 이름도 촌스러워.”

해은은 눈물을 닦고 꽤 높아진 목소리 톤을 가라앉혀 보았다.

“솔직히 말해주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거 아니야. …… 가. 떠나게 됐어. 그래서 그래.”

“연락하면 되잖아.”

“멀리 가. 유학가게 됐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는無理일 거 같아서.”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아보았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막지는 못했

다. 대현은 해은을 꼭 안아주었다. 해은은 대현의 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미안해.”

“가지 마.”

해은은 뜨거운 대현의 품이 느껴졌다. 대현은 따뜻한 해은의 가슴이 느껴졌다. 서로의 몸을 쓰다듬은 둘은 잠시 떨어졌다. 대현은 시계를 보려 하였다. 해은은 대현에게 입을 맞추었다. 대현은 천천히 해은을 받아주었다.

해은은 먼저 조엘의 프리징을 해제하였다. 대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서의 동면을 쳐주었다. 해은은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벌써 됐네. 가자. 조엘, 우리 대현이가 쪽지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게 속상하텐다.”

조엘과 아서는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현은 곧잘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해은은 차마 바로 교실로 가지 못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물골부터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해은은 교실로 돌아와 사회 교과서를 펴 보았지만 글씨가 너무 날아다녀서 도통 눈에 넣을 수가 없었다. 해은은 멍한 눈으로 선생님과 정우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수소경제에 맞춰서 수소차, 전기차 모두 개발이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발전된 스텔링 엔진 발전소를 채용하기도 했고. 부가적으로 해당 스텔링 엔진에는 다양한 형태  $\alpha$ ,  $\beta$ ,  $\gamma$  mode가 있는데, 현재는 ‘F-Mode’를 시험 가동 중이다.

f-mode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흠, f-mode는 스텔링엔진의 피스톤을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꾸며봤다지.

이렇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 전기 에너지는 도심을 달리거나 배달 업무를 하는 일반 차량 쪽에서, 수소 에너지는 항공기나 여객선, 혹은 중장비 엔진 같은 곳에서 시험 중이다. 자,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차량 두 개를 보여줄게.

자, 보다시피 중형 세단과 SUV를 통해 근미래의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한 기업은 수소 값이 계속 오르니 수소의 비용을 낮춰 경수소 차량 SUV를 개발하고, 반면에 한 기업은 경수소 차량의 오존 발생을 지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엔진과 배터리가 동시에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모델로 내놓았지.

정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차량 상품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연료는 더 복잡한 폐기물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핵 연료봉, 리튬전지만 보더라도

무한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 인류가 만들 자원이나 기술 역시 기대수명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 양산된 제품은 결국 폐기화합물을 양산할 거예요. 만약 더 오염도가 심해지면 차라리 탄소일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차량 생산을 줄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만 차량을 더욱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비싸게 개발하고 차량의 무분별한 대량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차량조립공장이 친환경으로 되었다고 하여도 포함된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공장 역시 친환경인지 살펴봐야하고요. 이런 걸 다 따져보니 그냥 친환경은 자동차보단 컴퓨터 한 대 돌리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은 서비스 시대이니 국가 간 차량보다 훨씬 빠른 광통신망으로 업무를 진행하잖아요. 나머지 운송이나 실제 사람이 이동해야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은 택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죠.

굳이 운전이란 피곤한 것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기업 수장이라면 각 지역에 원격근무단지를 짓고 그곳에 홀로그램 회의실을 설치할 것 같네요. 인트라넷 대역폭이 충분하니 이 홀로그램 회의실 설비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회의실은 실제로 만나지는 않지만, 무리 없이 회의나 여러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설비이고 그런 복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 같아요.

직원들은 본사로 출근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제 팔도에서 자유롭게 원격근무단지로 출근해 업무를 보겠죠. 다만, CCTV 아래서 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요.

즉,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장인의 예술품 따위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핸드백이나 시계처럼 하나의 고성능 자동차의 가격이 꽤 높게 책정되는 데로.”

“자동차가 명품 가방처럼 명품 차량이 된다는 소리구나.”

“단, 정말 명품이 되려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 그리고 우리 정우가 언급한 일터에 홀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업무 중에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떡하지?”

“워크샵이나 기타 여러 단체 활동은 미리 회사에서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 그쪽으로 모이면서 되는 거고, 업무상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부서라면 본사로 출근하게 해야죠. 그런데 요즘 서비스 시대에 과연 신체 활동이나 접촉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꽤 있을 거란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

“운전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한 교통 체증이나 난폭운전에 휘말렸을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너무 특정 지역에 본사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 당연히 난폭운전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인트라넷에 연결된 원격근무단지가 있으니 구태여 그런 체증 안 겪어도 되고 더 나아가서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죠. 그런 집값 따지고 인프라 따지고 하는 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하지만 다 인트라넷에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가 이전 되니까요.”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로 정우를 앉혔다. 선생님은 정우에게 질문을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이 남았지만 마무리하는 식으로 자습을 시키려했다. 수아가 손을 들었다.

“수아 무슨 할 말 있니?”

“정우의 원격근무단지는 동의해요. 애초에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공적인 일을 하겠다니.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단지를 만드는 게 낫죠. 하지만, 어느 누가 홀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그 비싼 걸 말이에요. 네, 새로 짓는 것 보단 버려진 건물들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버려진 대학교 있잖아요. 벽지나 가구 같은 건 다 해졌어도. 컴퓨터나 인터넷 설비는 그대로 일 테니 말이죠. 덤으로 식당이랑 기숙사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인프라넷 대역폭으로 홀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인프라넷, 국가 내에서만 운용한다 해도 말마따나 광통신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며, 트래픽이 줄어든다 한들 얼마나 줄어들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와 같은 기술 도입보다는 제 생각엔 그냥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부여한 다음 그 캐릭터와 자신의 얼굴을 일치시키는 센서를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추얼 방송인 같은 거 말이죠.

이러면 업무, 회의 하다못해 컨설팅까지 모두 가공된 얼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은 못생겼어요. 네, 전 정우의 원격근무단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그 비싼 홀로그램 장비를 구할 수 있다면 있겠지만, 무작정 그러기보단 대체 캐릭터를 가공하는 쪽이 훨씬 거부감도 덜 들고, 업무 전달 간 더 깔끔한 정보교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이란 걸로 회의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원격 근무. 일테면 ‘라식수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라식 수술 의사가 맨손으로 하나요? 레이저든 뭐든 기계를 쓰잖아요? 그럼 의사랑 기계랑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곧 동기화고 원격이죠.

이 얘기는 굳이 수술받으러 특정 도시에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원격근무단지에서 수술해줄 테니까. 어차피 내 몸뚱이 특정 도시나, 먼 도시나 기계에 맡기는 건 똑같으니까. 다만, 초반엔 사고가 좀 있겠죠. 데이터도 신뢰해야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하는 기업 입장에선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시작부터 얼굴을 보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애초에 일이 원격이니깐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디어와 유저의 스펙만 보고 파티를 꾸리고 미션이 클리어 되면 파티를 해체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근무 말고도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 것 역시 정우가 말한 것처럼 완전한 공간 분리는 힘들겠죠.

그래도 육체 기반 노동자여도 컴퓨터 관련 공부는 해야 할 거예요. 공성 벽돌 50개 드는 노동자보다 공성벽돌 500개 드는 로봇을 배우고 다루는 로봇 활용 노동자가 더 선호 받을



테니까요. 물론…… 그 로봇 가지는 것 역시 돈이겠죠.

그리고 육신을 사용하기에 데이터 기반 업무보다 페이는 더 세겠지만 결국 공간에 제약을 받겠죠. 즉, 출근하는 곳과 퇴근하는 곳이 가까워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기반 업무면 페이는 좀 더 작겠지만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거고요.

끝으로 이런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DATA’겠죠. 그 자료가 곧 재산이 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 시대가 ‘자동화 시대’구요.

하지만 확실한 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원격이든 로봇이든, 예나 지금이나 만약 작업환경이 개선되면 그만큼 더 일을 시킬 게 예상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혹독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봐요.”

수업시간의 종이 찼다. 정우가 수아의 눈과 마주쳤다. 수아는 정우를 내리깔 듯이 보았다. 정우는 슬쩍 웃으며 다시 자신의 태블릿을 보았다.

“오늘은 정말 보람찬 수업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각자 돌아가서 다듬을 수 있도록!”

해은은 아파 오는 머리와 함께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 해은은 화장실로 향했다.

해은이 화장실에서 화장을 조금 고치는 동안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쳐들어왔다. 아직 제대로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던 해은은 옆에 누가 왔는지도 전혀 모를 지경이었다.

“언냐, 왜 그래. 괜찮아?”

“조용히 해라.”

“예서야, 일 났다.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해은은 당장에라도 이 둘을 아주 죽여 버리고 싶었다.

첫 번째 잔. 황혼. 로봇 심부름. 유전자 가위. 출산. 사막화.

해은은 거울을 통해 둘을 노려보았다. 민애는 그 매서우면서도 어설픈 두 눈을 보고는 해은의 엉덩이를 세게 쳤다. 해은은 고개를 다시 떨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애 이대로 못 보네. 해은, 너 우리 집에 오늘 초대야.”

사실, 민애와 예서는 꽤 있는 집안이였다. 그래서 늘 둘이 다녔던 탓에 해은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재밌는 볼거리 정도였었다. 그러는 와중에 워낙 반 정원이 적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관심을 끄고 싶어도 서로의 가정사까지 다 알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은은 거울을 보며 잠시 고민을 하더니 폰을 꺼냈다.

‘엄마W 저 친구 집에서 놀다 갈게요’

‘그래라W 오늘 오후 3시 경에 미세먼지 폭풍이 있다더라WW 꼭 어디 들어가 있고W 너무 늦게 오지 말고W 올 때 꼭 전화하고’

“자, 봤지? 그래서 뭐 할 건데?”

“뭐하긴. 일단 오기나 해.”

“술 파티. 이참에 멤버 한 명 늘리는 건 어때? 아, 밤새우는 거 아니면 술은 무린가?”

“예서, 너 오늘 진짜 나댄다.”

“왜, 언니? 깔랑깔랑하지 않아?”

술이란 말에 해은은 잠시 닫히지 않은 메시지 창을 보았다. 은영과 더 얘기를 나눌지 고민하다가 그만 두었다. 해은은 정말 오늘 뭐든 하고 싶었다.

해은의 짧은 답변 문자를 읽은 은영은 다이어리를 덮고 안경을 벗었다. 잠시 안경을 내려놓기 전 안경알에 묻은 먼지를 보았다.

반 백에 다가갈수록 해은이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하는 걱정이 먼저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씩 고장 나는 것 같다. 비록 아직 약한 원시이지만 어쨌든 안경을 써야 편하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

정신을 차리니 한 시가 다 되어갔다. 원래라면 점심을 먹었어야 하지만 아침을 너무 무리하게 먹은 탓인지 아무 것도 먹기 싫었다. 잠시 꺼진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았지만 갑자기 더 부룩해지는 뱃속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

아직 한 시 전이기 때문에 세 시 전까지 장을 볼 시간을 충분하였다. 이참에 바람을 한 번 쐬기로 마음을 잡은 은영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서랍 안에 지갑과 장바구니를 꺼냈다.

한낮에 올라탄 무인 버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래폭풍이 예정된 것도 맞겠지만 보통 무인차로 외곽이라 이용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은영은 버스에 있는 이동식 TV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움직이는 풍경들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마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은영 옆에도 사람 하나가 앉았는데 순간 은영 살결과 닮았다. 은영은 창 쪽으로 더 몸을 움직였다.

“아이구, 지랄이야. 지랄은.”

은영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슬쩍 눈만 돌렸다. 할머니 두 분이서 TV를 보고 담소 중이었다. 은영은 조금 궁금해져서 귀를 살짝 열어보았다.

‘70대 부부가 인공자궁 기술로 아이를 가졌는데 해당 산부인과 측에서 알고 보니 유전자 가위로 편집된 일명 조작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DNA 편집 기술을 이용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자궁 착수에 성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검찰은 해당 산부인과와 조작된 아이를 가지게 된 해당 부부에 대해서 수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돈 많으니까 70에 애 가질 생각을 하지. 난 못 해.”

“쫄물딱거릴 때가 있는 법이다. 거시기 참.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여.”

까르르 웃는 할머니들 위에서 조금만 정숙해달라는 인공지능 방송이 나온다. 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밖을 쳐다보며, 자신에게 맞는 정거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결코 대수롭지 않았다.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잊고 있었던 그날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은영은 결국, 살을 찢는 고통과 함께 지쳐갈 즈음 빛나던 작은 핏덩어리를 기억해내고 말았다.

‘너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은영에게 해운을 안고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건넌 민혁의 충고였다. 은영도 역시 밀려오는 기억들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자신도 감정적인 인간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글을 써보기도 하며, 집에서 나와 걷기도 하였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건물만 보기로 하였는데도 그 건물 사이로 비치는 빛 너머로 옛 기억들이 넘어온다.

바람 빠지는 소리와 버스 문이 열렸다. 은영은 건물에서 창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지만, 얼굴을 붉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은영은 자기 얼굴 너머로 마트가 보였다. 지금 당장 내려야 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맺혀있던 눈물이 버스 바닥 어딘가로 떨어졌다.

‘세제, 햄, 라면 한 봉지, 쪽파, 양파, 마늘, 그리고 달걀 15구.’

은영은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폰으로 찍어 왔었다. 모두 마트 지하에 있어야 할 제품과 항목들이라서 은영은 카트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다.

세제를 담고 햄, 라면을 담은 뒤 식품매장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은영은 벨리가 끄는 카트와 마주치게 되었다. 은영은 벨리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었다.

벨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이 최적의 루트를 찾는 동안 차라리 인간이 먼저 길을 터주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더 솔직한 심정은 벨리가 최적화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만 예전에 벨리가 괜히 경로를 계산하는 중 알 수 없는 프리징에 걸려 버려 해당 주인(대부분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다.)이 은영에게 성질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로 인해 은영은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주문만 할까 하였지만 벨루 측에서 지속된 업데이트와 서서히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가는 은영이었기에, 벨리 속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다만, 요즘 들어서는 벨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마트를 넓게 돌아서

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다.

은영은 빠르게 물건들을 담았고 계산을 마친 뒤 매장을 나가려고 하였다.

‘마트 내 고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에 당도할 것이라 예상했던 강한 모래폭풍(Rough Dust Storm)이 예상 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건물 내에 계속 머무시거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은영은 그 ‘강한 모래폭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한 모래폭풍이란, 근래에 생겨난 기상이변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내리던 시절 후, 계속 날씨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강산에 사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위와 같이 강한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벨리의 대량생산과도 연관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벨리를 대량생산 하게 되면서 많은 공장과 유통망이 형성됨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의 대기가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지구에서는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래폭풍이 각국에서 일어나며, 열대에서 진행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북극에서 내리는 등 도저히 현 과학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심도 있는 연구에 돌입했으며, 대기의 움직임과 상황을 기상 벨리로 분석해 환경변화를 예측하려고 노력 중이다.

은영은 안내 방송을 듣고 밖을 유심히 보았다. 아직 거리는 평소와 같아 보였다. 은영은 뒤로 슬쩍 고개를 돌려 카페 쪽을 보았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고쳐 들고 폰을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아직 2시 조금 남은 시간이었다. 은영은 그냥 나가기로 하였다.

바로 앞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를 놓치니 은영은 ‘조금 더 서두를걸.’ 싶었다. 결국, 정류소에 앉아 30분 정도 되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팬스레 버스정류소 패널에서 버스 위치를 찾았다. 다음 버스는 아직 종착지점에서 출발조차 안 하였다.

은영은 가슴 저 깊숙한 곳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모범버스까지 찾아봤으나 역시나 모두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은영은 길 건너편 마트를 보았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카페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정류소 차폐막이 단혔다. 모래폭풍이 몰고 오는 먼지들이 하나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은영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백에 마스크를 구비 해두었다.

긴급탈출버튼을 누르면 정류소를 나갈 수는 있었지만, 은영은 그냥 마스크를 쓴 채 정류소의자에 앉아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자신의 양팔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한낮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 바보 같아.’

은영은 그대로 영원한 잠들어버리겠다는 심상이었다. 자세를 고쳐 잡고 더 웅크렸다.

유리에 부딪히는 모래들이 조금 규칙적으로 들릴 즈음이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둔탁한 무언가가 인위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은영이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니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밖에서 헤드렌턴을 켜 채 은영을 보고 있었다. 은영은 눈이 부셔 손을 들었다. 구급대원은 렌턴의 밝기를 조금 낮추었다. 구급대원은 문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다.

문밖에서는 다른 구급대원이 방호덮개를 들고 있었다. 문밖으로 나가면 바로 안으로 들어 가라는 듯이 최대한 은영이 들어가기 좋게 키에 맞추어서 덮개를 걷고 있었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입술을 굳게 문 채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힘차게 긴급탈출버튼을 눌렀다. 구급대원은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은영을 덮개 안으로 넣었다.

첫 번째 잔. 황혼. 긴급탈출장치. 백제로. 쿠페 택시. 모범도로, 테러와 예방

긴급탈출버튼은 현재 정류소와 같은 작은 밀집 장소에 우선 시범운행 중이다. 해당 버튼은 여러 운송수단이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빚어지는 갇은 사고에 1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중이다.

해당 버튼은 ‘유사시 승객을 안전하게 할 기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고 대응 적절하게 법안이 세워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 양성이 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위와 같은 유사 시에는 대체로 외부에서는 접촉이 힘들 뿐 아니라 내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죽음에 가까운 상황인지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일종에 운송수단이 더 빨라지고, 거대해지고, 견고해지면서 생기는 기술 역효과인 셈이다.

즉, 운송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만, 유사시에는 그 효율을 위해 대체로 ‘밀실’ 구조를 채택하기에 승객들이 승객실 안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다.

죽음에 가깝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이는 필연적으로 운송수단 내 승객이다.

긴급탈출버튼은 죽음에 직면한 이들에 대해 선택권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것이며, 만약 이 버튼을 누를 시 승객이 탑승해있는 해당 승객실이 통째로 캡슐화가 진행된 후 운송수단에서 사출되는 매커니즘이 진행된다.

그리고 사출된 캡슐은 필연적으로 2차 사고를 일으킬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운송수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캡슐화의 연쇄 진행으로 대처한다.

사고 수습 및 복구 견적 보는 행위 혹은 법 집행 등은 모든 연쇄 캡슐화가 끝나고, 구조대

원들이 캡슐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생존자들을 구조한 뒤에 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커니즘은 선박 뿐 아니라, 차량, 철도, 여객기에 이르는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구상과 개발 의도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당시 상황은 제 프로젝트를 군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1차 휴가 때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순조로웠죠. 뭐, 저는 당연히 그 프로젝트를 결국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요.

나머지 날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군인 신분이었어도 휴가 때는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일정에 맞춰 휴가 복귀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 기억에 남아요. 제 1차 휴가 복귀 날이니까요.

뭐,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날도 있는 법이죠. 저는 휴가 복귀자였기에 그날 초소 야간근무를 켜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에 별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판짓을 한 거죠. 하하. 전 그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일반인과 군인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곤 알아냈죠. 전투기 조종사는 위급상황 시, 빨간 버튼 한 방이면 기계가 그냥 전투기에서 뺏다 쫓아내 버리는데, 현재 일반인이 타는 모든 운송수단은 그렇지 않다고요.

최근 정말 핫하죠? 급발진. 급발진 이슈가 발생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기계결함 혹은 운전자 미숙.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급발진 이슈 이전에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 하고요. 물론, 왜 급발진 이슈가 죄다 오토메틱에서만 발생하는지, 트럭, 버스, 지하철, 비행기, 바이크 류에서는 그 발생빈도가 낮은지는 흥미롭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어 안 되는 과속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역시 급발진 시 캡슐화로 사람 살리는 게 먼저겠죠. 이런 건 자동차 뿐 아니라 선박의 침몰사고, 여객기의 추락사고도 마찬가지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현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이유 자체는 사고율을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타인을 위해 푸른색 점멸등을 장착하였습니다. 차에 푸른 등이 들어오면 자율주행 중이란 뜻…….’

하지만 해당 사업가의 바람이 담긴 승객실 사출 매커니즘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로는 바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슈 때문이다.

사출되는 과정에서 과연 승객실이 어떻게 승객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며, 이는 곧 승객실 외부에 있는 인원에게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사업가의 생각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승객실 내,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네월호 건조를 담당하는 해당 사업가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해당 캡슐에 최소한의 식량과 현 외부 상황에 대한 인터페이스, 소형 엔진기관을 설치해 내부에서 직접 캡슐을 간편히 조종할 수 있게 하여 구조 가능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럼에도 현대 과학기술로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이런 매커니즘 자체도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인터뷰를 반복할 뿐이었다.

모범버스는 현재 시범운행단계이다. 무인 차로제와 서비스업종의 결합으로 인해 사회의 인프라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버스 노선에 분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인차로제 밖에서 운행되는 일반버스 및 안에서 운행되는 무인 버스를 포함하여 일정 노선에만 승하차가 집중되고 또한 그 시기가 반복돼 배차간격이 형클어지는 현상이 목격됐다.

이 서비스업체는 사용자가 임의의 정류장, 임의의 시간대, 임의의 도착지를 선정하여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택시와 분명히 다른 점은 ‘버스’이기 때문에 운행 중 다른 이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이슈와 추천되는 최단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여 운행해야 하기에 무인차로제 운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운행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추천경로를 실시간으로 지원받아 여러 개의 최적 노선을 감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기사에게 있어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버스 기사를 ‘고속버스 및 일반버스 운행 5년 무사고’한 자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버스 운행이 과연 사업이 될 수 있는지는 관련 데이터를 조금 더 쌓아 보겠다는 것이 모범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의 말이다.

또한 비슷한 예로 모범택시 SR LE(Service Revolution Limited Edition)가 있는데, 인프라의 정착으로 지역 분산화 진행돼 시속 250km~300km로 주행을 해야 하는 모범도로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

사유로는 고속철도나 비행기가 일부 도시에서만 운행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갖은 분기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한 모범주행을 위해선 도로가 최소 3차선으로 편성되어, 150km 이하 구간, 150km ~ 250km, 250km ~ 300km 구간 따위를 도입해야 하는 지경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편도 6차선으로 각각 1, 2, 3차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이러한 도합 왕복 12차선의 도로를 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직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은 국가적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환경 단체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궁극적인 실효성 측면에 의문을 표하면서 현재 이

건을 보류 중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과 서비스업체는 아직 결정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모범주행에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짚어 쿠페, 스포츠카 택시를 발 빠르게 ‘기사서비스’를 상품화하려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또한, 비상탈출매커니즘을 상용화시킬 사업가도 이 모범도로 역시 ‘우선, 도로와 운송수단이 안전한지부터 따져야한다. 백제로(Sixty to Zero: 운송수단이 100km/h에서 정지 상태에 돌입하는 시간)의 개발을 앞당겨야 할 부분이다.’는 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운송수단에 안전 인식 자체가 개선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열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에 큰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한 남성이 노선이 긴 구간에서 승객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대를 노려 방화를 시도해 큰 인명피해를 낳았었다. 그는 경찰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열차의 모든 소재는 불에 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중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사람이다. 정확히는 사람이 입은 옷이다.’

이를 끝으로 그에겐 유례없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로는 정부에선 바쁜 시간대여도 열차는 정원만 탈 수 있도록 통제하였고, 또한 출근 시간대에는 증편하여 더욱더 안전한 운송수단이 되게끔 배치하였다.

부가적으로 열차 곳곳에 암행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시민이 무차별 흉기 난동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영은 9시 뉴스로 한 번씩 미세먼지 폭풍 속에서 어떤 시민이 이런 방식으로 긴급구조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그 뉴스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영이 처음 겪는 덮개 안은 우선 바람 소리가 크게 울렸고 모래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류소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덮개 상단부에는 A4용지 정도 되는 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어 앞을 볼 수가 있었다. 은영은 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려버린 정류소 안은 어느새 모래폭풍으로 뒤덮여버렸다.

구급대원은 구급 승합차의 문을 힘 있게 밀면서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 상단부에 설치된 바람막이가 작동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차량 내부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막긴 했지만, 은영이 그 막이를 직접 통과해 보니 덮개를 쓰고 있어도 머리를 아플 정도로 바람이 세게 때렸다.



“아휴 어찌다. 망송 못 들으셨어요?”

“아뇨, 들었는데……. 버스를 바로 앞에서 놓쳐가지고…….”

“사모님 고생하셨네. 저희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뭐라도…….”

“저희는 사모님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은영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대원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개미 기어 가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모래폭풍 구조차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였다.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구조차가 운행된다면 이미 모래폭풍이 들이닥친 상황일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되지 못했다.

“도착하시면 덮개 빨리 벗으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씻으세요.”

“네.”

아파트 문 앞까지 오니 벌써 4시가 지나고 있었다. 대원은 지하로 내려가 은영을 내려주었다. 덮개는 은영은 손 하나 쓰지도 못한 채 대원이 직접 걷어 올려주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은영은 덮개 속에서 툭 튀어 나갔다. 은영은 곧잘 대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였다.

첫 번째 잔. 황혼. 빨래. 디버그.

집에 도착한 은영은 그대로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레오나가 집기 좋도록 하나씩 꺼내주었다. 우선 급한 계란부터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은영은 식품에 손을 대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은영은 다시 신발장으로 가 먼지떨이개로 야무지게 자신의 몸을 털었다. 이윽고 신발까지 두어 번 바닥에 내려친 후 청소기로 가 자신이 다녔던 곳을 모조리 밀었다. 특히 부엌은 대여섯 번 더 밀었다.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다 놓으니 은영은 자신이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깐 상온에 둔다고 계란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영은 보일러에 물을 데웠고 옷을 하나씩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은영은 머리를 위로 묶었다. 흐르는 물을 등에 직접 닿게 하고 싶었다. 거친 숨을 내쉬는 은영은 눈을 감은 채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였다.

은영의 하얀 속살은 물 온도에 조금씩 붉게 변하고 있었다. 은영은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온도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한동안 따뜻한 물살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은영은 식품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는 식탁에 잘 진열해 둔 뒤 침

대에 그대로 누웠다. 이불을 덮으니 그대로 잠이 쏟아질 듯이 밀려왔다.

폰을 보니 4시 반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해은이도 놀고 오겠다고 하였으니 당분간 집에 올 사람은 없는 것은 맞았다. 은영은 폰을 끄려던 찰나 상단 표시줄에 알람이 하나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벨리의 업데이트 소식이었다.

아무래도 벨루에서 스마트폰까지 서비스하다 보니 이런 빅뉴스는 전부 공유하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정보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한하여 감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미성년자에게서 얻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인공지능 감정도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감정적인 언행과 퍼포먼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영은 그놈의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면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더 폰을 볼 힘이 없었다. 은영은 옆으로 누운 채 자신의 무릎을 안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서늘한 느낌에 은영은 이 한여름에 이불을 어깨까지 덮었다.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난 한 마디가 그 어느 장애물 하나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뭐야…….”

지금쯤이면 모래폭풍이 다 지나갔을 것이지만 은영의 방은 폭풍 때보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지만 은영은 방에서 나갈 용기가 없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에 발걸음이 울렸다. 은영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올수록 더욱 더 무릎을 끌어안았다. 누군가 은영의 방문 앞에 섰다.

‘똑똑.’

“까악!”

은영은 비명을 내지르자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슨 일이야!”

“허, 어……. 여, 여보. 어. 어? 아니야. 그냥… 악몽 꿔. 어, 꿈이 뒤숭숭해가지고 그래.”

“뭘 꿈을 꿔기에 이렇게 식은땀이야.”

민혁은 은영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은영은 아직 민혁에게서 ‘바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직 은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민혁은 불을 키러 문으로 다시 걸어가던 찰나였다. 레오나가 방 앞에까지 왔다. 은영이 무뚝뚝한 레오나의 얼굴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은영 씨? 얘기 가능할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은영은 레오나의 차가운 얼굴에 그대로 흘러버린 듯한 대답을 하였다. 민혁이 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혁은 우선 레오나에게 손짓하였고 레오나는 민혁의 손짓을 데이터화하여 분

석에 성공해 대기 상태로 돌입하였다.

민혁은 은영의 어깨와 볼을 번갈아 가며 어루만지며 다독였다. 은영은 민혁의 그대로 품에 안겼지만 민혁의 어깨 너머로 대기하고 있는 레오나가 보였다.

은영은 레오나와 함께 빨래 바구니로 갔다. 레오나는 은영이 낮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벗었던 속옷과 옷을 하나씩 꺼내어 다른 손으로 옮겼다.

“은영 씨, 해당 빨랫물에서 미세먼지 성분이 다량 검출됩니다. 이러한 빨랫물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이 위생상 적합합니다. 차후에는 제가 또 다른 바구니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 이러한 빨랫물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은영이 잘못된 것은 또 있었나 보다. 은영은 이제 체념한 채로 레오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세제를 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제를 왜 사셨습니까?”

레오나는 늘 이런 말투였다. 은영은 3년째 적응해보려 했지만 유독 오늘이 너무 버겁긴 하였다.

“아니, 이거 내가 써봤잖아. 폰에 찍어봤어. 봐봐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또.”

민혁은 레오나와 은영이 계속 붙어있는 것이 여간 신경 쓰였는지 부엌으로 왔다. 민혁은 은영에게 웃음을 보여주더니 레오나에게 갔다.

“우리 레오나가 또 뭘 잘못을 했어?”

“글쎄, 내가 세제를 괜히 샀다고 하네?”

레오나는 은영이 전해준 폰을 들고 분석에 들어간 것 같았다. 민혁은 퇴근 전 회사 때처럼 분석에 들어간 레오나를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은은 그런 민혁의 옆모습을 보면서 말을 하였다. 민혁이 레오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하였다.

“그건 당신이 잘 못 본 거 아니야? 착각했다던가.”

“여보!”

레오나는 분석을 하다가 프리징에 돌입했다. 민혁은 레오나 뒤로 거친 숨소리를 내쉬는 은영을 본 뒤에야 무언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이 시뻘게진 채 세상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은영이 화가 나면 딱 이 모습이었다. 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아니, 그게.”

“냉장고 봐봐. 보라고. ‘세제’ 쓰여 있잖아, 안 그래? 나, 저렇게 컴퓨터처럼 쓰라고 해도 못 써!”

민혁은 레오나처럼 얼어붙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은영은 아예 멈춘 민혁을 향해 고갯짓으로 냉장고를 가리켰다. 은영의 눈은 고갯짓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민혁은 지금 냉장고를 보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첫 번째 항목에 정확히 ‘세제’라고 프린트되어 있었다.

“뽀뽀해봐! 둘이 뽀뽀해보라고!”

은영은 민혁 뒤통수에다가 나지막하면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버린 채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민혁은 어느새 떨어져버린 은영을 뒤따라갔지만 은영은 이미 방 안으로 도망간 후였다.

“은영야!”

“레오나랑, 살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은영의 울음소리가 폭발하였다. 민혁은 방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잠겨버린 문고리를 부여잡았다. 민혁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얼어붙은 레오나를 본 후에는 더 고개가 돌리지 않았다. 집 안은 온통 은영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영은 간만에 다 시원하게 토해낸 기분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도 방문 앞에 쭈그리고 있을 민혁을 위해 방문에 잠긴 문고리를 풀어주었다.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혁은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은영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있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은영 옆에 앉았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여보는?”

“나야 뭐 똑같지. 그래도 꽤 다닐 만 하다는 거 알잖아. 당신도.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냥 사는 게 힘들어. 그나저나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야.”

“보니까 버그 걸렸네.”

“짜증난다, 진짜. 무슨 세제 하나 때문에 저러냐고. 머리 아프다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도 몰라. 개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디버깅 해봐야겠지 또.”

벨리 버그는 정말 드문 일이다. 하지만 정말 어찌다가 한 번씩 벨리는 버그가 걸린다. 그 길로 벨리 서비스센터에 들고 가면 ‘클래스 함수 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다.’느니, ‘릭이 발생해 다른 메모리를 형클였다.’느니 알 수 없는 말만 들은 채 그대로 벨리를 맡기고 떠나와야 했었다.

벨루에서는 벨리의 프리징이 정말 버그로 판별될 경우 버그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과 철저한 로그 분석으로 버그 걸린 기간까지의 심리적 배상까지는 해준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은영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배상은 실질적으로 힘들다.

버그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벨리는 벨리였다. 벨리는 은영을 사용자 외 인물인 돌발변수로 인지하는 만큼 은영도 벨리의 행위와 말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벨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 맞는 답이라 마음을 파내며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 자신이 마음을 파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은영은 처음에는 벨리의 행위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차이가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다.

하지만 민혁이 볼 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심하지는 않았다. 그저 은영이 그 간극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 스스로 극심한 고통에 잠기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는 은영은 다시 한 번 큰 숨을 내쉬 뒤 민혁의 손을 잡았다. 은영은 펜스레 민혁의 손을 흔들었다. 은영은 처음 민혁의 손을 잡았을 때의 손버릇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은영의 전화기가 울렸다. 은영을 찾는 이가 이 시간에 있을 턱이 없었다. 폰을 보았고 호출은 딸내미 장해은이었다.

“어, 우리 딸. 왜.”

‘어, 나 오늘 빨리 들어가려고. 오늘 미세먼지폭풍 너무 심해가지고, 오염도 너무 심해가지고. 약속 취소됐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해은아, 그럼 그냥 들어오지 그랬어. 왜 전화 해.”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랬잖아.’

은영은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웃었다. 민혁은 옆에서 둘의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 들어와.”

‘뭐야, 데리러 오려는 거 아니었어?’

“빨리 들어와. 발걸음 얼마나 된다고.”

은영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다시 폰이 울리지 않는 걸 보니 해은은 은영의 뜻을 알아먹었나 보다.

“아이고, 정은영 딸내미 하난 잘 키우네.”

“장민혁 씨, 아까 말했잖아. 죽을 거 같다고. 이 몸이 성하지가 않다고요.”

은영은 민혁과 잡은 손을 거칠게 흔들었다.

은영과 민혁은 해은을 데리러 가기로 하였다. 나갈 채비를 하면서 외식 장소를 정했다. 민혁은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참, 벨리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던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시킬 거 아니야.”

“그래. 지금 나가면서 이참에 말길까? 버그도 얘기하고.”

“응, 그래. 버그. 망할 놈의 버그.”

레오나의 다리는 은영이 몸 부분은 민혁이 들었다. 둘은 꺽꺽대며 레오나를 짊어진 채 현관문을 나섰다.

##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버그 휴가, 사계수, 홀로그램 음식점

레오나를 뒷좌석에 눕혀놓은 탓인지 널브러진 팔이 툭툭 은영의 시트를 쳤다. 은영은 못내 거슬렸는지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팔을 올렸다. 하지만 곧 팔이 또 떨어져 은영의 시트를 툭툭 쳤다.

“여보, 이거 앉히면 안 될까?”

“에이, 뭐. 다 왔어. 요 앞이야.”

은영은 정말 하얗게 빛나는 서비스센터 간판이 보였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은영이 시간잡고 걷는다 해도 별로 멀지 않을 거리인 것 같았다.

민혁은 부드럽게 유턴을 하면서 서비스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후진주차를 하고 은영과 민혁은 차에서 내렸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뒷좌석 쪽으로 향했다.

“여보, 벨리 옮기는 거 사람 부르면 안 될까? 무겁잖아.”

“어 맞네. 그러면 되겠네.”

민혁은 서둘러서 매장 문으로 향했다. 은영은 민혁 옆으로 가 팔짱을 껴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내뿜는 화려한 빛들이 민혁과 은영을 감쌌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빛들이 이루는 여러 자연물과 사람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거의 혈뎀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민혁은 더 올려 볼 수가 없었다.

반면에, 은영은 반사적으로 프로젝터 아래에 있는 가격표를 보았다. 가격표의 숫자는 은영이 떠올린 가격표에서 한참 튀어나가 있었다. 은영은 더 내려볼 수가 없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버그가 생긴 것 같아서 프리징걸린 상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여보?”

“그리고 업데이트요.”

“업데이트라면 OS 업데이트 Glass 3.1 버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전에 안내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선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셔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는 안 걸립니다. 다만, 업데이트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업데이트를 마친 벨리 배송은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벨리가 정비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보통 이틀 정도 소요되긴 하죠, 사모님.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몰려서 하루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네요.”

은영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주는 이 직원이 마음에 들었다. 은영에겐 눈치가 꽤 있는 직

원이었다.

“전 차에 있으려고요. 구경할 것이 많긴 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정말이에요. 진짜 좀 피곤해서요.”

“제가 주차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준 뒤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센터 2층으로 올라갔다. 은영은 각종 안내서와 사은품을 받으며 매장을 나갔다.

벨루의 빅데이터 수집은 국가법이 적용되며, 사기업이 악용할 것을 방지하여 철저하게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감시받는다.

특히나 사용자 신체나 성격, 패턴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벨루에서 기존 영입한 철학자들의 의견과 기업 운영 윤리를 고려하며,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 목록을 포함한 법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민혁은 국가와 벨루 간 빅데이터에 대한 협약내용과 인공지능 윤리를 훑어보고 사인을 하였다. 제일 특별한 경우는 민혁의 레오나처럼 벨리 내부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버그를 발생 시킨 경우이다.

해당 이슈가 버그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 민혁은 버그로 인한 보상뿐 아니라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명 ‘버그 휴가’를 받게 된다.

인공지능 버그로 인한 사용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기업은 인정하기에 직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하여 하루나 심하면 사흘 정도의 버그 휴가를 지급한다.

잠시 잠이 난 배달기사가 불려나와 레오나를 센터 2층으로 옮겨다 주었다. 직원은 1차 적으로 간단한 전자파 감지장비로 레오나 이외의 전자 장비를 탐지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외부 손상이나 손상을 가한 흔적,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내부 조작을 하려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다. 벨리가 본격적으로 디버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사전작업을 거치지만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손님, 디버그 프로세스 접수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벨리 이름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될까요?”

“네. 그런데 혹시 손님 벨리 정비기간 동안, 예비 벨리가 필요하실까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형이 기본형이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군데 모두 다 얘기가 되었거든요. 요즘은 소식통이 빨라서 원. 그건 그렇고 전 그냥 하루 정도는 없는 셈치고 지내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민혁과 직원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민혁은 어디론가 실려 가는 레오나를 한 번 돌아보고는 2층을 내려왔다. 매장을 나서기 전 뒷좌석이 비었음에도 앞좌석에 앉아있는 은영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민혁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민혁이 앉아 차가 한 번 크게 흔들거린다. 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 왔어? 어땠어? 괜찮데? 다른 데 더 심한 건 없냐고.”

“어어, 괜찮아.”

“다행이네. 다음번에도 여기 와야겠다. 서비스가 좋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여보, 우리 기분 좋은데 딸이나 꼬셔서 밥 먹으려나 갈까?”

은영은 말없이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민혁은 차 안이 조금 싸늘한 것 같아 히터를 약하게 틀었다. 은영은 창틀에 팔을 얹히고 굽혀진 허리를 조금 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개운하였다.

해은은 미리 얘기했던 대로 학교 앞에서 픽업하였다. 민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조금 나갔다. 회사 사람들이 최근 오픈한 샵샵집을 그렇게 추천한다고 하여 해은은 별수 없이 끌려갔다. 은근히 해은은 마음에 들었다.

맛집이라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매장 밖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그 긴 줄 끝에 섰다. 해은은 민혁을 따라 섰고 은영은 차 앞에서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혹여 새치기당할까 답답한 마음에 은영을 부르려 하였다.

은영은 도리어 민혁과 해은에게 손짓하였다. 해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해은은 줄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은영에게 달려갔다.

“왜.”

“예약했지. 아빠가 하래더라.”

해은은 은영을 끌고 가게 쪽으로 향하려 하였다. 은영은 해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젊은 해은의 힘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민혁에게 손짓하였다. 민혁 뒤로 이미 5팀은 더 섰다. 민혁은 망설이다 끝끝내 줄을 포기하고 은영에게로 걸어갔다.

가게 안은 고기 냄새로 가득하였다. 하루 종일 힘이 없었던 은영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것을 느꼈다. 해은이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해은은 옆구리로 은영을 밀쳤다. 은영과 해은은 서로 웃으며 바라보았다. 해은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매장 디스플레이를 눌렀다.

“어디 방이야?”

“D11. 4인 방이야.”

“어 근데 메뉴는?”

“해은이랑 아빠랑 뭘 좋아하는지 몰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선택하자고.”

“엄마도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엄마!”

은영은 가게 가운데에 크게 자리 잡은 나무 하나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한창 그 나무를 보느라 정신이 팔린 은영을 말리러 온 해은도 같이 나무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남은 민혁이 메뉴를 선택하고 은영과 해은에게로 향했다.

“뭘 그리 보고 있는데?”

“사계수래.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나무.”

“참, 신기하네.”

“그르게, 그런데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으려니 참 힘들기도 하겠지? 보기만 좋으면 되는 걸까나? …… 뭘, 여보는 시켰어?”

“우리 해은이 좋아할 거 같은 걸로 시켰어.”

“잘했어, 여보.”

은영이 선택한 방은 이미 시원하게 냉방이 되어있었다. 심지어 바닥까지 시원해 바로 앉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가게는 열 테이블 정도가 설치된 비교적 대형 음식점이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꽤나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천장에는 홀로그램으로 된 고래와 물고기들 해초들이 살아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바닷소리가 들리게끔 꾸며놓았다.

해은 옆에는 화분이 하나 있었다. 은영이 슬쩍 해은의 옆으로 와 이파리를 건드려보았다. 이파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 모습에 해은은 입이 벌어졌다. 민혁은 그런 해은과 은영의 모습을 폰에 담았다. ‘찰칵’ 소리에 해은과 은영은 카메라 쪽을 보며 다시 활짝 웃었다. 민혁은 이번에 제대로 찍어주었다.

양갈비는 하나씩 나누어 먹었고 나머지 하나는 해은이가 가져갔다. 은영은 나머지 양갈비 하나는 물론이거니와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이킬 수 없었다.

점심도 굶었던 탓인지라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배가 불렀다. 간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허리를 쭉 펴고 머리를 아예 뒤로 젖혀 기지개를 펴보았다. 행복한 신음이 나왔다. 옆자리에 있던 해은이 민망한 나머지 은영의 배를 톡톡 쳤다.

은영은 해은이 만진 배를 스스로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해은을 쳐다보았다. 해은도 팬스레 은영의 배를 내려 보았다.

“잘 났네. 아주 자알 났어.”

은영은 해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민혁은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저녁 메뉴 선택을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맛도 꽤 좋은 편이라 다음번에도 올 수 있으면 오기로 하였다.

“이런 집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은영의 최종 평이었다. 해은도 승낙하는 표정이었다. 민혁은 대성공이었다. 비록 외곽 쪽에 위치하였지만 이런 맛집이라면 역시 언제나 환영이었다.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국지성호우, 인프라넷, 스마트하우스

해은은 조엘을 챙겼고 민혁은 해은을 기다렸다. 은영은 먼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원래 손만 씻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변기에 앉은 은영은 집중을 하였다. 생각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은영의 눈이 조금 찌그러졌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샌가 매장 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 같았다. 조금 괴상한 느낌이 들어 은영은 주머니에 있는 폰으로 손이 갔다.

화장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여유로운 교향곡 같은 것이 들려온다. 은영은 자잘한 소리가 잦아들고 재생되는 새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귀를 기울였다. 은영은 폰으로 가던 손을 멈추고 편하게 집중하였다.

은영이 매장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해은과 민혁을 만났다. 밖을 보니 국지성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은영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매장 입구는 줄을 기다리는 사람과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얹혀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이 차로 향한 사이 은영과 해은은 가게 처마 밑에서 기다렸다. 인도와 주차장까지 합하면 입구에서부터 차까지 거리가 꽤 되었지만 민혁은 그냥 빗속을 뛰어갔다.

“여보! 아유, 내가 못 살아!”

은영은 손으로 비를 막아보았지만, 위낙 퍼붓는 탓에 턱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은영과 해은은 손을 내리고 웅덩이를 최대한 피하며 천천히 차를 향해 쟁걸음으로 뛰었다.

“여보, 괜찮아? 빠진 거 아니지?”

“..... 괜찮아. 난 비가 오면 당신 생각나더라.”

“하, 됐고 집에나 가요. 무슨 말이람 이게.”

은영과 민혁은 투덜대는 해은을 억지로 끌어안고 차에 올라타왔다. 차는 부드럽게 집으로 향했다.

국지성호우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아직 구름은 많이 있었지만 달이 보일 정도로 날이 맑아졌다.

민혁은 짹짹 찬 아파트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 은영과 해은을 먼저 집으로 올려 보냈다. 집에 오자마자 해은은 화장실로 가 옷을 벗었다. 은영은 은영 방으로 가 갈아입을 옷을 챙

겨 민혁 방에 딸린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은영이 맨몸으로 이제 막 화장실을 나오는 참이었다. 민혁은 간만에 본 은영의 맨몸을 보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입을 막았지만, 헛기침이 나왔다. 은영은 수건으로 서둘러 몸을 닦고 속옷부터 간결하게 입었다.

은영은 잠옷을 입고 아직 젖은 머리를 손으로 올려 물방울이 바닥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댔다. 민혁은 은영의 들려진 팔 사이로 저 안속 깊은 곳에 있는 하얀 맨살까지 훤히 볼 수 있었다.

“뭐 해?”

“아니, 나 이제 쓸게.”

“그래.”

은영은 민혁의 얼굴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다. 은영은 민혁의 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눈매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까 사진 찍은 거 단체 방에다 올려줘.”

“알았어.”

민혁은 무력하게 대답하였다.

속이 안 좋아 변기에 앉았지만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민혁이었다. 은영이 잠시 사용한 화장실은 유독 달콤한 향기가 짙게 베인 것 같다. 민혁은 해은과 은영이 고기를 뜯고 있는 사진을 단체 방에다 업로드하였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미성년자는 메신저 및 채팅 서비스하지 못하는 게 맞지만, 미성년자의 직계가족증명 혹은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신저를 활용해 가족 채팅을 할 수 있다.

은영은 머리를 뽕뽕하게 말리고 침대에 앉았다. 폰을 손에 들었고 화면을 켰다.

‘으엑’

해은의 채팅이었다. 은영은 활짝 웃으며 민혁이 올려준 사진 모두를 다운로드하였다. 은영은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 하나하나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았다. 확대하고 줄이기도 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붙여보기도 하였다.

그중에 은영은 하얀 날개가 달린 하트를 선택했다. 갤러리 인공지능이 두 여자의 얼굴 각도를 계산하여 은영이 선택한 스티커와 위치에 적절히 왜곡 효과와 굴절을 넣어 자연스럽게 코 위에 스티커가 없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은영은 해당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배부른 하루가 된 것 같았다.

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열었다. 마우스로 위쪽 끝을 드래그하여 화면 위쪽으로

Glass 창을 옮겼다. 인터넷 패널은 미리 사용자와 약속된 명령으로 인해 창이 전체 확장되어 넓은 화면에 인터넷이 꽉 찼다.

은영은 이어서 서랍에 있는 낡은 성경과 안경을 꺼냈다. 인터넷에 다니는 교회의 페이지를 접속하여 ‘오늘의 수요일예배’를 클릭하였다. 벌써 밤 10시가 되어 이미 정규 예배는 끝이 났지만, 교회 측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놓친 신자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페이지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인프라넷은 이러한 종교 활동, 대학 교육, 방송 및 언론, 문화 활동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현재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영으로 운영되는 서버와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값싸게 자료를 인프라넷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를 확장하여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사건이나 유명한 곡, 세계 스타들의 인터뷰들 따위는 세계인터넷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특히, 문화 활동 같은 경우 보통 인공지능 혹은 아마추어들과 함께 번역이나 자막을 작성하며, 대중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대개 전문 번역가와 함께 문화 활동을 하는 식이다.

은영은 인프라넷을 통해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예배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입술에 힘을 주었다. 해은이 갑자기 불쑥 방에 들어왔다.

“어? 해은아, 왜?”

“어? 아니야. 미안.”

간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은영의 모습을 본 해은은 갑자기 어색해진 탓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했는지 완전히 잊었다. 괜히 눈을 둘 곳이 없던 해은은 잠시 빠르게 은영의 방을 스캔한 뒤 슬쩍 웃으며 은영에게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였다.

은영은 웃으며 해은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잠시 방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해은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은영이 제 때에 예배 영상을 멈추었다.

“아, 아이스크림 먹을 건가 싶어서. 덤잖아.”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아직 괜찮아.”

은영은 간식이라도 먹는 것에는 일절 아끼는 체질이였다. 잠시 머릿속에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떠올랐지만 그냥 해은에게 웃으며 화답해주었다. 해은은 수줍게 웃으며 방문을 닫았다. 은영은 다시 예배에 집중하였다. 현관 쪽에서 해은이 요란스럽게 신발을 갈아신더니 문을 부주의하게 강하게 닫고 나갔다.

은영은 방에서 조용하게 찬송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렸다. 찬송가가 마무리될 무렵 해은이 아이스크림을 은영에게 건넸다. 은영이 생각했던 소프트아이스크림이었다. 은영은 아이스크림의 뚜껑을 열고 한 입 베어 먹으며 놓쳤던 영상을 뒤로 돌렸다.

해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물었다. 해은은 가만히 스마

트하우스에 모두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다.

서비스 시대에 맞춰 집의 형태도 크게 변화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하우스’라는 건물이 등장했으며, 집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격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종이다.

너는 나의 왕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단, 여기서 노예와 왕은 각각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이’, ‘타인의 노동을 지급받는 이’로 구분한다.

원리는 요리가 정말 싫은 가정에게 냉장고관리, 집안청소, 잔반처리, 그릇정리를 제거하기 위해 아예 부엌이란 것이 빠지고 다른 노래방, 영화방이 들어온다.

이렇게 집의 방과 고정적으로 있는 필수 시설에 대한 수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스마트하우스이다.

부엌을 제거한 집은 연결된 상·하수도 시설은 닫는 정도로 해결하며, 완성된 요리는 시켜서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요리들은 대부분 친환경 포장재로 포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부엌 형태만 남게 되고 간단한 간식 정도와 소량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부 가정은 이런 최소한의 부엌형태도 모두 없애버린 곳도 있다.

더불어 배란다를 제거하고 다른 방으로 대체한 집도 있는데 옷의 관리를 전적으로 외부업체에게 맡김으로서, 세탁이나 옷의 전반적인 관리 등을 전부 옷 서비스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최소한의 옷장을 가지게 되고 포장재는 역시 친환경 소재로 되어있다.

옷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주에 한 번 미리 지불한 금액과 성향에 맞춰 트렌드에 맞는 옷이 배달된다. 일부 가정은 아예 최소한의 옷장도 없애고 일일에 한 번 옷을 받는 곳도 생겼다.

이렇듯 서비스 시대에는 집 형태에 대한 재연구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집에선 서비스가 도착하는 방인 ‘사랑방’이 배치되고 있다.

집안청소 같은 경우는 ‘간단청소’ 시 서비스업자는 집안 먼지나 청소기를 한두 번 정도 돌리는 청소가 이루어진다. 또한 범죄발생 대비를 위해 집안 곳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는 인트라넷을 통한 빅데이터단지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후에 청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이 되는데 너무 방이 지저분할 시 ‘간단 청소 불가’ 혹은 더 높은 값을 지불 하는 청소를 선택해야 청소 서비스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사업체의 서비스 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된다.

스마트하우스는 방들의 원활한 수정·관리를 위해 보통 아파트 형태가 아닌 일반 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유가 되는 가정은 아예 자식들 방을 따로 떼어내 대청으로 잇는 방식을 선호한다.

집이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인프라넷이다. 인프라넷 위에 집이 지어지다 보니 굳이 인프라가 공간에 얹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인프라 자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무인차로제 시행으로 매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동으로 무인차로 위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외곽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최소거리가 자동으로 책정되고 가장 가까운 서비스가 전문배달원을 통해 서비스를 집으로 배달받게 된다.

학교와 같은 필수 시설은 미리내고등학교처럼 시대에 맞게끔 외곽으로 빠져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아졌다.

이러한 건물의 등장을 학자들은 ‘노예제도의 완전한 종말’이라 설명한다. 가족이 이렇게 개인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족, 왕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였다. 즉, 가족이 개인화가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귀족은 기본적으로 남이 지어준 밥, 남이 청소해주는 집, 남이 만져준 옷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부릴 줄 안다. 이것은 교육 수준과 더불어 인성교육까지 겸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서비스업에선 각각 사용자의 학력, 신용등급으로 치환된다.

과학과 기술, 지식 등의 공유는 그 특성상 이미 여러 진보를 거두어 노예제도의 탈피를 하였지만, 사회와 법, 생활방식 등의 공유는 그 특성상 노예제도가 뿌리 깊숙이 남아있어 잔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를 학자들은 21세기 초 아파트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파트 문화는 대표적인 노예제도의 잔재로 단지 위치와 평수가 났다는 몇 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내 수십억 하였던 소위 프리미엄 아파트, 럭셔리 고급 주택 대비 지방에 자리 잡은 작은 월세 방과를 비교하자면 가구 배치와 전반적인 방의 형태와 쓰임새가 똑같다는 것이다.

‘누구의 집이 더 비싼가?’와 같은 비교는 사실상 ‘누구의 쇠고랑이 더 빛나는가?’와 같은 그저 노예들끼리의 자랑일 뿐이며, 그 눈을 막고 있는 환상을 벗겨낸 최초의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하우스라는 설명이다.

스마트하우스는 동·서양 몇 안 되는 귀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IT기술과 강력한 보안을 접목해 서비스로 가공이 되면서 방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원하는 것들로만 꾸며지는 자신만의 방을 건설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노예제도 잔재에 저항한 최초의 세대는 이른바 MZ세대, 밀레니얼세대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원시 인터넷 연결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노예와 왕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작은 나만의 방, 공간 개념인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SNS 등을 자신 손으로 직접 운영한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현대 학자들은 과거 밀레니얼세대를 2차 산업시대와 3차 산업시대 중간 어딘가 걸쳐있는 과도기 한복판에 위치한 세대라고 평가한다. 즉, 서비스 시대의 첫 번째 자손인 셈이다.

예배를 끝낸 은영은 에어컨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온몸이 시렸다. 은영은 에어컨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른손으로 아랫배를 어루만져보니 어느새 많이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은 이불을 뭉쳐 배를 덮었다.

은영은 갑자기 또 너무 더워져 에어컨을 틀까 했지만, 그냥 창문을 살짝 열어두기로 하였다. 밤 비 내린 도시의 공기는 초여름이었어도 꽤 식어있었다.

은영은 따뜻해지는 배와 시원해지는 팔다리를 느끼며 오늘 밤 배부르게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기엔 딱 알맞은 온도가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그렇게 잠들었다.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엄마 토스트, 양자역학, 세상의 차원 수

은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전 5시였다. 은영은 억지로 다시 잠에 들어보려 했지만 눈은 다시 감기지 않았다. 아랫배가 조금 아파지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일을 보고 거울 앞에 서니 은영은 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졌다. 바로 세안을 시작했다. 단, 너무 이른 시간인지라 물소리는 최대한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을 다루었다.

머리를 감았고 행여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조차 새 나갈까 은영은 부드럽게 수건으로 머리를 다잡았다.

해은은 은영 방에서 들려오는 헤어드라이기 소리에 잠시 눈을 뜨긴 했지만, 방문 두 개를 건넌 위낙 작은 소리라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아직 5시 반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은영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안경을 썼다. 서랍 속에 있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막간에 처음부터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다. 잊었던,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과 자취들을 담은 자신 손글자들을 쓰다듬어보면서 과거를 음미해보았다. 그렇게 침대에 슬피 누워 하루를 보냈다.

어느새 6시가 되었다. 은영의 기억으로는 이 시간 때에 레오나가 움직여서 집안일을 시작하였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했던 것 같았다.

단순히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옮기는 것을 했을 뿐인데도 간만에 안 쓰던 근육을 쓰



려하니 조금 당기는 것 같았다. 레오나는 이 시간에 빨래에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 등 아침에 큰 소음 없이 할 일들은 거의 다 봐준다.

은영은 그저 어질러진 것만 제자리에 올렸는데도 온몸에 땀이 배고 시간이 20분이 지나가는 중이다. 은영은 정리를 중지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은영은 냉장고에 놓여있는 계란을 꺼내 후라이팬에 풀었다. 은영은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면서 해은과 민혁의 아침 식사는 작은 토스트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해은이 그사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잘 퍼진 계란 위에 빵을 얹었다. 하나씩 구워지는 빵들을 접시에 옮겨 담고 빵에 딸기잼을 발라 계란을 한 장씩 더 겹쳤다. 민혁은 딸기잼뿐만 아니라 해은은 느끼하다고 싫어하는 그 부드러운 버터도 조금 곁들여주었다.

“우리 엄마 요리했다. 대박.”

“여보야, 진짜 맛있네.”

“아침은 든든해야지. 맛은 괜찮아 여보?”

민혁은 대답을 생략하고 토스트를 한입에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계란 한 장을 손으로 집고 적당히 잼을 바른 빵 한 장을 구겨서 또 먹고 있었다.

은영은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민혁에게 지었다. 해은은 우유를 들이킨 후 입 주변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조엘을 부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영은 휴지를 들고 해은을 쫓아갔다.

“해은아 양치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맞네.”

해은은 감미로운 토스트에 항상 챙기던 양치 시간도 잊었다.

해은과 민혁이 떠난 부엌 식탁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은영은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흠뻑리고 간 빵 부스러기들을 한데 모았다. 다시 식탁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그렇게 깨끗이 닦고 보니 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은영 본인의 아침 식사였다. 접시는 아예 비어있었고, 우유도 거의 남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이 고작 3개밖에 남지 않았다. 은영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오늘 또 장을 보기로 생각했다.

계란 하나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금 비쌌지만 시내까지의 버스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편의점 쪽이 더쌌다.

남은 계란을 넓게 펴 빵을 적절히 눌러주었다. 계란이 조금 입혀진 빵 두 개를 뒤집어 또 고르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빵과 계란을 같이 구웠고 적절히 익혀지자 접시에 옮겨 담고 잼과 버터를 발랐다. 은영은 자리를 옮겨 식탁에 앉아 천천히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갔다.

거친 빵과 부드러운 버터 그리고 그 새로 나오는 버터의 기름기가 은영의 입을 가득 메운다. 민혁이 먹은 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다. 은영은 먹는 것을 뒤로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저 시내로 돈을 벌러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밀려오는 미안한 마음에 은영은 더 창밖으로 눈을 돌 수가 없었다. 다시 몸을 돌려 남은 토스트를 먹기로 하였다. 그리고 은영은 계란을 다시 채워 넣기로 하였다.

집을 나서기 전 혹시 몰라 베란다와 민혁의 방을 가보니 은영이 굳이 손댈 것이 없었다. 이것저것을 확인한 은영은 곧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장바구니와 스마트폰을 챙겼다. 그래도 무언가 걱정이 되는지 현관에서 다시 한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은 바로 집 앞이다.

아파트에서 나섰을 때 마른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조금 트인 곳으로 가니 그 바람을 맞았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을 떨기 시작한다.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7시 13분경 모래폭풍 발생!’

긴급문자였다. 모래폭풍이 곧바로 은영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영은 그냥 계란을 사기로 하였다. 폭풍이 한 번 발생하면 언제 걷힐지도 모를 노릇이거니와 은영의 계산으로는 그래도 계란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은영의 확신 없는 계산은 점점 강해지는 마른 바람에 걸음은 어느새 뛰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빠르고 절도 있게 무인 결제기에 계란을 올려놓고 결제 패널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다. 벌써 창밖은 육안으로도 조금씩 그 먼지폭풍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째 오늘따라 유독 결제가 더디게 되는 것 같았다. 결제가 되었다는 인공지능 음성이 결제기에서 흘러나오자마자 은영은 계란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곧바로 집으로 내달렸다.

모래폭풍이 들이닥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황색과 검은색이 섞인 잿빛 하늘로 뒤덮였고 시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지 않은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대며 아파트 현관문이 잡히길 기도하였다.

어느새 아파트 문은 폭풍으로 인해 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황이었다. 은영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이 아파트 주민인 것을 문에게 알려 주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와중에도 그 사이로 모래는 아파트 내부로 밀려 들어왔다. 겨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은영은 모래폭풍 내에서 사망한 이들이 어떠한 것을 겪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힘없이 현관문을 닫은 은영은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영은 다시 일어나 머리부터 탈탈 털기 시작하였고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모래가 묻은 계란 포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선 화장실로 향해 샤워를 시작하였다.

은영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청소기를 돌렸고 계란을 하나씩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내었다. 한숨 돌린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발생한 이번 폭풍은 시내를커녕 바로 앞에 보였던 가로수까지 집어삼키는 폭풍이었다. 은영은 베란다에 선 채로 손톱을 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단면을 보고 있다가 해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통화 연결음만큼 은영의 걱정은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어디니? 괜찮니?”

“여기 학콘테. 괜찮지 당연히.”

“벌써 학교라고?”

“어, 수업 준비 중.”

“아, 그래. 준비 잘하고. 해은아, 거기도 혹시 미세먼지폭풍 가지 않았니?”

“응? …… 아~ 괜찮아. 학교잖아. 엄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응~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해은은 전화를 끊으면서 슬쩍 책상 위에 펼쳐져있는 이중슬롯에 관한 글을 보았다. 역시 아무리 봐도 실험 자체가 그냥 문 열고 닫는 것처럼 생기긴 했다. 막간 쉼터 파트에 ‘불확정성원리’가 나왔기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한 번 복습해볼까 하여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들여다보는 걸로 끝났다.

“오늘 이중슬롯은 꽤 어려울 텐데 질문 있는 사람 없니?”

해은은 질문하기에 앞서 질문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입이 당최 열리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터라 무엇이 본인이 궁금한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사이 왼쪽 구석에 있던 수아가 손을 들었다.

“도끼가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도끼를 삼키는 거 같아요.”

예서의 기가 찬 웃음이 교실을 울렸다. 수아는 예서 쪽을 한 번 돌아보려다 말았다. 선생님은 웃으며 수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물질이 두 개가 된 것이 아니고, 이중슬롯을 열게 되면서 공간이 두 개로 나뉘게 된 것 같아요. 공간이 두 개로 나뉘고 하나의 물질이 두 공간에 걸쳐있는 상황이요.

때문에 한 공간이 두 공간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 마치 물결처럼 하나의 물질이 나뉘어서 관측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관측되겠죠. 나뉘어졌으니까.

더하여 공간이 나뉘는 지점이 딱 가운데가 아니라면 물리량과 공간 위치에 따라 물리량도 달라질 수도 있구요.

정리하자면 물질의 이중성.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은 입자성만 가지고 있는데, 위치 해있는 공간이나 그 물질이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간 역시 파동일 때, 관측이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위치 해있는 공간장보다 약한 공간장을 가지게 될 경우 공간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요. 어쩌면 그 ‘전자’라는 것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의 입자는 공간장을 형성할 테고 입자가 충돌하거나 공간장이 강한 물

질끼리 만날 때, 척력이든 인력이든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물질일수록 차지하는 공간장이 작을 테고, 때문에 공간전이 현상이 아주 작은 물질에서만 일어나고, 큰 물질일수록 공간장이 클 테니 공간전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장은 너무 작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장이 정렬되는 거예요.

즉 관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관찰자가 존재하는 것과 보는 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게다가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면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5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없고. 4차원 공간까지만 이해하면 우주의 질서, 자연현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차원 이상의 물질은 결정될 수 없으니까요. 공간전이. 4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자연현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닐까요?”

“흠, 우리 수아는 이중슬릿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네!”

“선생님도 이런 수업 외적인 질문은 꽤 낯서네? 이러한 생각을 이유라도 따로 있니?”

“불확실성은…… 인간 삶에만 적용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삶은 공학이 아니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관련 자료 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줘도 괜찮을까?”

“네, 좋아요.”

해은은 둘이 알아서 잘 떠드는 와중에 대현의 빈자리 너머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저 먼 도시에는 폭풍이 지나가는 중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뿌연 공기에 아주 위쪽에 하늘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시간대비성능, 희망나눔수급자, 다사랑복지센터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우와 수아는 동시에 교실 문을 나갔다. 해은은 멍하니 대현의 빈자리를 보고 있었다. 민애가 해은의 등짝을 쳤다. 해은은 아무 말도 못 한 채 몸을 비비 꼬았다.

“헤이, MISS HAE EUN? 우리랑 밥 드실?”

예서가 맑아진 하늘과 해은의 움직이지도 않는 뒤통수를 보며 떠올린 생각이었다. 예서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야, 닥쳐.”

앞에 앉아있던 민애가 예서에게 쏘아붙였다. 곧바로 일어서더니 해은 오른팔을 잡고 끌어당겨 일으켰다. 민애는 곧바로 뒷문으로 해은을 끌고 나가버렸다.

“야, 민애. 같이 가.”

“뭐? 민애?”

“민애 언……. 아! 아파. 빨리 가자. 아아!”

예서는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듯 손가락 세 개를 펴보았지만 민애는 그 세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민애는 나머지 손으로 예서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꺾게 하였다.

“진짜 조만간 너 내가 조진다.”

“미안미안. 잘못했어. 우리 그나저나 뭐 먹을래?”

“햄버거 먹자. 해은이는?”

“난 괜찮지. 그런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건데. 왜 맨날 나가서 먹는 거야?”

“응? 그냥. 솔직히…….”

“야야, 민애서 나가서 얘기해. 아직 학교 안이야.”

민애는 곧 한대 칠 기세로 손을 거칠게 들었다. 예서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민애 손으로 걸 눈질을 하면서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민애의 공격을 피했다.

“해은이는 내가 오늘 특별히 사줄게. 너, 끌려 나오는 거잖아. 그치?”

“상관없어. 근데 너희 막, 되게 비싼 거 먹는 줄 알았는데.”

민애는 해은을 슬쩍 보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민애는 잠시 예서를 부여잡고 접힌 신발을 고쳐 신었다. 셋은 학교를 나왔다.

“해은 언냐. ‘시성비’라고 알아,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 언냐가 뭐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먹으려면 적어도 여기서 못 먹잖아? 그럼 시간을 써야겠네? 그러긴 싫거든?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먹는 거야.”

“그래? 시성비라고? 좋은 말이네.”

“그리구 나와서 먹는 이유는 분위기는 있어야 소화가 잘 되더라고. 민애 언냐도 그래.”

“너는…….”

민애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마침 신호가 풀려 그냥 민애는 하려던 말을 묻어버렸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셋은 메뉴를 고르려고 하였다. 하지만 좀처럼 정하지 못하는 해은과 예서를 보고 민애는 그냥 불고기 버거 세트 3개를 주문하였다.

“아, 아니요. 하나 취소해 주시고 저, 치킨 버거 세트로요.”

“해은이는?”

“난, 난 그냥 먹을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해은이 알고 보니 모두 민애가 사는 것이었다. 민애는 핸드폰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해은은 난생 처음 보는 검은색 카드였다.

“민애야, 설마 이게 그 ‘블랙 카드’라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건 검은색 디자인인 거야. 뭐, 그런 급은 아니야. 애초에 나이도 안 되잖아.”

“그래도 카드를 쓰네. 나는 그냥 은행에 연결된 폰 쓰는데. 강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더라도 하면 이미 난리난 거라고 생각하려고.”

“이 언니는 돈에 별 생각이 없구만.”

“돈이 복잡하잖아. ‘우리’가 문제 있는데 ‘나’라고 별수 있겠어? 그냥 대충 맡기려고. 나중에 목돈이나 되면 좋겠지 뭐. 게다가 십사일반이라고. 내겐 십일조 같은 것도 감사헌금이야. 왜냐면 돈을 벌고 어디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내겐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도약 계좌?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 도약해서 그런 계좌 의미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그럼 좋긴 하긴 한데……. 그……. 난,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아직도 체크카드거든. 쓰는 맛이 있어서.

이것도 일종에 돈을 쓴다는 걸 몸이 익히는 거지. 솔직히 엄마는 현금 쓰라는데 나는 거기까진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타협 본 게 카드야. 체크카드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더라고.”

매장 창문 쪽에 자리를 앉은 셋이었다. 해은은 앉아마자 학교 쪽을 보았다. 민애와 예서도 말없이 해은을 따라보았다. 조금 여유가 되자 해은은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났다.

“대현이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야 해, 해은아.”

“……. 그냥. 마음이 그러네. 일단, 보내긴 했어.”

“오, 잘했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래.”

예서는 오른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해은은 꽤나 뜬금없이 입을 열었다.

“그 현석이 때문에. 서현석. 뭐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왼쪽 뒤편에 있잖아. 항상 늘 왼쪽이 꽤나 찝찝하던 말이야.”

“오~ 뭘 일이라? 관심 있는 거야?”

“야, 민애서 닥쳐봐. 나도 개 존나 거슬리거든 사실. 개 지금 교실에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뭐 할 거 같아?”

민애는 정확했다. 해은의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고1짜리 서현석은 제일 뒷자리에 있는 주제에 판짓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 어제는 뜬금포로 쪽지 시험 1등을 거머쥐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생각 자체를 하고 싶다는 가진 적이 없던 터라 반에서 유일하게 가장 적은 정보를 가졌다. 심지어 벨리도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 하였다.

벨리 없이 1등을 한다는 것은 벨리를 가진 자 입장에서는 일종에 약간 선을 넘는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어제 일로 인해 현석이 다른 의미로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 사이 햄버거가 나와서 바깥쪽에 앉아있던 해은이 햄버거를 가지러 갔었다. 예서는 저 먼 하늘을 흘겨보더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민애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서가 감자튀김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말을 꺼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름끼친다.”

“뭐가.”

“서현석. 개 교실에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이제야 소름이 끼치네.”

“아무리 그래도 ‘소름이 끼친다.’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장해은. 너 서현석 조사는 해봤어? 우린 다 해봤거든. 우리 반 교실 애들. 선생님까지. 개 회수자야.”

희망나눔수급자. 대다수는 보통 줄여서 ‘회수자’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몇 몇 이들은 답살 돌아서 꽤 꺼리는 편이지만 예서는 그런 그냥 그런 감정을 무시하고 대놓고 말하는 편이다.

“개 뭐 학교 밖에서 병신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좀 말을 많이 안 해보긴 했지만.”

“다사랑복지센터. 우리 해은이가 이걸 모르진 않겠지? 회원이야, 서현석.”

‘다사랑복지센터’는 회수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반정부단체로 노선을 바꾼 단체 중 하나였다. 최근 동향은 집회 내용이 너무 사회에 공격적이라 회원이었던 회수자들도 탈퇴하고 다른 단체를 알아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꺼리는 곳이다.

“이 언니 표정 봐봐. 전혀 모르는 거 같지? 아무것도.”

“증거는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맞아? 굳이 그렇게 막 ‘조사’를 해야 하나는 거지.”

“어, 좋은 자세야.”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개 교실에서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 혼. 자. 서.”

“근데 사실 그것도 알아야 해. 대현이랑 수아도 회수자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민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햄버거를 먹으며 예서의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어쩌면 대현의 전학은 이미 이 둘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정된 일이었다. 정부에서 돈을 받긴 하지만 마땅한 주거 구역이 없는 곳을 복지센터가 마련해 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현이 가입한 복지센터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센터 측에서 사업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 시킨 것이다.

해은은 민애가 이렇게 자신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해은은 일단 이 햄버거가 맛이 없어졌다. 민애는 식어가는 해은의 햄버거를 보았다. 민애가 입을 열었다.

“됐고, 이제 네 차례야. 뭐 좀 얘기해 봐.”

“.....”

“언니, 괜찮아? 무슨 문제 있어?”

해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한설, 스포일러, 무차별 · 집약적 편리함, WITH ♥ ARI

“GOOD BYE, SAYONARA, CHAI CHIEN. 그런데 대현 오빠는 언니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언니만큼은 따로 불러내서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겠지?”

해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애는 차마 그 눈을 더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가 팬스레 매장 안을 보았다. 예서는 해은의 그 눈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해은은 걸려있던 눈물을 직접 손으로 훔어내고 다시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아니. 아주,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네.”

“WOW, 언니 쯔 무섭다잉.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었구나”

“역시 조용한 사람이 무섭긴 해.”

해은은 감자를 한입 물며 입을 열었다.

“재미없어서. 이젠 글 쓰는 것도 재미없어질라 그러네.”

“진짜야?”

“아니, 글은 못 버려. 실은 버렸는데, 언제부턴가 또 글을 쓰고 있더라고.”

“뭐, 그런 게 있지. 게임도 그런 게 있는데 뭘.”

“좋네. 해은아, 이렇게 된 거 우리 벨리 이름이나 나누자. 애들도 몇 명 없는데, 예나. 내 벨리 이름이야.”

예서가 민애를 노려보며 입맛을 다셨다. 민애는 햄버거를 들어 한입 베어 먹었다. 민애 옆에 잠자코 따라다녔던 예나가 조금 웃었다.

“그래 뭐, 좋아. 내 벨리 이름은 ‘하나’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언니랑 맞춘 건 아니야.”

예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애가 입을 열었다.

“뭐 해? 설마 내가 사는 건데 안 먹는 거야, 해은아? 너 벨리이름.”

해은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간 ‘조엘’이란 벨리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래



서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늘 옛날부터 쓰던 소설에 꼭 등장하던 그 이름을 해은의 파트너로 임명하였다.

“내 벨리 이름은…… 한설이야.”

민애와 예서는 끄덕였다. 하지만 해은의 벨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해은을 쳐다보았다.

“그렇지? 넌 머리도 좋고, 차갑고, 도도한 여자지만, 그래도 정이 좀 많은 녀석이잖아. 그래서 내가 소설에도 넣기도 하고.”

“해, 해은아.”

“언니 무슨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아, 벨리 업데이트를 좀 많이 미뤘더니 이러한 일이 많아. 한번 재설정을 해야할 것 같아. 그렇지 한설아?”

해은은 재설정에 돌입한 한설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이제 조엘의 데이터는 모두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니 요즘 뭐, 고민 없어?”

“많지. 왜 없겠어. 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늘 도전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나 요즘 글 좀 새로 써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쉬운 글. 말 그대로 대중적인 글. 학원 있으면 한번 다녀보려고. 너무 내가 내 글만 고집하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싫어. 아까 쓸어버리고 싶다는 거. 그거 내 얘기야 사실.”

“아, 언니 스스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구나. 좋은 시도네. 고민 많이 되긴 하겠다. 대중적인 픽이라고? 그런 걸 쓰려면 진짜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해은이가 아예 변한 거 같아. 왜냐면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 난.”

“그런데 언니 요즘 뭘 쓰고 싶은데?”

“마법소녀소설. 웬 삼십 대 아줌마가……. 악! 아니야. 이젠 스포 안 할 거야. 지금 꺼 까지만 스포하고 다음 꺼는 스포 안 함. 스포하면 읽는 사람이 재미없을 거 같아.”

“앵? 그럼 여태 스포하고 다녔어? 작가가? 본인 이야기를?”

“어. 지금 연재 중인 것도 맨 마지막 대사를 글 소개말에 적어놨지, 즉, 결말까지 다 적어야 연재를 시작했었지. 원래 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썼었어. 하지만 이젠 싫네. 머리 아파. 그것도 딱 여기까지만,”

예서는 그럼에도 해은의 옛 모습과 사상 같은 것들에 예게 관심이 있었다.

“언니는 그럼 여태 무슨 글을 썼었어?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어찌됐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언니의 옛 모습이란 거잖아. 언니의 역사.”

해은은 감자를 하나 들고 가만히 보다 케찹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다. 해은의 눈은 아직 남은 감자튀김들을 보고 있다.

“그러네. 어쩌면 내가 겪은 역사를 소설로 적는 것 같네.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다룬 소재는 ‘무차별 편리함’, ‘집약적 편리함’이야.

우선 무차별 편리함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사회가 감당치 못한 범죄나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약적 편리함으로 인해 해당 기술이 진짜 필요한 이에게 가지 못하는 점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두 개의 부작용이 만나면 과연 그걸 그 어떤 사회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지. 그 택배도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한바탕 난리가 나잖아.”

“아……. 그렇구나.”

“됐어, 그런 이야기를 썼어.”

“되게 뭔가 한탄하는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야. 그릇이 다 담질 못하고 흘러넘치는 거지. 어떻게든 지금에서야 수습이라도 해보는 거고.”

“그래도 괜찮아. 막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

해은은 슬며시 웃었다. 몇 입 남지 않은 햄버거를 마저 먹기 시작했다.

“죄와 벌. 그 책이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죄와 벌’은 존재하니까. 근데 각을 보니까 그 ‘벌’을 못 줄 것 같다. 서로 무기들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아무튼 그런 고민들, 사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만의 소설, 환상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재밌는 걸 하나 또 생각했어. 바로 ‘아리랑’이야.”

“아리랑?”

해은은 고개를 들어 콜라의 얼음과 함께 마셨다. 얼음을 부셔먹으니 머리가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WITH ♥ ARI, WITH ♠ SRI. 아리랑, 스리랑. 어때? 맨날 ARIRANG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쓰길래 나만의 해석을 해봤지.”

“또 뭘 소리를 하고 싶어서.”

“아리. 여러 콘텐츠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 여자를 상징하더라고. 아리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빨간 립스틱을 한 채로. 옷도 붉은 계열로다가. 그런데 그 반대편은 잘 안 그려졌어. 분명 반대편은 남성쪽 일 건데, 고민했었지.”

“나름 짱돌을 굴러봤네.”

“그런데 그 답을 난 태극기에서 찾아본 거야.”

“태극기? 웬 갑자기 대뜸?”

“태극기에 빨간색과 푸른색이 있잖아. 난 이 점을 아리랑과 스리랑에 대입해 보았지. 강내 마음대로.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6과 9의 만남이야. 태극기를 90도로 회전시켜 봐. 6에 파란색, 9에 빨간색이 있어. 거기에 9만 뺏아서 양쪽으로 대칭해 놓으면, 하트가 완성되지.”

“그럼 6을 대칭해 놓으면, 그래서 스페이드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9를 하나 더 놓는 거야. 그럼 999가 완성되지.”

“왜 999야? 의미가 있어? 아, 666은 의미 있잖아. 악마의 숫자. 난 잘 알지.”

해은은 예서의 말을 듣고 머리가 아찔하게 아파졌다. 이걸 얼마나 설명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악마의 숫자는 있는데, 천사의 숫자는 몇 번이야? 난 질려. 666. 하다못해 벨리가 666이다, 데이터베이스센터가 666이다 하는데, 진짜 다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다. 나 혼자 몰래카메라 찍는 거 같아.”

“참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설명해 봐.”

“그야 당연히 그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기도할 거 아니야. 거기 교회란 곳 가보니까, 거의 외듯이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 그럼, 그 일이 일어나겠지. 왜 666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중들 자극적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정도로만 생각해. 에이, 설마 진짜 외우기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야. 다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겠지.”

“잠깐, 거의 외듯이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게 말세에 일어난다니?”

“진리라고 믿는 게 있거든. 거기 안에 이미 정해서 외우는 기도가 있어. 그걸 믿으면, 666을 믿을 일이 없겠지? 아마도. 설마, 그 진리의 책 밖에 있는 이야기에서 뭐 하나 읊으면 막 따라오겠어? 진리가 바로 코 앞에 있는데, 내가 ‘999는 아리님이시다.’ 하면 막 난 교주가 되는 거야?”

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민애가 입을 열었다.

“근데, 네가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

“그치, 충분히 몇은 그 자리에서 ‘해은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남을 텐데?”

“아, 몰라. 이것도 틀리다면 틀리라 그래! 내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 하겠다. 어쨌든 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666과 999는 스리와 아리의 각성 상태를 상징하는 수로 그럴 테니까. 그리고 아리와 스리의 합체 상태, 아리슬.”

민애가 얼음이 든 콜라를 한동안 쪽쪽 빨다가 입을 열었다.

“야, 그 자연재해를 갔다가 그렇게 쓰면, 누가 좋아하겠냐.”

“아이, 각성상태가 안되면 되지. 또 자극적인 것만 들네. 난 태극기에서 뺏아낸…….”

“국뽕이 한 사발 넘치네? 태극기랑 아리랑으로 666과 999를 탄생시켰다. 카.”

“아니, 민애야. 무슨 ‘카’야. 아, 몰라. 아무튼 난 지금 아리랑 스리랑의 6, 9밖에 몰라. 지금 내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예서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말세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입꼬리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해은 너머로 창밖을 천천히 보았다.

“아!”

예서는 짧게 말을 내뱉은 뒤 얼마 남지 않은 햄버거를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창밖은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예서와 민애 그리고 해은은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해은은 아침처럼 또 달릴 생각을 하니 아직 입안에 남은 햄버거 때문에 달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해은은 출발하기 직전 다시 돌아와 콜라를 들이켰다.

아직 남아있는 강한 탄산이 머리를 찢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달렸다. 조엘이 너무 느린 것 같아 아예 그냥 안고 내달렸다.

“날씨 왜 이러냐. 이것도 미친 짓이야!”

“아니! 미친 날씨라고 완전!”

“야, 민애서. 넌 닥치라고!”

창밖에 있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바람 속에 자그마한 검은 가루들이 보였다. 곧 황색과 검은색의 짙은 먼지가 창밖을 가득 메웠지만 셋은 벌써 학교에 도착한 것 같았다.

두 번째 잔. 육백육십육. 냄새와 향기, 인공신경망, 공감공학, 가상과 환상

해은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유심히 보고 있다. 바람을 꽤 맞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묻었다면 묻었겠지만 다행히 육안으로 보이는 모래덩어리들은 없었다. 해은은 머리를 더 자세히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찝찝한 것이 있었다. 해은은 머리에 실오라기보다 더 작은 무언가 발견하고는 손을 대 보았다. 해은은 딱 진 머리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손가락을 머리에서 떼긴 했지만 머리가 완전히 형클어지고 말았다. 해은은 한숨을 쉬고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해은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화장실을 나가다 민애와 예서와 마주쳤다. 민애 손에는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있었다. 민애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만 해은과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해은에게 더 보여주었다.

해은은 화장품과 입고리가 슬슬 올라가는 민애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예서가 코웃음을 슬쩍 내고 둘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반대편에서 수아를 볼 수 있었다. 앞자리에 있는 수아는 꼭 앞문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눈을 둘 때가 마땅히 없던 수아와 해은은 각각 교실 앞문과 뒷문 다다랐다.

수아는 본체도 안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은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현석이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해은은 서둘러 오른쪽으로 비켜주었지만 현석도 같은 쪽으로 길을 비키는 바람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해은은 다시 왼쪽으로 비켜주려던 찰나였다.

“해은 누나,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석이 나지막하게 해은에게 말을 걸었다. 해은은 평소 같으면 현석이의 말을 들어주었겠지만 아무래도 민애와 예서의 점심 때 대화가 아직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나머지 현석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겁이 났다.

“어? 내가…… 왜?”

“잠깐이면 괜찮아요.”

해은은 팬스레 주머니에 손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아직 10분 정도가 남긴 했지만 해은이 찾던 것은 제발 그 10분이 더 빠르게 지나가길 바랐던 것이다.

수아는 뒷문 앞에서 현석이에 막혀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있는 해은이를 돌아보고 있다가 결국 어디론가 따라가는 모습에 몸을 일으켰다. 수아는 해은이를 몰래 따라가 보려 앞문으로 나갔다.

다행히 현석은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중간에서 멈춘 현석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보았다. 사람은커녕 발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해은은 인상이 찌그러지다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인상이 다시 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누나 저 그게…….”

“현석아 괜찮으면 좀 이따 청소시간 끝나고 누나랑 산책 한번 할래? 지금은 쉬는 시간도 얼마 없고 날씨도 안 좋아. 현석이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때?”

“아, 그래요.”

해은은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뒷자리에 있는 현석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 꽤나 마음에 걸렸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해은은 슬쩍 따라온 수아까지 생각하려니 도통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석이가 들어왔다. 현석이가 자리로 가는 동안 해은은 등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현석이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고 앉는 소리가 났음에도 해은은 이제 현석 쪽을 볼 수가 없었다. 해은은 대현에 자리였던 곳을 지나 창문으로 갔다.

“해은, 무슨 일이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창문 좀 열까하고요. 보니까 폭풍도 이제 없고 산발적인 거라 먼지농도도 높지 않네요.”

“어, 그러자. 애들아 환기 좀 하자. 에어컨 끄고. 해은이 말대로 공기가 좀 탁하긴 하네.”

해은은 창문을 열 때 바로 옆에 현석에게서 익숙한 비누향이 풍기는 걸 보아 화장실을 다

너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꽤 비릿한 냄새가 났었다.

해은은 각오하고 현석이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을 보고 있었다. 과연 정말 책을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은이가 보기에는 현석의 머리는 현재 해은의 푸석한 머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딱이 진 상태였다.

정말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다. 제자리로 돌아온 해은은 펜스레 교복치마를 최대한 아래로 당겨 고쳐 앉았다. 해은은 그제서 점심에 예서가 했던 ‘소름이 끼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청소시간이 끝나고 해은은 현석에게 손짓을 했다. 현석은 밝은 표정으로 해은과 같이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운동장이 다 보이는 그늘에 앉았다. 현석이 해은을 위해 음료수 하나를 사왔다. 청소시간은 청소만 빨리 끝낸다면 어느 정도 산책할 시간 여유가 된다.

“왜 현석이 끼는 없어? 누나가 사줄게.”

“아, 아니. .... 감사합니다.”

현석은 받자마자 벌컥벌컥 음료를 들이켰다. 해은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앉았던 그늘진 자리로 향했다.

“현석이는 누나 왜 불렀어?”

“아..... 누나, 너무 예, 예쁜 것 같아서요.”

“.....”

해은은 정말 어이가 없으면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해은은 현기증나는 머리를 어떻게든 쥐어짜냈다.

“아, 아..... 그 현석이 코딩 공부 잘 되가? 요번에 1등 했잖아. 누나 솔직히 놀랐어. 누나도 코딩 공부 좀 해봤거든. 어렵던데, 어떻게 잘하게 된 비결이라도 있어?”

“글쎄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해했거든요.”

“어, 어. 예,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아! 누나 노트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응?”

해은은 노트를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현석이 말한 노트가 해은이 늘 들고 다니던 태블릿이란 것을 알았다. 해은은 조금 망설이며 태블릿을 내어주었다. 현석은 해은에게 한번 웃음을 보여준 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C:\Users\BlackStone\BlackDrive\Pictures\민애누나사진’

“중간에 'BlackStone'은 뭐야?”

“BlackStone은 제 이름이에요. 현석. 아무튼 이 문장은 인공지능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문장은 인공지능망이라고 생각해요.”

해은은 기가 찬 현석의 말에 시계를 잠시 보았다. 뭐, 어느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볼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니까. ‘W’을 시냅스라고 보고 중간에 있는 폴더들을 뉴런이라고 보는 거죠.”

“아…… 시냅스랑 뉴런…….”

“알죠? 시험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랑 기계랑 비슷하죠.

저는 어차피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식이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감공학’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는 대화 주제나 현 세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미리 학습하여 나만의 다음 양의 값(해결책)을 취하는 것. 양의 값을 취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이들을 만날 시점이라면 공공장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공공장소는 양의 값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끝으로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그 다음 수까지 예측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의 '확인(Check)'이 끝났다.

이 경우라면 어차피 사람 한 명은 다른 대화주제엔 관심이 없을 것이니까 다른 영역의 양의 값이 어떻든 거론만 안하면 사람 하나를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방법대로라면 어떤 활용 분야, 예를 들면 게임 하나 잘하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 녀석을 손톱만한 칩으로 만든 뒤 1024개, 4096개를 병렬로 이어붙이면 공감 공학의 완성이라고 봐요.

즉, 총 4096개의 확인절차가 끝난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감을 하는 로봇을 소울메이트가 아닌 체크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메이트란 것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 그 ‘안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겠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미 로봇이 알고 있으니 그게 곧 공감이라는 거네.”

“맞아요! 하지만 실제 인간은 처음엔 공감이 일어나긴 정말 쉽지 않지만 한 번 공감이 되기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마치 탱크에 시동이 걸리지 않다가 한순간 걸리면 끝도 없이 연료가 다 닳을 때까지 작동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벨리랑 다르긴 하죠. 벨리는 맨날 찾아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해도, 결국 공학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공학적인 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말이에요.”

해은은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 그저 웃으며 옆에 서있는 한설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한설보다도 못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 공감이라 하니까 나도 참 막막하긴 하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말이야. 어떤 이야기를 쓸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지. 그러다 결국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만.

마음 같아선 나도 그냥 소설 쓰는 인공지능 사서 돈 벌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러면 소설을 쓰고 싶은데 연필조차 들지 못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계를 뺏는 게 되겠지. 그들에게 인공지능 연산과 데이터, 자원들이 투입되어야겠지.”

해은은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현석은 바로 말을 이었다.

“누나, 그래도 소설을 그 정도 수준으로 쓰려면 자의식을 구현해야 할 것 같아요.”

“하, 이번엔 뭐야. ‘자의식공학’인 거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감 부분을 시간 순으로 또 병렬해서 누적시키면 자의식이 탄생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의식이 구현된다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소생’의 영역일 뿐이죠. 전 별로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냥 ‘쌍둥이’일 테니까요.”

“쌍둥이? 뭐, 인조인간이야? 생물학적인 인간복제 말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C:WUsersWBlackStoneW’으로 시작하는 걸 제가 왜 신경회로 같다고 했겠어요. 저 파일 쪽 따라가서 있는 것이 결국 기억은 같죠. 하지만,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른 판단을 내리잖아요.

여기서 어쩌면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 ‘생각을 당하는 것을 구현한다.’ 하지만 윤리를 어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뇌파도 가로채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당장도 사람 해킹이 가능하긴 하죠. 그걸 막는 것은 윤리죠, 양심이고, 뭐.”

“나도 동의해. 하지만, 윤리랑 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겠지. 관련법이 필요할 거 같아. 죄만 있으면 벌을 줄 수 없어. 그 ‘벌’이란 것도 결국 설계해야하는 거야.”

“전 그 창의적인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들이 막 사회에서 미친 듯이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회에서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거로 보여요. 그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이라 못 잡는 거죠.”

“그런데 현석아, 이제 그만 얘기해야할 것 같아. 그래도 충분히 현석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누나랑 얘기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코딩과 소설은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그렇지. 엉덩이 쓰는 건 똑같지 뭐. 그런데 앞으로 번역 일이나 해볼까도 생각해. 그 컴퓨터 언어 말이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거요?”

“그, 가상 이란 것. 그러니까 환상을 구현했다는 말이잖아. 하지만, 다 컴퓨터 자원 쓰는 건데. 화면 보고 가상세계에 들어갔다고 그게 가상기계가 되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따지면 소설은? 소설도 글자보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

솔직히 가상현실이 아니라 비합성증강현실 쪽이 그나마 더 맞지 않을까? 그래 뭐, 엄연히 맞지는 않겠지.

단, 이렇게 구분하면 합성증강 현실 쪽이 현실의 빛과 기기의 빛을 합성시킨 거고 비합성 쪽은 오로지 기기의 빛만으로 현실을 꾸미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간단히 구분 가능하겠네. 확실한 건 가상은 아니야. 전기 가져다 쓰고 모니터 들이대고 있는 마당에 무슨 가상이야.



하, 가상함수는 무슨, 나중에 상속한 애가 덮어쓴다며, 코드영역 어딘가에 함수가 저장된다는 말이고 실존하는 녀석이네. 그럼 상속대기함수정도겠지.

가상디바이스? 기기 안에 모바일이든 PC든 기기를 구현한 거네? 그럼 이너디바이스 정도 일 거 같고.

가상화폐? 다 전기 회로에 저장해두는 거 알잖아? 전기 먹고 유지비 들어가는 애야. 현존하는 애라고. 가상이 아니야. 그럼 전자화폐겠지 뭐. 대신 기존 전자화폐랑 구분은 해야 하니까 상업전자화폐 정도.

아무튼 다 맘에 안 들어. 그 가상이란 거 싹 다.”

“……. 누나 화난 거 아니죠?”

“어? 그렇게 보이니? 내가 좀 흥분했나 보구나. 이젠 정말 돌아갈 시간인가 보다. 가자.”

기억에 남지 않은 말을 남긴 해은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착석했다. 현석은 잠시 교문 앞에서 멈췄다가 잠시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가 대뜸 일어나 교실을 나갔다. 수아가 화장실로 가는 현석의 어깨를 쳤다.

“야, 왜 이리 늦었어. 그, 그, 아, 아까 선생님께서 물었어. 너 청소 그…… 잘 안됐다고. 팬찮아, 내가 대신했어.”

“고마워. 해은 누나랑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그냥 뭐 잘 지내냐. 코딩 잘 쓰는 거 부럽다. 나도 소설 잘 쓰고 싶다.”

“……. 그게 다야?”

“어, 다야.”

“왜? 너 거짓말 안 하잖아.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어.”

“근데 왜 그게 다야?”

“아…… 몰라. 그런데 수아야, 나 오줌 싸고 싶은데.”

“어? 어.”

불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현석을 보고는 수아는 잠시 남자화장실 앞에서 얼어붙어버렸다.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수아는 금방 정신을 차린 채 다시 교실로 향했다.

“오늘 청소가 잘 돼서 오후 수업은 이제 하교하도록 하자. 집에 들어가서 꼭 씻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니?”

예서가 손을 들었다. 민애가 눈을 부라린 채 예서 쪽을 보려하였다.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 됐잖니. 비가 한 번 오긴 했지만 대기 질이 영 안 좋은 것 같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꼭 씻도록 해라.”

교실은 ‘네.’ 소리로 합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예서는 이 낯선 하교 시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창세기 1장, 외계지적생명체, 기계근로자

민혁은 자리에 앉아 폰 화면을 보았다. 다정히 고기를 익히고 있는 해은과 은영이 보였다. 민혁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은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다.

민혁은 늘 이런 비슷한 자리가 시작되기 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편이다. 그리고 드디어 김인아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민혁은 손수 일어서서 인아를 맞았다.

“인아 씨, 잘 지냈어요?”

“팀장님 휴가신데 죄송해요. 귀한 시간 감사드려요.”

“괜찮아요. 어떤 것 드시고 싶으세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고것만요.”

“알겠어요.”

민혁은 잠시 폰을 들여다보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순식간에 주문하였다. 인아는 그 사이 성경을 꺼냈다. 민혁은 인아의 묵직한 성경을 보고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선배님께서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드려요. 그런데 성경공부를 주선하시는데 성경에 관한 제 생각을 조금 꺼내 봐도 괜찮을까요? 인아 씨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물론이죠. 말씀만 하세요.”

잠시 후, 점원이 아메리카노 두 잔을 가져왔다. 민혁은 잠시 허리를 펴고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들이켰다. 인아는 민혁의 움직이는 목젢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사실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물음이 커요. 신뢰를 해야 하는 문서인지부터 해서 말이죠.”

“주님의 은사 아래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드려요. 특히, ‘창세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민혁은 잠시 아메리카노로 목을 적셨다.

“창세기 앞쪽에 보면 7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순서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셋째 날과 넷째 날 말이에요. 세 번째 날에 땅, 바다, 식물과 열매를,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어있어요. 상식적으로 식물이 해와 달보다 먼저 생성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것에는 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전 과학적 사실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릴까요?”

민혁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인아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잠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잠시 인아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었다. 매장이 조금 추운 것만 같았다.

“우리 인류는 농경생활을 청동기시대부터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죠?”

“네, 알죠. 학교시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제가 품은 성경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의 순서가 틀린 것을 쓰는 이도 알고 있었겠다.’라는 점이죠.”

인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알 수 없는 민혁의 침묵에 잠시 민혁의 눈을 보았다. 민혁이 인아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인아는 눈이 동그해진 채 민혁의 다음 말을 막지 못했다.

“문명의 발전과 이 성경 구절을 맞대보면 이 글이 쓰여 지고 또 이렇게까지 문장 구성력을 갖추는 데, 식물과 해 그리고 달의 상관관계를 모를 문명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 ‘모세’라는 선지자는 당시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게다가 ‘선지자’라는 위치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요. 적어도 사리판단을 넘어서 ‘남’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 자겠죠.

즉, ‘그 시대 사람들도 해와 달, 별부터 떠있는 뒤에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며, 열매를 맺는 식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지자라는 이가 들고 온 복음서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초장부터 잘못 된 것인데, 이게 과연 전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

인아는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다 쇠덩이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인아는 그 채로 얼어붙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땅과 바다가 ‘마그마 바다’와 같은 아주 온도가 높은 행성 초창기의 바다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물질과 물질의 조화.

이곳에서 언급하는 ‘식물’은 거진 모든 자연물이나 합성물을 넘어 모든 현상에서 관측되는 뿌리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설계. 그것을 지칭하는 건 물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소한 그 형태를 디자인 한 것이다. 혹은, 태양계를 지칭한 것이다. 태양과 주위를 따르는 행성도 식물형태니까요. 이후 비로소 네 번째 날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정의할 수 있는 지구가 형성된 것이다.”

“민혁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자칫 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이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성경은 아무래도 과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은유적 비유와 직접적 비유가 공존하는데, 전 이 부분을 은유적 비유로 풀어본 것이죠. 하지만 쓴 이는 직접적 비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하죠.”

인아는 잠시 아메리카노를 입에 한 가득 머금고 꿀꺽 삼켰다.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졌다. 이윽고 인아는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민혁이 보기엔 인아가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민혁도 궁금증이 일어나는 구절이 몇몇 개 더 있었지만, 풀지는 얹기로 하였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외계인이 정말 존재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추론의 끝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외계생명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중 외계지적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인간과 닮을 확률이 얼마일까?”

“.....”

“염기서열에 대해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염기서열을 통해 단백질의 결정을 하거든요. 즉, 방금 언급한 질문을 다시 바꿔 말하면 단백질 설계도로 인해 다른 지적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전 잘 모르겠네요.”

“어..... 제 물음을 간단히 하자면, ‘다른 지구에는 다른 과학이 적용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역사상으로 봐도 유전적으로 봐도, 수없이 멸종하고 탄생했다던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지적생명체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 이 확률을 다른 지구에서는 뚫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팀장님 말씀은, 다른 지구에도 결국 인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외계인도 그냥 인간일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마치 다른 대륙에는 완전히 저속한 지적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매칭되죠. 지금의 고민은 그 형태를 우주단위로 확장시킨 것뿐이죠.”

민혁은 웃으며 아메리카노를 들었다. 얼음 하나를 이로 부수며 목으로 넘겼다. 잠시 달아오른 혀와 목을 식혔다.

“저는 외계인에 대해 길게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든 과학이든 세상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심지어 종교 내부, 과학 내부에서 서로의 논문이나 종파, 이념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오늘날까지 전쟁을 멈추지 못하죠.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거고요.

‘지구상에 있는 우리끼리라도 서로서로 이해해야 그 후에 외계지적생명체든 뭐든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그만큼의 법과 제도, 궁극적으로 기술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에게 ‘사이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고 싶네요.

우선, 그런 관점은 신을 믿고 계시는 인아 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해요. 또, 저에게도 예의가 없는 발언 같아요. 물론, 인아 씨께서 제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모르셨으니까.”

“네…….”

“저는 이러한 해석을 해내기 위해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여러 과학 지식과 교양을 쌓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절 ‘신으로 받들어라.’라고 하면 지식과 교양을 쌓는 고통, 시간들이 모두 무시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두가 길었지만 이런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아요. 이제 인아 씨 순서인데 괜찮으신가요? 공유하고픈 성경은 어떤 부분인가요?”

민혁은 웃으며 인아를 바라보고 있다.

“……. 전 괜찮아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민혁 씨. 아, 아니. 팀장님 생각을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제게 찾아온 것 같아요.”

“좋아요.”

인아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들이켰고 민혁은 잔을 들었다가 놓았다.

“그럼, 잠시 업무 얘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인아 씨가 이런 성경공부 시간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혹은 심지어 같은 성도여도 사내에서만은 업무에 총집중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배려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기억났네요. 팔 괜찮으신가요? 곧 점검기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민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인아의 팔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인아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인아는 기계근로자이다. 5살 시절, 4층 베란다난간에서 놀다 떨어져 오른쪽 팔을 잃었다. 따라서 그녀의 장애 요인은 ‘사고’로 분류가 되며, 그녀는 비교적 적은 비용의 초기 자금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로봇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그녀만의 팔을 갖게 된다. 그리고 로봇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이 지불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1인에 로봇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부담을 기업이 안는 이유는 첫째로 기계근로제의 시행 때문이며, 둘째로는 인사 과정을 이상적으로 진행한다면 기계와 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근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업에서 장애인과 기계가 결합된 기계근로자를 더 반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는 이나 훼손하는 이에 대해

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물론 이를 반기지 않는 기업도 있다. 단, 이 기계근로제의 주목적은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기계근로제 자체가 워낙 국가 사회에서는 낯선 제도이기에 이는 집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는 식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계근로제의 주된 관계인 개발자, 기업, 근로자 삼각관계가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고 근로자는 더 업무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도를 악용해 로봇업체와 환자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 내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아는 다시 한 번 오른팔을 주물렀다. 차가운 쇠 부분이 아직도 거슬린다. 아무래도 살과의 접합지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다.

“그, 최신이라고 BCI이긴 한데, 요즘 많이 뻑뻑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테스트로 새하얀 도화지에 선을 그려보곤 하는데 확실히 점검을 받을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정말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복잡하시군요. 집중이 안 되시겠네요.”

“이런 말 꺼내면 괜히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속상했거든요.”

“힘드시면 재량 것 휴가 드릴 수도 있어요. 전 언제나 인아 씨를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인아 씨가 회복돼서 이전 밝은 모습으로 그림 계속 이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게요.”

인아와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혁의 잔은 다 비워져있었다. 하지만 인아의 잔이 남아있었다. 인아는 몸이 불편해서 커피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남은 커피를 모두 버렸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발걸음으로 향할 차나였다.

“저, 민혁 팀장님!”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아니에요.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민혁은 손짓을 한 번 한 뒤 무인버스를 타는 인아를 보았다. 민혁은 가게를 돌아 차를 타고 은영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로봇간호병원, 청소년안전자료보관소, 포장재 가격식

다이어리를 덮은 은영은 안경을 벗고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밖을 보았다. 이놈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방이 서늘한 것 같아 에어컨을 켰다.

은영은 어지러워진 머리를 식히려 침대에 누웠다. 아랫배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따뜻해지는 배를 느끼며 있다가 점점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을 천천히 떴다. 얇은 이불을 들어 몸을 그 속으로 넣었다. 잠시만 은영은 모래폭풍을 뒤로하고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은영 방의 시계가 벌써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이 잤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은영은 헐레벌떡 일어났다. 날카롭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은영은 한손으로 머리를 댔다. 은영은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한 것이 느껴졌다. 은영은 씻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기 전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혹 그림자라도 세어나갈까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천천히 고개를 내어 보았다. 민혁이 맨 식빵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 먹으면서 냉장고 안에 우유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에이, 뭐야 당신이었어? 오늘 목요일이잖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벨리 버그가 맞데. 공식 서류 받았고, 회사에서 오늘 반차 받았어. 폭풍 지나갈 때까지 밖에서 밥을 먹긴 했는데 또 출출해지긴 해서.”

은영은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어설픈 토스트를 먹는 민혁이 멋있어 보였다. 은영은 몸에 찌릿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 해은이 오려면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은영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간만에 얻은 반차를 받고도 모래폭풍을 기다리면서까지 민혁은 집을 선택하였다. 민혁은 은영과 입을 맞추었다.

접수를 마친 해은은 뒤돌아보니 아이들과 엄마뻘 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였다. 구석에는 고령의 환자도 꽤 있었다. 해은은 그 사이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예상 대기시간을 보니 무려 1시간이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졌다지만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였다. 마스크를 끼고, 지하로만 이동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려 루트를 짜고, 차량에서 차량으로만 옮겨 다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어도 도시 전반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었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해 이런저런 환자가 더 늘어버렸다. 그래서 해은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눈을 붙이기로 하였다.

간호사가 해은을 깨웠다. 보통 병원에서도 벨리가 접수나 기타 사무업무를 보고 간호사는 인간이 직접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는 최고 품질의 인공지능로봇이 간호를 보긴 하지만 이처럼 해은이 찾은 대도시 변두리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간호는 인간이 맡는다. 해은은 일어서기 위해 배에 힘을 주다가 헛기침이 나왔다.

해은은 진료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해은으로 몸을 돌렸



다.

“학생이네? 교복 보니까 미리내고인가 봐?”

“네, 맞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보자.”

해은은 자초지종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며, 입맛이 없으며, 헛기침까지 나오는 등 최대한 아픈 것 같은 애매한 이야기까지 죽죽 늘어놓았다.

의사는 해은이 한참 동안 횡설수설하는 말에서 핵심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그냥 해은의 말을 적당히 끊고 해은의 눈을 확인해보았다. 해은의 눈이 시뻘건 채로 있었기에 최대한 꼼꼼히 보았다.

“약간 감기기운이 있네. 최근에 무리한 적이 있나봐. 요전에 비가 내렸는데 사실, 그 비에 미세먼지 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 온 가족이 시원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최대한 구석구석 씻어내라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사람 신경에도 영향을 줘요. 학생도 최대한 조심하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에어컨은 피해요.”

진료를 마친 해은은 다시 의자에 퍼질러졌다. 곧 해은의 처방전이 나왔고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병원 내 벨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해은은 처방전을 한설에게 넘겨주었다. 정확히는 벨리끼리 어떤 손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오더니 그 두 개가 연결된 다음 잠시 후, 한설이 잘 넘겨받았다고 한다.

해은은 그 길로 약국으로 갔다. 약국에서 약을 받은 해은은 해가 벌써 저물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6시가 되어있었다.

‘이럴 거면 그냥 수업 듣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해은은 내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집안 생각이 들었다. 그 더러운 몸으로 신나게 서로를 쪽쪽 빨고 있을 둘을 생각하니 해은은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어락을 해제한 해은은 꽤 문을 여는데 머뭇거리다가 문고리를 돌렸다. 현관에 신발은 낮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은이 빨리 왔네. 고생했어.”

은영은 파자마에 머리까지 묶고 샤워까지 했는지 가까이 오기만 해도 향긋한 향기가 퍼졌다.

“아, 몰라. 배고파. 빨리 밥이나 해줘.”

모든 식사는 민혁의 레오나가 준비하는 것이 벨리를 가정에 들일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였

지만 실상은 저녁은 거의 은영이 손수 만드는 일이 많았다. 민혁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할 경우가 많아 레오나 자체가 집안일에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은은 민혁과 은영이 함께 부엌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우와, 아빠도 와있었네.”

“해은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오늘.”

“모르겠어. 힘든가 봐. 아이고, 힘드네. 방에서 좀만 쉴게요.”

방에 들어간 해은은 문도 닫지 않고 다 죽어가는 신음을 크게 내뿔었다.

“여보가 한 번 가봐.”

민혁은 엉덩이로 은영을 톡 치며 말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해은에게로 향했다. 해은은 침대에 드러누워 대자로 뻗어있었다.

“우리 딸,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몰라몰라, 밥이나 해줘.”

“해은이 엄마 비밀 있구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청소년안전데이터보관소에 연결합니다. 보호자 명령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설아. 엄마한테 처방전 좀 보여주라.”

“어? 한설이가 누구야?”

“아, 말 안 했나? 벨리 이름 바꿨어. 한설.”

미성년자의 벨리는 사용자가 위험 상황 혹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자나 관공서, 법원, 기타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 등 국가에서 증명하거나 인증된 기관이나 개인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상황을 기록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 훼손 및 삭제를 할 수가 없게끔 시스템 되어 있다.

“우리 해은이, 무슨 일 있던 건 아니지?”

“엄마는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지?”

순간 은영은 뜨끔했다. 애써 태연하게 일어서며 인아는 해은에게 밥 먹으라는 반 명령을 하였다. 해은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식탁으로 갔다.

해은은 양치를 하였고, 민혁은 설거지를 했다. 민혁은 은영이 정말 괜찮은지 엉덩이로 톡 톡 쳐가며 물었다. 은영은 이래서 민혁이 여태 이렇게 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싶었다. 은영은 해은이 한설을 충전기에 얹혀놓고 확실히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민혁에게 볼썽뽀를 하였다.

설거지를 마친 후 은영은 방으로 갔다. 그리고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민혁과 은영은 뜨거운 키스를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아 잠시 멈췄다. 민혁이 입을 열었다.

“은영아, 내일 레오나 온데. 내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 나는 자기 믿어. 잘 자.”

민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은영은 웃으며 방의 불을 켜다. 은영은 배를 만지며 편하게 누웠다. 레오나가 온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은영은 천천히 잠에 들고 싶었다.

은영은 눈을 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아침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전 은영은 아랫배 위에 두 손을 얹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꿈만 같던 어제였다. 은영은 다이어리에 쓸 글이 잔뜩 생겼다는 것에 웃음을 지었다.

은영이 정말 기분 탓에 잠이 깬 건 것은 아니었다. 이 이른 아침에 현관에서 민혁이 도착한 레오나를 정성스레 포장을 걷어내고 있었다. 은영은 혹 민혁이 출근에 늦을까 같이 달라붙었지만 한껏 굳어있는 레오나의 표정을 보니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괜찮아, 자기는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뒤처리까지 다 할게.”

민혁은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준 은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 잠자고 있는 해운을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꿈치를 들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포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조용히 뜯는다고 했는데 은영은 그 좋아하는 잠을 내팽개치고 민혁을 찾아왔다. 민혁은 은영이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덜어낸 포장지를 일반쓰레기통에 다 버렸다.

벨리는 벨라스틱으로 포장된다.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이러한 ‘썩는 포장재’가 주목받는다. 이러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포장재가 개발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김치나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왜 포장재는 500년이나 남아있는가?

자원 활용에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다.’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주목받는 것 역시 그저 군소리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장재 개편안으로 인해 공산품 가격이 다시 책정되었다.

방식은 대략적인 식으로 가격을 재측정하는 것이다. 대략적인 식으로는 ‘공산품 가격 + 포장재 재질 가격 × 포장재 수명’이다. 위와 같이 문제가 대두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불법화하는 방향이 아닌 것은 플라스틱 포장재가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대다수 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친환경 포장재는 무상 A/S 기간에 맞춰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되고 있다. 즉, A/S기간이 2년이라면 2년까지는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순식간에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설계를

하는 중이다. 또한 냉동 보관되는 식품 포장재 역시 식품 유통기한에 맞춰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민혁이 포장재를 버리는 소리 때문에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 은영은 별수 없이 옆으로 몸을 돌려 폰을 꺼내 관심도 없는 뉴스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영은 하나하나 똑같아 보이는 뉴스거리에 취해 다시 잠들었다.

벌써 여섯 시하고 반이 넘었다. 은영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부엌으로 갔다. 레오나는 마지막으로 나온 은영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고 해은은 벌써 스ك램블에그를 다 먹어가는 중이었다.

“해은아, 아빠 어디 갔니?”

“방. 나 오늘 바쁘거든? 빨리 가 봐야 돼. 아, 그리고 오늘은 진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올 수도 있다. 자고 올 생각도 있고.”

“그러니? 자고 올 생각이면 꼭 연락하고. 전화만 해줘.”

“알았어. 나 진짜 가볼게.”

“그래, 우리 딸 힘내.”

은영은 싹싹 굵어먹은 해은의 접시를 만족하며 바라보았다. 레오나가 곧 빈 접시를 가져갔고 은영 자리로 예상되는 위치에 은영의 아침식사를 내려놓았다. 해은은 양치질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레오나와 은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스ك램블에그를 한 숟가락 들고 있는 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렵게 입을 연 은영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 씨 기억에는 사라졌겠지만, 제 빅데이터 속에는 남아있거든요.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해은이의 방과 민혁의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터져 나왔다. 꽤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만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에는 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에는 적당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은영 씨는 이런 해소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처에 알맞은 정신병원을 안내 해드릴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은영은 동면 상태로 돌입했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인형, 도촬, 신체 해킹

방에서 나온 해은과 민혁은 서로의 벨리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차갑게 식어버린 스크램블에그를 앞에 두고 은영은 천천히 접시로 눈을 돌렸다. 레오나가 정성스럽게 요리해준 스크램블에그를 보니 아랫배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아직 입에 넣지 못한 손가락을 힘없이 떨어뜨린 채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은영은 지난 3년간 안에 쌓였던 것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잊으려 한 것뿐이었지 소화가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구역질은 이미 관련된 부정적인 데이터가 넘쳐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겪을 대로 겪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에 배팅하였던 은영에 대한 대가였다.

3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은 모래폭풍 앞에선 그저 자그마한 모래성이었다. 집안 곳곳에 은영의 구역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금 진정이 된 은영은 제 몸 가늠 새도 없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것도 모자라 이 더운 날 얇은 가디건까지 입었다. 성경과 핸드폰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교회로 도망갈 생각이었나 보다.

어떻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걸 보니 꽤 서두르고 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은영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은영의 뽕박질 소리는 정말 다급한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마치, 꽤 늦어 보이는 모양새였다. 은영의 접시에 있는 스크램블에그는 아직 반 이상 남아있었다.

누런 하늘에 해은은 마스크를 끼고 버스에 올랐다. 아침 등교 시간이었지만, 빈자리는 많았다. 해은은 적당히 중간 즈음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늘 보는 풍경이라 금세 지겨워진 나머지 폰을 꺼냈다.

언제나 그렇듯 만화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눈꺼풀이 금세 무거워졌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나서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컨디션이 영 좋지 못하다. 해은은 오늘 예정된 술파티가 무척이나 기대되기 시작했다.

버스의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버스의 인공지능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미세먼지농도에 불가피하게 서행모드로 전환되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학교까지 아직 세 정거장은 더 남았다. 더군다나 버스는 신호대기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무인 버스는 폭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아예 버스가 정차하게끔 설계되어있다.

신호에 대기를 하던 버스 내 일부 사람들이 결국 ‘긴급탈출버튼’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렸다. 신호가 바뀌려면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그걸 못 참고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해은도 앞머리를 부여잡고 그들을 따라 내렸다. 해은은 이제 막 풀린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넜다.

마스크를 끼고 약 10분 정도 내달렸더니 해은은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침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꽤 있기는 한가보다. 땀범벅이 된 해은은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는 수아만 있었다.

“안녕, 수아야. 다른 사람들은?”

“버스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등교시간도 조금 늦춰진대요. 언니는 뛰어오신 건가요?”

“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막상 뛰해보니 아니더라고. 너는 어떻게 금방 왔네.”

“저…… 원래 걸어 다녀요.”

해은은 수아가 회수자였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아무리 회수자여도 갈수록 기본소득이 줄어들고 생활고가 팍팍해진다는 소문처럼 정말 아예 버스를 못 탈 정도인가 싶었다. 해은은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끼며 괜히 쿨룩거리며 걸어 다닐 것 같은 수아를 떠올렸다. 그리고 최대한 화제를 바꾸는 것이 나을지 여기서 대화를 그만둘지 고민이 들었다.

수아가 잠시 교복 단추를 풀고 심호흡하는 해은에게 다가왔다. 수아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인형을 하나 꺼내 해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뭐야, 수아야?”

“제가 만든 건데, 가지세요.”

해은은 수아가 준 플라스틱 인형을 집어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예쁜 여자아이 인형이었다.

“고마워. 잘 가질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아가 웬일이래, 나한테 관심을 다 가지고.”

“그건, 언니가 먼저…….”

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정우가 교실로 들어왔다. 수아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재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해은은 그런 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다.

현석이 뒷문으로 들어왔고 예서와 민애가 떠들면서 앞으로 들어왔다. 예서는 특히 껌을 씹으며 발음이 하나씩 새어나가고 있었다. 해은은 이들이 앓을 즈음 쿼퀴한 미세먼지 냄새가 같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창문을 보았지만 하늘이 누런 것이 꼭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공기 청정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을 틀었다. 해은은 약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쿠팡 같은 국어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다. 해은은 그대로 엎어져 땀이 떨어졌고 예서는 다리를 앓을 쪽 빼고 의자에 등을 걸친 채 머리를 뒤로 젖혔다. 민애는 태블릿을 보고는 있다만 별 흥이 생기지 않는 듯 턱을 괴고 한 손으로는 펜을 돌리고 있다.

정우는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소설을 완독하였고 요소 하나하나에 분석하였다. 수아도 별 흥이 없는지 교과서 종이 한 장을 집고 페이지를 넘기다 말다를 반복했다. 쉬는 시간은 조용히 무르익었다.

‘찍어요~ 찰칵!’

민애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우는 눈을 한번 흘겼고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머리를 젖히고 있던 예서가 코웃음을 쳤다. 예서는 소리가 들려왔던 왼쪽 뒷자리를 노려봤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다. 퍼져있던 해은의 책상을 지나 현석에게로 다가갔다.

“너.”

예서는 딱 한 마디를 현석 머리에게 강하게 내리꽂았다. 현석은 꿈쩍을 않고 있다.

“현석아, 폰 좀 보자.”

예서의 눈은 반쯤 풀려있었다. 예서는 힘을 주지 않고 현석이 들고 있던 폰을 가져갔다. 아직 폰이 잠금화면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다.

“도촬, 했네? 언니, 이거 봐봐 도촬했어. 언니 친구 해은 언니를 말이야.”

“어? 어.”

민애는 예서를 꺾꺾 누르는 선수였다만 이렇게까지 나사가 다 빠져버린 상태면 난감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예서는 눈이 완전히 풀린 채 현석의 폰을 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은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야, 회수자. 적당히 해. 해은 언니가 그렇게 만만해? 해은 언니는 너 생각 없어. 회수자면 회수자답게 살아. 찌그러져 있으라고. 왜 이 지랄인데 시발 새끼야.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어. 부자랑 회수자. 그러니 주제에 맞게 살아.”

수아가 벌떡 일어섰다. 수아의 의자가 거칠게 뒷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다. 해은이 그 바람에 깨고 말았다. 예서는 돌아본 척도 하지 않는다. 해은은 어리둥절하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민애가 심각하게 현석이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은은 인상을 찌푸리며 예서가 현석이 머리통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운 없이 태어난 니들이 잘못된 거지. 누가 그렇게 병신처럼 태어나래? 이 희口…….”

“예서야, 왜 그래?”

예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해은은 예서가 고갯짓으로 빈 책상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예서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져있어서 해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석의 폰을 보았다. 해은은 정말 자신을 아무 허락없이 찍었다는 사실에 기겁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

다.

이를 보다 못한 민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서에게로 갔다. 민애는 예서의 어깨를 잡아끌었다.

“야, 민에서. 선 넘지 마. 적당히 하고 끝내자.”

“.....”

민애는 눈이 붙어져 있는 예서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일정하면서 나지막하게 내려앉은 예서의 목소리는 민애도 처음 듣는 톤이었다. 예서가 현석 머리통을 보다가 민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애는 다시 눈꺼풀이 반쯤 내려온 예서의 눈을 보고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됐어, 화가 나서 그랬어.”

예서는 민애의 손을 치우고 잠시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야, 민에서.”

정우가 일어났다. 해은은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냉정히 보았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순전히 자신 해은의 일인데 다른 이들이 더 흥분해 있었다.

“꼴통 새끼가 그만 나대자.”

“너나 조용히 해.”

앞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었다. 정우는 빠르게 몸을 돌려 자리에 갔다. 아직 화가 덜 풀린 예서는 가만히 서 있다가 민애가 힘으로 예서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밀자 그제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현석 앞자리 두 개가 모두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책을 덮었다. 민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선생님은 교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유선 이어폰을 선이 엉키지 않게 천천히 꺼냈다.

“민에서, 벨리 가져와 봐.”

선생님 기준에서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예서였다. 예서는 오늘 따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다. 하나가 예서의 옆구리를 찌른다.

날카로운 선생님 호명에 예서는 결국 일어나 하나를 선생님께 데려갔다. 벨리는 고품질 음역대의 음악 감상을 즐기는 유선 사용자들을 위한 유선 단자가 제공된다.



선생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하나 가슴팍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리저리 눌러 Kids Security Data Base에 접속하여 조금 전 상황을 보았다.

교실은 어느 때보다 적막해졌다. 선생님은 모든 사건을 전부 인지하였고 이어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앞문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뭐 빨리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긴 하구나. 그리고 민에서, 서현석은 교무실로 따라오고 하교할 사람은 하교해라. 그리고 수아야, 해은이 오면 교무실로 내려 보내렴. 너무 안 온다 싶으면 너도 하교하고. 선생님이 연락해볼게.”

“네.”

수아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곧바로 교실을 나갔다. 정우는 그 즉시 가방을 메고 교실을 떠났다. 현석도 뒷문을 통해 교무실로 향했다. 예서는 일어나 아직 앉아있는 수아에게로 갔다.

“야, 이수아. 아까 일은 사과할게.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럼 교실 안에서 목소리 좀 낮춰줄래, 예서야?”

수아는 벌떡 일어서더니 예서의 어깨를 치고 곧잘 교실을 나가버렸다. 민에도 가방을 들고 교실을 떠났다. 어느덧 교실에 혼자 남아버린 예서다.

“.....”

예서는 교실을 나가기 전 민애의 책상다리를 걷어찼다.

수아의 말에 허겁지겁 교무실로 달려온 해은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예서와 현석을 보았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는 현석에 사과하는 모습이였다. 현석 역시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의 사과를 받는 척하였다.

“그리고 현석이는 해은이한테 사과해야지.”

“미안해요. 해은이 누나.”

“해은이는 사과 받기 전에. 현석아, 이거 사진은 삭제하자?”

현석은 예서와 해은 그리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삭제했다.

도촬 사진은 초상권 침해 이외의 범죄를 낳았다. 바로 사용자가 생체인식 설정한 경우였는데, 최근 스마트폰 도난 사건이 증가한 이유와 같다고 본다.

범죄수법은 스마트폰에 묻어있는 사용자의 지문이나 기본화면에 띄워진 본인 혹은 부부, 애인, 친인척 등의 사진에서 추출한 안구데이터를 활용해 홍채데이터를 재생성하여 다양한 결제를 시도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손가락 모형제작, 카메라가 필요 이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인한 범죄였으며, 로그인이 편해진 만큼 범죄도 편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범죄자, 범죄예비자들에게 ‘생체인식,’ ‘유일성’이라는 힌트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쉬 값으로 치환 가능하며, ‘관련된 정보를 모르는,’ ‘흔한 단어 조합’을 갖춘 쉬운 암호가 오히려 더 보안능률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맥 생체 보안 역시 이와 같은 수법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수법으로는 지인이 선물해주는 손목밴드, 시계 혹은 사무실 내 마우스 패드, 손목에 닿는 옷깃 등 손목에 접촉되는 제품이 주 범죄 표적이었다. 이런 손목 접촉제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사용자의 정맥운동을 복제하는데 성공하여 범죄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체 로그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한해서 기기를 상시 손수건이나 형짚으로 화면을 닦아 자금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평시에 마스크나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면허체계 사용자의 손목접촉제품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화하는 것은 인터넷면허체계 내에선 중범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보안은 의수, 의족기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로봇은 오직 하나의 사용자에게만 프로그래밍 되어있을뿐더러 제품모형마저 해당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사용자에게만 주어지는 마치 또 하나의 뼈 살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안하기 위해선 생체보안기술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보는 견해가 있다.

현석은 해은을 슬쩍 보았다. 해은은 어쭈뻑하게 웃었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헤카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전 괜찮아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좋다. 요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해은이만 남고 둘은 가도 돼.”

해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현석과 예서는 곧바로 교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현석은 교무실 밖에서 클라우드로 전송되어있던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다시 내려 받아 파일을 원상복구 하였다.

선생님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다. 아침보다 꽤 내려온 상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보였다. 선생님은 해은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자그마한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단상 옆 계단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잠시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옆에 한설이 있어 차마 해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요번 주에 공부한 게 조금 빠세긴 했지? 그런데 해은아, 어제 쪽지시험 점수는 영 썩 좋지는 않더라.”

해은은 입맛을 다셨다. 선생님과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어려웠니?”

“네, 공부 해야죠.”

“선생님이 왜 해은이만 따로 빼서 불러낸 거 같니?”

해은의 머릿속에는 ‘예뻐서, 점수가 낮아서, 사이 좋게 지내라고.’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모르겠어요.”

“해은이 어머니께선 벨리가 없다고 했지?”

“네, 맞아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모임에 참여하시지는 않니?”

해은은 가만히 고민하다가 곧 은영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글쎄요,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시는 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전 근데 교회는 별생각 없네요.”

“어머님이 교회라고? 참, 현명하신 분이시구나. 해은아, 너도 이제 곧 어른이잖니. 해은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벨루 취업해야지.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랏일 말고 회사일 생각 해보는 걸 추천한단다. 힘들다는 건 아는데, 이제 이걸 이해할 때도 됐어. 이런 건 해은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야.”

해은은 가만히 듣다가 찻잔의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벨리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그리고 저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럼 수아랑 현석이 는요?”

선생님은 곧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해은은 툭툭툭툭한 계집애였다.

“해은아, 일단 제 몸부터 가누고 보자.”

선생님은 한 마디 내뱉고 해은의 마음을 다독이며 일어섰다. 해은은 방금 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은이 질문을 하려 했을 때에는 이미 선생님은 벌써 멀리 걸어가 버린 후였다. 해은은 비어버린 운동장을 보다가 잠시 생각에 빠졌다. 바람이 심해지는 것 같다. 해은은 몸을 일으켜 교실로 향했다.

텅 빈 교실인 줄만 알았지만, 교실에는 수아 딱 한 명이 남아있었다. 해은은 수아의 책상 위에 자그마한 인형 두 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받았던 인형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우선, 성별이 달랐고 머리스타일과 생김새 부분

이 조금씩 달랐다. 해은은 수아의 옆자리 정우의 의자를 빼서 수아 옆에 앉았다. 수아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인형을 보고 있었다.

“수아야, 괜찮아? 하교 안 하니?”

“전 괜찮아요. 하교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

해은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해은은 한눈에 보기에 지금 수아가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이 느껴졌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수아 앞에 앉아 책상 위에 자신의 노트를 펼쳐 수아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언니…….”

“언니, 시간 많아. 얘기 들어줄게. 괜찮아.”

수아는 자신의 인형에게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은을 보았다. 해은은 드디어 자신을 봐준 수아를 부드럽게 쳐다보았다. 눈을 한참 동안 마주친 수아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저희 어머니는 낮에 쉬시고 밤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서 집을 비워드리려고요. …… 언니, 믿어도 되는 거죠? 언니한테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실부터 나갈까? 잠시 산책 좀 하자. 여긴 너무 어둡잖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확인한 후 열려있던 앞문을 닫았고 혹시나 하여 뒷문도 확인하였다. 해은은 다시 수아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출한 지 10년이 넘어 이젠 년 수를 안 따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벌써 창녀 일은 5년은 더 되어 가는데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셨다. 이유는 포르노를 찍는데 그 상대가 바로 ‘벨리’라는 것이었다. 해은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한 인간’이라는 컨셉으로 성인용 벨리와의 관계를 통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포르노 제작이 해당 업계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수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임이나 여타 신체적 접촉 및 육두문자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안전해 그나마 할 만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정신이 파멸되는 것, 자멸할 것만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보고 즐길 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일을 더 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가 없기에 딱히 떠올릴 수 있는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수아는 말하였다.

“언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 그런데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벨리가 다 들었잖아요.”

“……. 수아야. 언니랑 약속 하나 할래? 언니 성공하면 꼭 도와줄게.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수아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실은 수아가 먼저 성공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흠, 좋아, 내 벨리 이름은 ‘한설’이야. 조금 촌스럽지?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운 거야. 한설. 언제든 검색해서 연락해. 내가 수아라면 무조건 연락받아 줄 거야.”

“……. 제 벨리 이름은 ‘헤카테’예요.”

해은의 폰이 울렸다. 해은은 수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메시지를 읽었다.

‘해은 언니W 오늘 알지?W 날이야W 나와W 기다리고 있어’

예서였다. 아무래도 학교 밖에서 민애와 함께 해은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수아는 난감해하는 해은의 얼굴을 잠시 보았다.

‘수아랑 같이 있는데, 시간 좀W 어디 가서 뭐라도 먹고 있어’

‘개?W 수아라고 하니까W 쌍!W 알았어W 언니가 그런다면 그런 거지W 대신 정각에는 와’

‘어, 근데 더 늦게 갈 수는 있어W 아무거나 먹고 돼지나 되고 있으라고’

‘그래, 참 고맙네W 정말 고마워’

수아는 멀리서도 예서와 해은이 나눈 메시지를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인형으로 눈을 돌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서는 말이 참 거친 친구예요. 저번에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친구더라고요. 처음엔 연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날 후 계속 만났고 더 친해졌는데, 저는 예서와 벨리 이름까지 나눴어요.

민애 언니도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잘 알거든요. 예서가 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따뜻한 친구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말이에요. …… 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언니, 가서도 좋아요.”

“아니, 난 수아랑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 좀 봐줬으면 하고.”

해은은 자신의 태블릿을 수아에게 쑥 내밀었다. 수아는 태블릿과 해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해은의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지나간 추억에 파스함 위로,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졌다.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내겐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이거 뭐예요? 언니가 쓴 거예요? 완전 감성 폭발이네요.”

“이거 옛날 노래야. 그, 별빛이 내린데. 그 가사를 내 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지. 그런데 요즘은 미래, SF 노래를 찾아 듣고 있어. 어느 한 게임에서 쓰인 ‘V’라는 노래야.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버그가 너무 많아서 안 좋은 평을 받았어.

그런데 그 부서진 조각 중에서 이 노래를 찾게 되었는데 내가 그리려는 것과 딱 맞더라고. 노랫말은 없지만 장르를 바로 알 수 있었어. 바로 ‘SF, 호러, 서스펜스’야.”

“언니, 과거, 옛이야기 쓰는 거 아니었어요? 왜 미래예요? 갑자기.”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렇게 되네. 아마 이 글을 다 써도 난 제자리, 선과 과거를 그리는 작가로 돌아갈 테지만 여기서 배운 악과 미래를 그리는 걸 조금 가져갈 것 같아.”

“그렇군요.”

“언니는 꿈이 있어. 바로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글을 써보는 거야.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에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글을 쓰는 거지. 뭐, 정말 이대로라면 힘들겠지만 찾아보니까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에 형상 관리가 있더라고. 그런 거.”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현오빠 아니었어요? 아, 이젠……. 죄송해요.”

“괜찮아. 내 이상형이 목소리거든. 그런데 최근에 작은 칼럼을 보게 되었어. 제목이 ‘순례자’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글썽,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지.

뭐 대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 있지. 서두르지 않고 찾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겠다 싶은 상황이야.”

“비슷한 생각이라고요? 설마 언니는 인간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맞아. 아직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해. 하지만 언니는 가능할 것 같아. 사람이 실제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행위 말이야. 예를 들면, 광차? 빛의 속도로 달리는 차에 몸을 싣는 거지. 물론, 우주에서. 엔진은 나중에라도 걸맞은 걸 생각해 보자고.”

수아는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빨리 달리다 못해 음속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도구를 만들고 거기에 몸을 실으면 되는 일이었다.

“여튼 이건 이거고, 배우자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난 그래도 무리하긴 싫어. 억지로 배우자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잠깐만요. 언니가 말하는 무리가 뭐예요?”

“그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이성 교제도 웬만하면 신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도 맞는 사람이라면 교제해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무신론자랑 교제하면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이거 잘 못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말마따나 잘 안될 것 같고, 말이야.”

“언니는 어느 시대 사람이세요? 돈 모아서 스마트하우스에서 사세요. 그래서 ‘안방 나누기 서비스’ 하면 되잖아요.

결혼해도 따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웅다웅 같이 사는 거 어느 시대 발상인데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살라 그래요.

언니 말마따나 코드 맞는 사람 찾다간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났는데, 그거 광차 대현 오빠 이야기죠? 대현 오빠 한 얘기 아니예요? 강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직 언니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해은은 잠시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보았다. 어쩌면 그런 사랑을 바라는 마음도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이상형, 종교와 과학 그리고 성, 결혼과 일

수아는 가만히 책상을 내려 보았다. 책상 위에 있는 인형 두 개를 펜스레 부닥치며 소리를 내었다.

“그래, 수아야. 이거 잘 간직하고 있을게.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는 사람 찾을 거야.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나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난 좀 센 걸 좋아하거든. 누가 댔든 간에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언니는 각오가 됐나요?”

“……. 어? 무슨 소리야?”

“만약 언니 이상형이 목소리라고 했는데 정작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요?”

수아는 잠시 해은과 눈을 마주쳤다. 해은은 웃으며 눈을 돌려버렸다. 수아는 점점 풀려가는 해은의 눈을 보고 있다. 수아는 자신이 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해은에게 던져버린 것에 대해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수아 생각보다 해은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괜찮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되지. 말을 하든 못하든 어차피 여태 살아있으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일 텐데, 그냥 수화만 하는 정도면 되지.”

“언니, 목소리 이상형 아니죠? 제대로 말 해봐요. 딱 걸렸어요. 진짜 딱 언니 민감한 거 뭐예요?”

해은은 멧쩍은 웃음소리를 내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수아는 슬쩍 해은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해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싫어지긴 했지. 한때 바랐었어. 나의 쾌락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너무 쾌락만 얻은 나머지 날 무력하게 기절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즐기는 만화나 애니, 그런 영상물에서는 괴물로 표현되더라고. 그럼 내 이상형은 아마, 사람 신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괴물 정도 되겠지.”

“……. 뽕이죠?”

“단, 자극이 심해져서 신체가 훼손 또는 해체되거나 쾌락이 고통으로 치환되는 건 일절 금지야. 왜냐면, 신체가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거나 하면 이미 그쪽 세포는 죽어버려서 아마 자극을 더 못 받을 테니까. 해체됐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 해체되지 않은 선에서 최대의 자극을 누린다. 그 쾌락 한계치를 잘 알아야겠네요. 언니, 언니랑 얘기 좀 해도 돼요? 언니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어……. 근데 뽕 맞아. 이젠 이상형이 없어. 공식이야. 그게 내 이상형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이제 난 이상형 같은 거 없어. 쾌락도 느끼기 싫어. 누구랑 연애하기도 싫고. 목소리 같

은 것도 시끄러워. 노래도 이제 다 꺼버렸어. 아무튼 그래졌어.”

궁허한 말을 남긴 해은은 수아를 천천히 보았다. 수아는 해은의 피곤한 목소리와 어투를 감지하지 못한 채 먼 하늘을 보며 자신의 얘기를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언니, 레즈 아세요? 사랑이란 게 너무 범위가 큰 것도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동성에 싫어하는 성경도 대충 보니까 너무 대충 쓰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탁탁 이건 뭐다 저건 뭐다 해야 성질이 풀리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 해석 다르고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이게 뭐예요? 짜증 나게 시리.”

“난 개인적으로 성경 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부터 생각나. ‘간음’에서부터 수많은 죄가 파생된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아예 그 모든 죄의 시작점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 깊이는 몰라. 그런데 뭐 이런 거는, 다른 종교도 비슷한 예가 많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왜? 이 언니가 다른 사람 사귀는 것도 고려해주는 거야?”

“언니보단 언니 아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그 아이가 살 사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난자와 난자, 정자와 정자를 결합하겠다는 발상은 사실 유전자조작이죠. 다른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고는 하나 무슨 실험실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결국 기술의 발달로 얻는 자유가 되는 거잖아?”

“인간 계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인간 계보 외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유전자 기술로 인한 유전자 후폭풍이 염려된다는 거죠.

인간 몸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유전자에 인공적인 조작을 하게 된다면 질병, 바이러스가 그 조작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류 측에서는 이전 날과 차원이 다른 질병이 탄생하겠죠.

소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다수의 입장이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소수자 말 더 들어주다가는 지금 맨날 불어오는 미세먼지 폭풍처럼 닳은꼴로 일이 터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말고 저기 그리스 신화에선 흔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잘은 모르지만, 연관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본 거예요.”

“글쎄, 그렇게 따지면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불교 쪽에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순환이 깨지는 행위잖아. 그런데 너무 그런 생각하면 또 나아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무튼 수아는 조작된 인간 계보에서 비롯된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고 있지? 이걸 그런데 굳이 동성 세포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조작도 해당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한 유전자조작, 애초에 실험군, 대조군도 마련 못 하는데요. 계보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런데 난, 더 궁금한 게 있어.”

수아는 해은의 거친 말에 입을 열 수 없었다. 수아는 머릿속에 최소 3페이지의 설명이 대



기해 있었다. 해은이 입을 열었다.

“어쩌면 핵심 주제야. 동성애, 유전자, 우생학 이런 거 다 중요한 문제지. 하지만 다 이 문제를 피하고 있어. 도전하지 않는다고. 바로 ‘결혼’이야.”

“……. 언니는 이상형이 없다면서요. 아…….”

수아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상형이 없어질 정도가 되니까, 냉정하게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는 거지. 바로 믿지 못해서야. 무슨 돈이 문제겠어. 조건 같은 건 그저 핑계야. 못 믿으니까 결혼 못하는 거지.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수준이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기본적으로 잠식된 거야. 어디에? 벨넷에. 결혼을 논할 믿을 만한 이는 세상에 없다고.”

“벨넷이요? 왜요?”

해은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이 바람이 거세질지 잠잠해질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저 답답했으니 말이다.

“옛날 인터넷 시대랑 똑같지 뭐. 인적 사항, 물품, 서류처리, 업무 같은 세상 모든 일들을 전부 인터넷, 인트라넷 같은 걸로 해치우면서 정작 가족, 한 가정을 인터넷으로 구성할 생각을 못 했던 시대. 그래, 누가 인터넷에 사랑을 나누겠어. 애초에 신뢰를 못 하는 곳인데.”

“그 혼란스러운 벨넷에서 내 사랑을 찾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거기에 조건을 더 쉽게 맞춰줄 수도 있고. 다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렇네요.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먼허체계가 어찌어찌 가동은 되니까 이미 다 신뢰할 수 있네요. 먼허증은 익명 뒤에 실명이 있으니 말이죠.”

“그래, 벨넷에서도 인터넷처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굳이 애인을 안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가정은 건적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뭔가 슬퍼요. 그럼, 실제 얼굴도 못 만나고 그러네요. 더더욱.”

해은은 콧방귀를 쏘다. 그리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끼리는 더 멀어지더라. 무기가 생기면 전쟁에 나가는 거고, 자동차가 생기면 회사에 가야 하는 거고, 인터넷이 생기면 원격으로 살아야 해. 인터넷 시대만 해도 진짜 얼굴 못 보는 상황인 거야. 벨넷? 자동화가 되면…….”

“로봇이랑 같이 살아야죠.”

“하,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네. 하,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은 진짜 정신병원 가라는 게 아니야. 환상을 본다는 거지 말 그대로. 다들.”

“하지만 환상 다음엔 늘 현실이 오죠.”

“그게 문제야. 늘 그래. 마치 처음과 끝이 이어진 것처럼. 아무튼 이걸 그냥 푸념이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산업혁명이 몇 차가 됐든 그게 끝이 나야 그걸 뒷받침하는 복지와 제도가 갖춰지겠지? 그게 언제일까? 우리 인간은 언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대충 보이지 않아?”

“그때가 언제인데요?”

“모든 사람이 각각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80억 명이면 80억, 20억 명이면 20억 개의 직업이 존재하는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의 끝이지. 그때까진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긴 힘들 거야. 해도 며칠 정도? 아님 늙어서 누리던지. 난 그렇게 생각해.”

“쫘 뭐가 많이 슬프네요.”

“응? 뭐가 슬퍼. 요즘 위로해주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요란한 게 많죠. 특히 벨리와 접목돼서 어우, 네.”

“거기에 힘도 좋아 사람 거뜬히 들어서 여기저기 찢어주니까. 그런데 네가 아까 나 만질 때 있잖아? 사실 나 그때가 제일 충격이었어. 역시 그래봤자 사람 손은 못 따라와. 백 판 게임에서 이겨봐. 믿는 사람 손길 하나면 다 위로되고 다 기분 좋아지는데.”

“어……. 무슨 말이죠?”

“있어 그런 게. 이 건은 이제 정리하자. 판도라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작은 일들이 알고 보면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다고 봐. 결국,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견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인간은 떨어져 있어야 사고가 잘 안 난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진짜 흩어져 있으면…….”

“뭘 뜯들여,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뭐 그런 일들이 대충 일어나겠지.”

심하게 불 줄 알았던 바람이 멎었다. 해은은 어찌면 더 큰 폭풍이 오나 싶었다. 수아는 자신의 리듬에 빠져 하늘을 보며 웃고 있었다. 해은은 모처럼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물을 들이켰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진짜 판도라, 투표 방식 I: 지식인 투표제, 공사산주의

수아는 해은의 걱정을 본 체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처럼 말할 상대가 생겨 신이 났는지 몸을 조금 흔들었다. 해은은 그냥 다음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런데 이전까지 말한 건 말마따나 작은 ‘건’이지.”

“네?”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열기도 전에 이미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란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게 있어. 그냥 느낌이 오는 그런 게 있어.”

“허, 마치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만나 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럼 얘기를 해보지. 진짜 판도라의 상자.

우리나라에 여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식민지 시절에 거의 80%가 모피 제작으로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 그 시절엔 호랑이도 멸종당했다 그러지. 그런데 여우 중 나머지 20%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건 식민지를 벗어난 시절이더라고.

그 좋았던 시절 와중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대.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쥐덫과 쥐약을 설치하면서. 그런데 상위포식자들인 멧돼지나 여우들이 희생당하게 되었어.

맞아, 어쩌면 마지막 남은 여우를 진짜 멸종위기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 시절 사람들은 상위포식자나 환경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지.

오로지 벼농사에만 관심 있었나?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정의였겠지.

내가 정의를 정의하자면 그 시기, 해당 집단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 사실 정의는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말에도 언급되지만, 합리 개념이라고 보는 거지.

여우 기준으로 봐. 짧은 시각,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정의로 인해 후폭풍이 일었고 결국 후손들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고. 거의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네

그때는 합리적이었지만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말 그대로 정의가 비실비실했던 상황인 것.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또 그게 정의가 아닐 수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만 집중할 뿐이지.”

수아는 해은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보였다. 수아는 해은에게 시험문제를 내기로 해보았다.

“가만가만, 좋아요. 그런데 언니 역사관이 좀 궁금해요. 그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뭘 줄 아세요?”

“어? 갑자기? 글썄 민주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수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역사 모르네요. 그냥 글 쓰려고 여우 알아본 거죠? 어디가서 역사 안다고 하지 마세요. 혼날 거예요.

공산주의 반대말은 엄연히 없어요. 사유재산주의는 아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는 공유재산주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반대말은 사유재산주의를 줄인 사산주의(私産主義)라는 말을 써야하죠. 이런 말 없죠? 지금 제대로 된 말조차 없는데 ‘정의’를 언급하면 곤란하죠.

하긴 요즘은 지식인 투표 시행으로 말들이 많잖아요. 언니가 그런 말 모를 만 해요.”

요즘은 120세 시대에 인터넷 면허까지 정비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보급돼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성세대 폭을 더 넓히고 그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치르

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자들, 사회에 관심이 있는 자들만을 추려 투표권을 주는 ‘지식인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름과 공약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조차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시행되는 것도 결국, 뭔가 퇴보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네……. 여튼 확실한 건 시행은 아직 안 됐잖아. 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돈이 부족해서겠죠? 아무래도?”

“하하, 돈돈돈이네. 그래, 수아가 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21세기 초에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말이죠.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유재산제도를 택한 우리나라마저도 공유재산 즉, 지방예산,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니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 공산주의에도 조금이나마 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고 사산주의에도 조금이나마 공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네?”

“진정한 사유재산체제를 바라면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로 가야 해요. 더해서 공산주의와 사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 아니, 그걸 넘어 공존해야 한다는 식인 거고요.”

“흠,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났어. 진짜 그 둘을 합쳐보는 거야.”

“……. 그게 가능해요?”

“글쎄, 어느 정도 견적은 나오는 거 같은데?”

해은은 걷다가 옆 자판기에서 이온 음료 두 개를 구매해 하나를 수아에게 건네주었다. 해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현석과 앉았었던 자리를 찾았다. 둘은 천천히 음료를 들이키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일을 하면 기본적인 돈을 주는 거야. 최저시급이라고 하지. 그걸 무슨 일을 하든 주고 보는 거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아주 최첨단 일이라도 그냥 최저시급만 주는 거지.”

“그냥 그러면 난리날 것 같은데요.”

“아니, 날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거지? 거기서까지면 그냥 공산주의잖아. 아무튼,

이 언니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똑같이 1000 코인, 화폐 비슷한 것을 받는 거지. 그리고 모든 회사의 식당과 복지는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단,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복지를 누리려면 회사의 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고.”

“직급은 구분하되 회사는 구분이 안 된다? 언니, 죄송하지만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수아야. 바로 이 지점에서 사유재산을 물리는 거야.”

“아……. 네.”

“간단해. 그 받은 1000 코인을 국가 돈으로 환전하는 거야. 회사가 국가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치인 증시나 기타 더 명확한 별도의 수치를 생성해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돈 혹은 다른 국가의 돈으로 환전을 하면 되겠지?

즉, 정리하자면 회사 안에서는 동등한 가치여도 밖으로 나오면 그 회사의 사회기여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A회사 코인, B회사 코인의 가치는 각각의 회사 영역에선 동등한 가치여도, 사회 영역으로 나오면 달라지는 거야.”

“아, 회사 안에서는 코인으로 무슨 학교 급식 마냥 너도나도 똑같은 밥을 먹고 커피를 제

공발된 회사 화폐가 회사 밖으로 가면 상황에 맞게 환전이 되는 거고요. 회사 밖에서는 화폐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는 식당 자체가 달라지는 식.”

“역시 바로 이해를 하는구나. 이 문제는 상하, 좌우, 전후 문제가 아니라 4차원, 안과 밖의 문제인 것 같아.”

“4차원……. 안과 밖이요……. 아! 이전 시간에 다뤘던 양자역학 비슷하네요.”

“양자역학. 수아야, 그게 맞긴 해? 너무 막 지르는 거 같은데?”

“모르겠으면, 그냥 맞다고 해요.”

“……. 노코멘트할 게. 아무튼, 언니는 이런 생각을 해.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흔히 사회주의를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는 선의 방향이지만 사회주의는 방향이 틀어진 거라고 봐. 하지만 이를 토대로 보면 사산주의 자체도 선의 방향이지만, 그 끝에 있는 개인주의 역시 방향이 틀어진 거지. 이런 것이 빈부격차, 우리나라의 자살률, 무책임한 기술 진보와 관계가 깊다고 봐.”

“그렇죠. 사회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죠. 그런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사산주의가 어떻게 자살률로 가는 거죠?”

“우선 공산주의부터 할게. 비유야. 눈이랑 귀 열고 집중해 봐.

사람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어. 이걸 달걀로 비유하자면 마당을 나온 병아리인 셈이지.

그런데 공산주의는 닭이 이미 먹이통의 9할을 혼자서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나머지 1할로 나머지 병아리가 다 나눠 먹으려다 보니 얼마나 못 크겠어, 그치?

반면에 사산주의는 병아리들이 닭의 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저 멀리 온실기로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의 달리기 속도에 맞게. 그런데 닭의 품과 온실기 숫자가 부족해.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닭의 품과 온실기 숫자는 많이 있어. 하지만 남은 온실기는 영 시답지 않고 닭의 품은 이미 닭이 비실거려서 비나 바람을 전혀 막아주질 못해.

게다가 어떤 병아리는 종이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닭의 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고 아늑한 온실기가 설치된 닭장 안에 닭의 품이지.”

“결국 이도저도 안 된 병아리들은 제대로 된 온실기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이겠네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기 시작하면 온실기에 들어간 병아리와 못 들어간 병아리의 격차가 벌어지고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메마른 병아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네요?”

“맞아. 그런데 그 닭장에 온실기 안 병아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왜요?”

“정신없이 좋은 온실기만 찾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왜 이 온실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거든. 그냥 덩치만 커가는 채로 자신이 어떤 닭이 되고 싶었는지 잊어버린 거야.”

“자멸이네요. 그게 화로 변질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혹은 아예 후대에 어떤 후폭풍을 생성할지 모르는 고민과 실험이 덜 된 기술을 내보이는 거고요.”

해은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의 손은 차가웠다. 따뜻한 해은의 손을 다잡은 수아는 해은의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어여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부러웠는데 해맑게 웃어 버리

니 수아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면 복지고 사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면 자아실현이라고 봐. 하지만 서로의 진영에서 서로 다른 주의를 등한시하다 보니 사산주의 내에서는 세금과 기부금, 투자금을 좀먹는 공무원과 복지센터가 생겨나는 거고, 공산주의 내에서는 그냥 국민의 자유는 무시하고 생존만, 살아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세상 모든 일엔 공과 사가 있는 법이죠. 역시, 둘의 이상적인 면을 합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과 밖의 경계를 가지고.”

“자본의 흐름을 안과 밖을 기준으로 나누는 체제에 걸맞은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말마따나 둘을 합친 새로운 사상 말이야.”

“Commuprism 어때요?”

“흠, 글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해은은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해은은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채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V’가 빠졌네. 요즘은 V가 대세잖니. 그럼, Commuprivism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공사산주의. 늘여서 공사유재산주의.

이러면 복지센터나 종교가 국가자금,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완전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부터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직업이 있는 이들도 자신의 능력 만큼 소비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흠…… 영어로 완전 수, 12글자네요. 그리고 한글로도 7이네요. 기분 좋네요.”

“수아야, 그 글자 가지고 그러는 거 다 의미 없다니까? 그럼 이 참에 수아도 12글자로 개명할래?”

“제가 개명해요? 뭐로 개명해요?”

“이수아이수아이수아이수아. 12글자.”

“언니, 그게 농담이에요? 이게 더 큰 일이네요.”

수아는 해은의 손을 슬며시 놓았다. 해은은 조금 헛기침했다.

“하지만 아무리 공사산주의여도 주의할 게 있지. 바로 농도야. 사실, 별거 없어. 사산에 힘을 줄지, 공산에 힘을 줄지 그거 조율만 잘하면 되겠지.”

“조율이요? 이해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기존에도 암묵적으로 다 공사산주의였었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정도?”

“맞아, 말 그대로 공사산주의는 그 ‘조율’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이념 정도지 실상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 게다가 이런 가치가 어떤 걸 창조할 진 모르겠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런데, 비슷한 이슈가 있더라고. 이런 조율하는 걸로 국가를 진짜 통치하는 부분에도…….”

“뭐죠? 말해주실 수 있나요?”

수아의 눈이 밝다. 괜히 말을 꺼냈다고 생각한 해은은 가슴 한쪽이 찌릿찌릿해진다. 결국

이걸 입 밖에 꺼낼 날이 오고야 말았으리라. 해은은 제발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여전히 날씨는 맑았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병리청, 삼위일체계, 전쟁의 견적서, 투표 방식 II: 관상 투표제

해은은 다시 한번 수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꼼지락거리며, 차가운 손을 주물러주었다. 수아는 해은의 말을 곱씹어보며 손아귀를 느껴보았다. 그래서 그냥 해은의 손을 그대로 두었다.

해은은 수아에게서 손을 떼며 태블릿을 껐다. 수아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 주었다. 수아는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해은은 태블릿 화면을 닫고 겨드랑이에 껐다.

“옛날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했었는데요. 그런 팬데믹 같은 것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려고요.”

과학기술은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애초에 과학기술이 좋았으니까 질병이 코로나처럼 생긴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바로 ‘질병청’. 정확히는 그 이름. 이런 네이밍을 보니까 진짜 과학·기술 말고 다 포기했다는 게 느껴져.”

“질병청이 왜요? 질병관리청 줄임말이잖아요.”

“줄여도 그렇게 줄이면 안 되지. 저거 네이밍한 정부, 그걸 또 가만히 두고 있는 정부 스스로 바보라고 광고하는 꼴이잖아.

질병을 뭐 만들게? 왜 ‘질병관리’라는 단어에서 딱 질병만 가져오는 거야. 뜻이 완전히 퇴색되잖아. ‘병리’라는 말이 있어. 질병을 관리한다. 추적한다. 실제로 저 기관은 병리 쪽이지. 그럼 줄여서 ‘병리청’이라고 해야지.”

“좋네요.”

“하, 클났네.”

“왜요?”

“이제 내가 단어나 말 틀리면 듣게 될 여러 잔소리들이 보이네.”

“그래도 전 언니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하하……. 수아가 내가 잘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부분은 짚어야겠다. 바로 정치. 아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난 우리나라의 정치 쪽에는 하는 일은 둘째치고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수·진보 말이야.”

“어떤 면에서요?”

“그냥 역사적으로 본 거야. 그들이 한 일. 그리고 추진할 일. 우리나라 보수당에서는 지금 ‘모범도로’를 얘기하고 있잖아.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

“네.”

“이전에 없는 도로를 깔겠다는 건 보수가 아니고 진보 아닐까? 아예 없던 시설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우선 병리청. 보건복지부의 보(保) 자는 보수(保守)에서 왔어. 그리고 봐봐 실패했

든 성공했든 손대려는 거. 집값, 보건 또 뭐했지? 아무튼 민생 쪽이잖아. 복지. 그게 보수 같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언니 눈에는 우리나라는 보수당에선 진보적인 일을 꾸리고 보수당에선 진보적인 일을 꾸린다고 보는 거네요.”

“아니, 더 심각해. 뭐 공약집 보니까 공약이 보수당에 있다가 진보당에도 있다가 널뛰기하는 게 보여. 여기 있던 게 저기 가 있고 그래. 즉, 이미 다 예산이나 건적은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 즉, 어느 당이든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보인다.”

해은은 실소를 지었다.

“재미없어졌어. 오히려 좋아. 딱 끊고 싶은 시기를 못 잡고 있었거든. 이참에 다 썰 풀게. 퇴보하는 거지. 실은 요즘 난 퇴보를 분석했거든.”

“퇴보요? 아, 아까 그래서 퇴보를 언급한 거죠?”

해은은 그냥 한번 웃었다. 그저 이런 걸 봐버리는 자신의 눈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큰 스포츠 경기장 같은 거 열면 요즘 행사 다 하고 철거시키더라? 그래, 경기장을 더 발전시키거나 유지 보수하는 게 철거하는 것보다 더 든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 내가 퇴보 언급한다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퇴보해야 한다고 얘기하게? 신석기 시대까지 가보게? 여기서 말하는 퇴보는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최대화되는 일정 지점, 공간, 시간을 지정하고 상품 따위를 되돌리는 거야.

즉,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철거를 생각하고 짓는 거지. 그걸 설계 후 철거를 실현하는 게 요즘 트렌드 기술이고 그게 더 경제적이고. 답답하다. 앞으로 이거 퇴보, 이해당 활용 못 하면 그 돈이란 거 많이 못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 적어도 난 그렇게 보여.”

“그럼, 언니가 말한 가치를 재산에 적용해 보면…….”

“굳이 하자면 돈 쪽에서는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내 몸뚱이를 소모 시켜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말 그대로 몸을 쓰는 것. 몸이나 정신력을 일부 철거시키는 행위지.

그런데 이런 건 재산보다 정치 쪽에서 더 어울린다고 봐. 진보, 보수 쪽 말이야. 그런데 아예 철거시키는 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것이. 그냥 퇴보당 하나가 더 필요한 셈이지.”

“어우…….”

“거기에 뭐, 인공지능을 앓힐지 욕반이를 앓힐지는 국민 몫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지식인 투표제’랑도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 둘 다 어느 정도의 퇴보성을 가지고 있지. 만약 시행한다면,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겠다.”

“즉, 투표제 자체를 퇴보시킬 것이냐, 아예, 퇴보를 보는 전문 기관을 만들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일단, 왜 이런 퇴보가 언급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만약 전자라면, 투표라는 것을 다 뜯어고쳐야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 업데이트 개념이니깐. 그 업데이트로 인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면, 어디서 버그 났는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같은 퇴보인데 차마 이게 내 머리에서 안 떠오른 게 다행이야. 여튼, 확실한 건 후자, 이건 뜯어고칠 필요가 없지. 아예 다른 객체가 형성되는 거니까. 이건 업데



이트 개념도 아니야.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거야. 즉, 그 집단이 잘못되어도 그 집단만 해산하면 그만이야. 여기에, 그 틀. 보수와 진보 그리고 퇴보까지 함께 있는 이 형태. 그 윤곽에 대해선 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네. ‘삼위일체계.’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더 말해둘게.

내가 퇴보를 언급했다고 해서 퇴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야. 봐봐, 경기장 철거시키는 거 다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잖아. 난 한 게 없어. 그저 보이는 걸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말했잖아. 난 이상형이 없다고. 이전에 무슨 면허체계, 광차. 면허체계는 보수적인 거고, 광차는 진보적인 건데 그럼, 그것들을 언급한 난 대체 어디를 지지하겠어.

다 포기했어. 다만, 다른 이들의 선택에 내 삶을 맡기는 거야. 진짜 선수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확실히 할 거. 난 여태 ‘우리나라’라고 했지, 어떤 국가의 명칭을 지칭하진 않았어. 난 그 국가라는 것도 이제 빌려 사는 거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눌러살게 해줘서 감사할 따름이야. 하지만 떠나라면 떠나야지. 언제까지나 빌려 사는 거니까.”

수아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웃었다.

“웃겨요.”

“맞아, 웃겨. 어차피 전부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쯤 언급했으니 마지막 스케치를 해야지. 바로 ‘국가’야. 이 정도 건적이면, 거진 모든 나라를 연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정치체계가 상극이라도.”

“그게 가능해지긴 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 ‘이론’이란 게 언니가 봤을 땐 어디까지나 ‘환상’의 개념이거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조건이 붙지. 바로 연합을 시도하려는 국가가 스스로 연합이 되어있는지 묻고 싶어.”

“무슨 말이죠?”

“사실 최종 결론 전에 한번 정리하자면 내 눈에는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 ‘국민’의 범위가 딱 수뇌부 영역까지만 하는 데가 있긴 해서 문제지, 엄연히 간판에는 민주주의가 걸려있긴 하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민주주의로 연합 진입점을 쓰긴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사산체계에 삼위일체계라는 밑그림을 그려본 거고. 조건은 국가를 형성하는 수장부터 단체가 정말 연합을 원하는지부터 따지라는 거지. 자칫 선불리 시도했다간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야.”

“연합 혹은 분열……. 이건 진짜 전쟁이겠네요.”

“글쎄, 전쟁 그거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드론들을 봐봐. 난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바로 저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조용히 다가가서 죽이면 되니까. 반대로 핵폭탄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해야겠지. 단점은 그 일대를 당분간 못 쓴다는 거야.

가정해 봐. 핵은 무조건 수도 중심으로 날릴 거야. 그런데, 예로부터 수도는 거진 국가 공통점인데, 대부분이 비옥한 땅에 세워졌어. 거기에 날리면 당연히 그 일대를 당분간 못 쓰는 거야. 즉, 정복해도 영토를 수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기지. 하지만, 드론은 달라. 잘 생각해 봐. 국가는 건물이나 인프라가 메인이 아니야. 그 점을 공격하는 거야.”

“국가는 사람이 메인이죠……. 그런데 드론으로 쏘쪽 그 사람들만 죽이겠다는 거네요. 즉,

유령도시를 만들겠단 거네요.”

“바로 그거야. 빈 도시를 만들겠다. 인프라가 아깝잖아. 가져와야지. 난 전쟁할 거면, 이런 견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수장이든, 일개 병사든.”

“언니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이 세계 어딘가에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미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하……. 실은 군대 관련 시트콤을 봤거든. 거기서 ‘전투준비태세’라고 나오더라고. 전쟁이 터지면 군인이 해야 할 행동강령. 즉, 군대라는 조직의 기본 자세겠지. 거기에 지금 드론 대처 자세가 있을까? 내가 최근에 봤던 건 핵폭탄까지밖에 없었거든. 인터넷 한번 찾아볼까?”

“IT 관련해서 군인들의 업데이트가 안 되었으면…….”

“그래, 생활관에서 IT 기기 만진다고 좋아할 게 아닐 수도 있다. 아휴, 됐어. 찾아보기 귀찮아.”

“그럼, 언니는 그런 무기를 어떻게 방어할 건데요? 언니가 떠올린 거 같아요. 그 견적.”

해은은 잠시 아픈 머리를 쉬게 했다. 물론 답은 있는데, 말하려면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

“먼지를 뿌리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떤 쇠구슬 같은 아주 작은 전도체들을 뿌리는 거지. 쇼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아마 이 방식은 드론뿐 아니라 전자 베이스의 무기면 다 해당 될 수도 있겠네? 간단히 막을 형성하는 거야. 스스로 고장나라고. 여튼, 네 질문인 ‘드론 공격’을 막긴 하잖아? 이런 거 보급해서 전투준비태세 발생하면, 서둘러서 하늘에다가 막 형성하려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게 군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비슷한 설계 및 보급, 무기, 훈련이 없는 한……. 글썄, 난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 이것도 어쨌면 또 하나의 비대칭 전력일 수 있어. 일방적인 학살이란 애기지.”

“그런데 파고들 이음새가 없으면요?”

해은은 웃었다.

“그 작은 먼지조차도 들어갈 구멍이 없다? 움직이는 날개가 있고 가동되는 추진기가 있는데, 이음새가 없다? 틈새가 없다? 로켓 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로켓도 시끄러워. 아, 모르겠다. 난 그 문제 안 풀래. 실은 나도 무서워.”

“언니는 이번 대선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언니는 좀 궁금하네요.”

수아가 흘리가듯 말했다. 해은은 그 흐름에 그대로 답했다.

“관상을 볼 거야.”

“…….”

“난 이 나라는 그냥 이렇게 이해했거든. 대선 주자들 보면, 어느 지역, 어느 당에 꼭 소속되어서 뽑힌 것만 같아. 능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아닌 온갖 연을 들어 수장을 뽑는 현실. 수장을 그렇게 뽑는데, 뭐, 나머진 볼 필요도 없겠지. 아무튼 난 후보의 그 ‘연’을 평가할 거야. 그러면 관상인 거 같거든.”

“좀 더 설명해 봐요. 아직 부족해요.”

“얼굴과 어울리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 ‘혈연’이란 것부터 좋지 않겠어? 그 가정이란 집단에서 생성된 애 얼굴부터 해서 글을 어느 정도 아는 집단이란 거잖아. 그리고……. 그 지식인이라는 영역부터 이 관상이라는 영역까지 다 포함해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나름 한 건데 맞나 모르겠네. 아니면…….”

“아니면 말 게 아니라 또 공부해야죠. 뭐, 그리고 ‘연’이 그 ‘연’이군요. 완전 옛날 방식.”

“이런 거 보면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글을 쓸 때, 이 인물이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런 인물들이 있어. 보통 그 인물이 주인공이 되지. 그걸 국가에 적용하는 거야. 이 인물이 국가의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난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게 있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답을 제출하는 집단이 반으로 나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둘 중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집단이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찍는 거지. 그러니 반반으로 나뉘지.”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엉터리겠네요. 무조건 풀어야 하는 상황에선 찍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얼굴이라도 보고 뽑는 관상 투표가 더 낫겠네요.”

“정말 네가 하는 말대로라면, 그 정도라면, 문제 푸는 사람들 진짜 착한 거야. 나 같은 시험지 찢어버리겠다, 그냥.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 경제, 복지, 발전. 너무 한 가지만 집중 안 했으면 좋겠고, 탄생각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론 나라가 정말 작긴 작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하나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선택해도 혹은 연 자체를 보아도, 생각보다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

어찌 됐든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딘가에선 날 죽도록 싫어할 테고, 미치도록 좋아할 테니까. 부디 내가 받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왜냐면, 또 난 다른 답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왜, 답을 또 생각해야 하나요?”

“문제가 계속 변하니까.”

해은이 느끼기엔 지금 불어오는 이 바람은 먼지바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인 것 같았다. 해은은 바람에 자신을 맡겨 보았다.

세 번째 잔. 아리슬의 눈. 완전난수, 회복, 아리슬, 바둑·체스 업데이트, 정의의 상대성 이론

해은과 수아는 한바탕 전쟁 아닌 전투를 치르고 교실로 향했다. 반복되는 플롯에 지친 해은은 눈이 반쯤 감겼다.

“그런데 찼찼한 게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설계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진 않겠죠?”

해은은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모두 승리하거나 모두 패배하는 걸 원하겠어? 방금 깔끔하게 만든 건 어디까지나 승부의 영역이지, 네가 말하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무너지지. 그래도 나올 거야.”

“어떤 점에서요? 뭐가요?”

“거꾸로 가보자. 우리가 만들었던 것. 국가연합? 우린 수많은 애국자와 매국자를 봤는데, 펍이나 믿음직하겠다.”

“역시 매국자들이 문제겠지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매국의 핵심이지.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다음에 배신이든, 학살이든 오는 거고. 애국은 그 반대겠지 뭐. 내 말의 핵심은 애국, 매국이 아니야. 그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는 건 비슷하다는 거지. 사기 치는 거 똑같아.”

“사기를 쳐요?”

교실에 도착한 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반 학생들과 선생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그냥 내 생각이야. 기업 간 코인은 전자화폐 쓰면 딱인데, 실상은 한 기업의 화폐가치가 높으면 횡령하고 난리 날 거 같고, 유전자조작이란 것도 실은 아이 안 낳는 선에선 실행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뒤로는 아이 낳아버리고.”

“그럼, 아예 의미 없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는 거지 정의는 잘못 없지. 그래도 정의가 있으니 적어도 그 짓거리가 잘못됐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옛날을 생각해 봐. ‘강간’과 같은 범죄가 정의되지 않았을 아주 원시 시절. 아휴, 아무튼, 그건 남이사고 알 바 아니야. 그냥 난 이런저런 공부하다 보니 얘기하게 됐네.”

“대체 무슨 공부를 했길래요?”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기는 법.”

해은은 책가방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넣었다. 그것도 무거워 들고 다니지 않으려 했지만, 은영에게 혼나고 나서부터 다시 들고 다닌다. 한번은 벨리인 한설에게 심부름시켰지만, 그것 역시 은영이 혼냈었다.

“성공했어요?”

“하나는 발견했지. 근데 하기는 싫어. 질 거 같아.”

“이긴다면서요. 질 거 같단요? 아니, 발견한 게 뭔데요?”

“완전난수. 그냥, 아무도 이해 못 하는 수. 쉽게 바둑으로 치면 막 두는 거지. 이걸 해킹과도 관련된 말이니까.”

“그렇군요. 애초에 게임에 대한 승부는 관심 없고 기계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두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만약 그 기계가 맛이 가는 순간 승패가 어떻든 선수가 이기는 거지. 의미 없는 연산식. 상대가 인공지능이야. 기계라고. 기계가 누굴 닮겠어? 그냥 쓰레기 데이터는 쓰레기 값 그대로, 의미 없는 식은 의미 없는 수식 그대로 연산이 시작될 거야.”

“정의가 없는 영역으로 간다. 그런 점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네요. 언니가

하는 말은 ‘바둑을 통한 컴퓨터 해킹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더 심하면…… 묻지마 범죄도 언급될 수 있고요.”

“맞아, 우리가 만든 정치체계? 자본구조? 만들어도 다 그렇게 쓸 거라고. 사건·사고? 그거 다 못 막아. 그런데 그걸 사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해.”

“뭔데요?”

“예의. 아니, 누가 바둑판 위에 그렇게 예의 없이 막 두나? 그거 혼날 짓이야. 일단 이 언니 눈에는 그런 완전난수 자체가 ‘정식 승부’는 아니거든. 그래서 난 애초에 그런 경우들을 네가 ‘깔끔하다’ 했을 때 동의한 거야.”

해은은 책가방 지퍼를 다 닫았다.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수아는 책상에 앉아 책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담고 있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아무래도 하고 때라 힘이 별로 없네요.”

“그것도 네 잘못 아니야. 주입식 교육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회복실’ 같은 게 있어야 말이지. 다 욕심이야. 생각해 봐. 내시경을 같은 걸 해도 회복실이 존재하는데 말이지.”

“이게 다 시대 잘못 태어난 우리 팔자죠. 언니는 근데 바둑에 관심 많네요?”

“최근에 그 게임 두 개도 나만의 업데이트 좀 시켜봤거든.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해은은 다시 책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툭툭 두드렸다. 수아는 팬스레 해은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해은은 그냥 시간을 본 것뿐이었다.

“체스는 Ban-Pick 구도를 형성해 보는 것. 바둑은 회색지대. 말 그대로 중립지대야. 그 중립 둘을 없애려면 나의 수 하나를 소모 시키는 형태지. 이게 다야. 별거 없지? 뭐, 애초에 게임이 별거 없긴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까 완전난수도 괜히 나온 건 아니었네요.”

“체스 쪽은 벤픽이 적용되면 ‘왕자’와 ‘공주’ 같은 말도 추가해야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별별 생각을 다 했네요. 흥미롭긴 하네요.”

“이 언니는 아리슬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 컨셉은 진수성찬에 어울리는 강한 술. 말 그대로 다 차려냈으니 먹고 마셔서…… 취하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언니는 이런저런 역사에, 과학, 기술, 종교, 예술, 체육, 오마주 등 언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거야. 왜냐면……. 왜냐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거든.”

“그런데 왜 하필 아리슬이예요?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글이겠네요.”

아리슬은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힌 메카톤급 가을 태풍이며, 동시에 도수 높은 소주 이름이다. 아리슬은 붉은색 뚜껑에 푸른색 유리병을 하고 있다.

또한 처음 작명할 때 꽤 고민하였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아리슬이라는 언어 자체가 해당 시기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만족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 별수 없이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에게 발음할 수 있도록 시킨 것이다.

개발자가 선정한 5개의 인공지능 번역기들로 한글 ‘아리슬’을 각각 ‘ARYSLE’, ‘ARISLE’,

‘ARISEUL’의 영단어 후보군들을 주려 하나씩 읽혔는데 위와 같은 결과를 배출한 것이다.

이 중, 인공지능 번역기들이 ‘ARYSLE’과 ‘ARISLE’이 동등한 비율로 원하는 발음을 해준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ARYSLE이 채택되었는데, 이유는 원어가 되는 ARI, SRI에서 SRI의 R 발음이 L로 대체되었기에 동등하게 ARI쪽에서도 I를 Y를 치환하는 게 공평하다 판단 해 최종적으로 앞과 뒤에 존재하는 모음과 자음을 한 글자씩 바꾼 ARYSLE로 영단어가 최종 결정되었다.

아리슬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대기가 하나로 되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다. 아리슬은 첫 발생지가 태평양이었고 하나가 된 대기에서 발생한 태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풍속이 측정되었다.

그대로 복상한 덩치 큰 아리슬은 다수 국가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수백만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나왔다. 더하여 내 여러 마천루와 건물들이 엇가락 휘듯이 무너지고 말았으며, 이에 대한 2차 피해도 상당해 피해복구에 유래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는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이유는 아리슬의 크기가 한 대륙만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세계에선 슈퍼 태풍이란 말이 민망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 메가톤급 태풍을 지칭하는 단어를 따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제출하였다.

이에 한 국가가 가장 강한 도수를 가진 소주의 이름, 아리슬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풍의 명칭을 'ARYSLE'이라 지었고 이름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연구원들이 조금 더 손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 맞춘 단어로 제출한다.

이에 아리슬 1호는 태평양에서 발생했으며 이름은 ‘사죄, APOLOGY’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음을 포함한 총 4번의 아리슬이 일어났으며 각각 2호는 ‘형상, FIGURATION’, 3호는 ‘시험, TEMPTATION’, 4호는 ‘현실, ACTUALITY’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아리슬의 출현을 보고 ‘신께서 이제 바람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꺼내기도 한다.

과학계에서는 아리슬의 발생을 인간의 기술 발전 구조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선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친환경기술 역시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해당되었고, 무리한 친환경기술의 전환과 인공지능로봇의 발달로 결과적으로 친환경기술의 결실로는 막을 수 없는 지구의 대기가 하나로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내로라하는 백만장자들은 아예 지구를 버리기로 하였으나, 결국 첨단우주기술 역시 환경을 파괴해야만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백만장자가 아닌 이들의 온갖 폭동과 사건에 휘말려 무산되었다.

아리슬 4호 이후 1호 이전의 인구수 대비 약 50%~80%가량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대로 된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워낙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탓에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계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류는 1호 아리슬 이후부터 꾸준히 무역망과 인터넷, 치안과 법과 제도를 강화하며

각 국가 사정에 따라 시민의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는 살아남은 시민이 너무 없는 탓에 이미 망국의 길을 밟았다.

이러한 현실은 해은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현 수도권 고등학교인 미리내고 학생 수가 전학을 간 대현을 제외한 단 6명인 것 자체가 지금 사회의 현주소라는 것을 피해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류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 5차 아리슬이 발달할 경우엔 남은 현 인류의 50% 이상(이는 1호 이전 대비 약 90%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다.)이 사망 및 실종이 될 것이라 경고했고, 그 이후에도 아리슬이 계속해서 발달할 경우에는 인류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출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 내가 아리슬을 다룬다는 것. 아마 우리 수아처럼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쁘겠지. 거기에 심지어 나도 기분 나빠. ……”

“……. 유전학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 문학작품만 봐도 아이는 그 애미, 애비를 닮듯이 작품이 작가를 닮았죠. 하지만 저는 언니가 대체 무슨 글을 쓰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언니의 말대로라면 글 제목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쪽으로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언니는 그런데 ‘아리슬’이라고 했어요. 다 쓸어버리는 것. 분명히 이런 현실을 제목으로 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 문제가 안 끝나니까……. 아리슬 쓰다 깨달은 게 있어.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 애초에 그 ‘정의’라는 게 변해. 상대적이야.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의가 변해. 주기는 시대 단위일 수 있어도 그 역사가 변하는 시점에는 정의가 미친 듯이 변하더라고. 그러니, 딸린 답도 계속 변하겠지. 그러니 애초부터 딱 하나의 답이 생길 수가 없는 거 같아.”

“하지만, 점점 진리라는 부분으로 보면 오차율이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JUSTICE 쪽이나, DEFINITION 쪽이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은의 눈은 공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아는 그 생기가 도는 해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문제가 형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이미 해당 문제의 반은 풀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착각했네요. 언니는 아리슬로 쓸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화하고 싶으셨군요. 아주 맑게.”

##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하교, 적색신호, 전자원단, 전자신문관리원

해은은 교문을 나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문 바로 옆에서 민애와 예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은이 다가갔으나 워낙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본 체도 하지 않는다.

“하하, 정신이 없네, 다들. 나 왔어.”

“응,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뭐 먹을래?”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었어?”

“해은아, 그런 폐지를 왜 또 먹니.”

“시내로 갈까? 여긴 먹을 게 없어 사실. 민애 언니 말처럼 폐지잖아.”

해은은 예서와 민애를 따라 걷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은은 갑자기 그 ‘논다’는 것이 걱정됐다. 예서가 시무룩해진 해은의 얼굴을 보았다. 예서가 갑자기 해은의 팔짱을 꼈다.

“우리 친하잖아. 우리가 한 톱 낸다니까? 수아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

“수아? 야, 너희들 정우랑은 안 친해? 아니면 개네랑 놀면 되잖아. 왜 굳이…….”

“너랑 수아 같은 애들이랑 같이 지내냐고? …… 일단, 여자니까. 나도 여자고 수아랑 너도 여자고. 정우는 남자고. 남자인데다가 맘에 하나도 안 들고. 재수 없고. 난 재수 있고.”

민애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예서는 그래도 시무룩한 해은을 지긋이 보다가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내려 하였다. 해은은 예서의 손길을 피했지만 익살스러운 웃음을 짓는 예서에 그냥 놔두기로 하였다.

“그래도 너희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왜? 아니, 해은아.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멀쩡한 친구를 못 찾겠어서 그래.”

방금 말한 정우도 해은의 눈에는 사람이었다.

“우리 해은이 벨리 이름까지 나눌 생각은 없긴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데 난 너무 답답하더라고. 병신 같아서 이 현실이. 아, 빨리 성인 찍고 인터넷 열른 하고 싶다.”

“그건 맞지.”

해은과 예서는 민애의 말에 수긍하였다.

해은은 은영이 하던 인터넷 온라인 채팅을 잠깐 엿보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원거리 친구 어플 덕에 채팅과 사진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채팅 옆에 매 초록색이 붙어있었는데 가끔씩 빨간불 채팅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은영은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인공지능 신호등은 욕설이나 비방 및 음란물 등을 감지하여 빨간 신호를 채팅에 붙여준다. 하지만 거기까지의 역할이며 그 점멸된 신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몫이다.

특히, 채팅이나 댓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채팅의 수위 여부를 확인해준다. 사용자는 엔터나 작성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자신 의사가 담긴 글들이 어떤 수위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나 대형 쇼핑몰의 구매 후기(쇼핑물 자체는 비회원 등으로 일반인 역시 사용 가능하나 구매 후기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가 있기에 로그인해야 남길 수 있다.),

각종 문화, 언론 댓글 등에는 많은 이들이 보기에, 인공지능이 빨간 신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사건을 감지하여 해당 채팅의 이력을 사이버 수사대에 전달한다. 웬만하면 접속자 혹은 조회수가 100명만 넘어가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댓글과 자료, 채팅을 남겨야 한다.

또한 미리 명시한 여러 사이트 주의사항에는 성격에 맞지 않는 채팅(연애인 사이트에서 정치 섹션 글을 남기는 행위, 스포츠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등)을 작성할 시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위와 같은 사항에는 신고 접수 시 사이버 수사대가 사이트 성격과 댓글의 성격을 파악하여 처벌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소규모 채팅(50인 이하 채팅방)은 소위 방장이 인공지능 신호등이 황색일 때의 단속 여부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역시 적색신호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벗어난 채팅이 작성될 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채팅 신고는 인공지능 신호등이 청색일 때도 할 수 있는데, 사이버 수사대는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채팅의 로그를 먼저 확인하고 채팅방 내부의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남긴 채팅과 댓글 등에 청색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타인을 비방 및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아이디를 쓴 당사자는 처벌된다.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사용은 타인이 할 수 있다. 국가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하는 행위는 그저 인터넷이란 도로에 아이디라는 차를 끌고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줄 수는 있게 된다. 또한 어떤 한 개인이 접속만 자신의 아이디로 해주고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디 바꿔치기를 악용한 범죄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이디 바꿔치기 범죄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지문이 인식되는 키보드와 마우스 등 다양한 입력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시내로 가는 버스가 도착하였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탔다. 시내로 가는 버스에는 사람들

이 제법 타고 있어서 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자리를 민애와 예서는 해은에게 양보하였다.

“부담 갖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은 뭔데?”

“네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아이, 왜 그래. 해은 언니는 최근에 뭐 맛있는 거 먹은 적 있어?”

“나 글썸. 어제 샤브샤브?”

민애는 놀란 눈으로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두 사람이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 언니 부자라니까, 은근. 언냐, 월남쌈 먹었대잖아. 요번에 오픈한 거기 말하는 거지? 거기 맛있긴 했어, 나도. 아이, 무엇보다 보는 맛이 있었어. 막 조명이 난리였던 걸로 기억해.”

“그 사장님이 꽤 부자였던 걸로 아는데. 그런 취미를 가진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민애 언니는 참. 그 정도 QUALITY면 꽤 쓴 거 맞지.”

“워, 이게 뭐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마법신문인가?”

“해은이 신문 안 봐? 의외네. 그 봐봐. 재밌어.”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얇은 디스플레이 개발을 이어 나가다 결국, 마치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종이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신소재공학이 되었으며, 이는 산업 전반계를 뒤흔들었다.

이유는 이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비단 종이신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가방, 우산, 자동차 외형, 스마트폰 뒷면, 만화책 등 하다못해 티셔츠에까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 디스플레이를 전자원단이라 부른다.

한 디자이너는 이 최첨단 원단에 대해 ‘원래는 한 가지 맛만 냈는데 이제는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사용자는 원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인트라넷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 실제로 우산이나 자동차 외형에 최신 게임이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을 위한 업체가 따로 생겨날 정도다. 각각의 상품 자체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다.

단, 너무 시각을 자극하는 색상 및 디자인,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디자인, 음란한 디자인은 국가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 업체에서는 이를 잘 챙기는 편이지만 문제는 개인이 직접 디자인할 경우 허용되지 못하는 색상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엄연히 디스플레이를 하는 행위 역시 ‘자신 의사를 표출’하는 것에 속하기에 인공지능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에만, 디자인을 표출해도 되는 식으로 법안이 수정되고 있다.

해당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업체는 최근 대롱대롱 전지를 달고 다니는 무거운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닌 제품 자체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가벼운 배터리 충전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박막 태양전지를 얇게 할 수 있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치원단을 군사목적으로 쓰기 위해 디지털 전투복을 연구 중이다.

최근에는 적정 수준의 디스플레이의 지식만 가지면 취업이 되는 ‘전자신문관리원’이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났다. 먼허체계와 데이터 사용료의 존재로 인해 신뢰성 높은 기사 내용들이 모두 유료화가 되면서 여러 신문사는 자신들의 기사 내용을 전자원단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 및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신문은 종이에 인쇄되는 신문에 비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높다 보니 보통 비교적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된다. 전자신문서비스는 신문을 구독할 시 예약한 시간만큼 전자신문이 구동되다가 시간이 다 될 경우 더 구동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금액을 소액 더 지급하여 중요 이슈들을 더 읽어볼 수는 있다.) 사용자는 다 읽은 신문을 사랑방에 설치된 사랑실에 다시 전자신문을 넣어 최종적으로 관리원이 약속시간에 전자신문을 회수한다.

관리원은 보통 너무 심하게 전자신문이 훼손되어있다면 우선 사용자와 전자신문 업체와의 연결을 중재한다. 해당 제품은 연결된 디스플레이 업체에 맡기거나 폐기처분을 한다. 단, 폐기 처분 역시 국가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불법 전자원단 생산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현재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적합검사를 실시해 일정 예상 수명을 채워 시중에 판매되도록 법이 집행 중이다.

전자신문 서비스는 최대한 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랑방의 존재로 인해 스마트하우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이다.

스마트하우스 거주자는 대부분의 제품이나 생활 자체를 서비스로 대체하는 성향을 가지기에 전자신문 역시 ‘전자신문을 따로 구매해 집 안에서 관리하는 것조차도 집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직, 모든 집이 스마트하우스로 넘어오지 않았기에 여전히 종이신문을 인쇄하는 업체도 많다.

시내는 해은이 어렸을 때 몇 번쯤은 가본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학업으로 인해 생각조차 못 할 뿐더러 젊긴 젊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논다’는 것에 둔감해졌다.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질수록 놀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지하도시, 펜타타워, 인간과 로봇의 사건

해은은 수아와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너무 심각했던 것을 신문에서 찾았다. 해은의 표정이 심하게 구겨진다.

“해은아, 왜 그래? 뭐 보고 있어?”

“흠…… ‘유전자 가위로 좋은 것만 물려주면 누군가는 나쁜 것만 물려받지 않을까?’라네.”

“그럼, 유전자 바위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

해은의 미간이 풀리고 눈이 축 처졌다. 눈을 게슴츠레 뜨며 예서를 흘깃 보았다. 예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

예서는 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흘러들은 질문에 대충 답을 하였다. 이걸 어찌 답해야할지 찢찢매던 해은은 마침 구동이 종료된 전자신문을 보았다.

“어? 꺼졌다. 히히,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 언니?”

예서는 해은의 옆구리를 찔렀다. 해은은 꿈틀거리며 신문을 조용히 제자리에 두었다. 민애는 잠시 예서를 떼어내기로 했다.

“어…… 글썄, 우리 파스타나 먹을까? 어때?”

“예서야, 이거 다 됐는데 어떡하지?”

“계속 볼 거야? 결제해줄게.”

“아니, 재밌는 게 없어. 반납할게.”

예서는 어떻게 신문을 종료하는지 모르는 해은에게 친절히 설명해준 후 전자신문을 반납하는 곳을 알려주었다.

“언니는 대체 어디 시대 사람이야? 전자신문도 못 끄는 게 말이 돼?”

“아니, 그야…….”

“애들아? 파, 스, 타 어때?”

민애는 해은과 예서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었다. 해은은 기겁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예서가 말을 더듬으며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조, 좋은 거 같아. 역시 언니는 먹는 거 잘 골라. 하하, 아! 해은 언니는?”

“……. 나야 좋지. 맛만 있다면야. 악!”

민애는 다시 한번 해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민애가 추천해주는 게 당연히 맛있겠지, 하하.”

해은은 손잡이를 잡으며 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보니 민애 언니, 술 가는 거야?”

“넌 파스타랑 술을 같이 먹냐?”

“민애는 술 좋아해? 그런데 술, 먹어도 돼?”

“아, 아니, 술은 이 언니만. 이 언니만 잘 마셔. 영영, 난 못 마셔. 그리고 보통 ‘술파티’라 하면 이 언니만 줄창 마셔.”

“야, 둘이 닥쳐.”

단정한 교복을 입은 민애는 조용한 버스 내에서 실제 본인 얘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못내 신경 쓰였나 보다. 버스는 어느덧 시내에 꽤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내 외곽에 들어서니 인도 위가 전부 미세먼지 그늘막 처리가 되어있었다. 해은이 기억하는 것은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이젠 제대로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인도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목적지 ‘마천루’들이 우뚝 서 있고 그 중 팬타타워가 있었다. 그리고 그 큰 것이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버스는 지하로 향했다.

“뭐야?”

“뭐긴 뭐야. 시내 다 와 가는 거지.”

“이 언니 모르네. 땅 팠잖아. 언더-웨이 프로젝트는 들어봤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거야.”

해은도 알고 있었다. 정부는 벨루와의 논의 끝에 미세먼지 폭풍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승인절차를 내렸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던 해당 소식은 은영조차 멀쩡한 땅을 헤집는다면서 이 소식에 대해 굉장히 언성을 높였었다.

하지만 이미 삽을 뜬 이상 뭐라도 파내어야 하였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금 해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해은은 왜 자신이 사는 동네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였지만 입 밖에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민애가 안내한 정류장에 내렸다. 지하 공기는 생각보다 신선하였다. 거리를 둘러본 해은은 지상에서의 상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았다. 그저 하늘 천장에 뚜껑이 있는 것일 뿐이었다. 해은은 ‘지하도시’라는 말에 음침하고 빛이 겨우 새어 들어오며, 손전등 하나 지참하고 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백화점으로 들어서자 유명 브랜드의 옷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행여 옷깃이라도 닿을까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민애와 예서는 닿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건물은 80층으로 되어있었고 민애는 61층을 눌렀다.

“무슨 파스타 집이 61층에 있는 거야? 어디 들렀다 가는 거야?”

“아무리 파스타여도 운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먹는 맛이 나지.”

예서의 말에 해은은 고개가 갸우뚱하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속으로 상승하였다. 예서와 민애는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달라지는 기압을 느꼈다. 해은은 인상을 찌푸리고 예서의 말을 이해하는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그새 61층에 도착하였다.

61층은 지상이라 해도 믿을 만큼 광장이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고개를 올려다보았다. 가운데가 뽕 뚫린 채 층마다 샹들리에가 매달려있었다. 어찌면 61층이 이 빌딩

의 중심부이자 라운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해. 그렇게 처음 온 거 티 내지 말고.”

해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실제로 조금 찢린 면이 있긴 하다. 민애는 예서의 팔목을 꼭 잡고 최대한 일그러뜨렸다. 예서는 끝끝내 버티다 민애에게 사과하였다. 해은은 둘을 따라 조용히 파스타 집으로 향했다.

파스타 카운터에는 직원들이 인사를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가게 안에는 많은 직원이 여기저기 서빙하고 다녔다. 해은은 한 매장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 것을 거의 처음 혹은 꽤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다. 민애는 미리 얘기해둔 창가 쪽으로 예서와 해은을 인도해주었다.

“이번에는 네가 사는 거다. 예서?”

“어? 생각해 보고.”

예서는 입을 건방지게 놀리며 민애를 올려다보았다. 해은이 둘의 신경전을 뒤로 하고 입을 열었다.

“그런데 대단하네.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는데.”

“응? 무슨 소리야? 뭘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직원들 로봇이 너무 사람 같아서 말이야.”

“어?”

민애와 예서는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또 졸지에 개그맨 처지가 되어버렸다.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야. 그렇다고 여기 종업원들 아무나 안 뽑아. 어느 정도 스펙은 되어야 한다고. 하다하다 요즘은 대학에서 전공 수업으로 ‘서빙’이 있다니까, 글썸.”

해은은 이곳 종업원이 되려면 최소 명문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최소 그 정도는 되어야 소위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여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해은은 속으로는 기겁하였지만, 일단 종업원이 가져다준 물을 한 모금 마시기로 하였다.

“아니, 사람을 왜 쓴데?”

“이 집은 서빙을 사람으로 쓰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장사 안 하겠데. 그리고 서빙 로봇에 된통 데였대.”

저번에 로봇이 아이랑 부딪히면서 옆 손님한테 파스타 쏟았거든. 윤리인지 머시긴지 이상하게 작동한 거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할 거냐, 손님한테 쏟을 거냐.’에서 강 후자를 선택해 버린 거야. 그런데 그만 회사에서 데이터 공개를 일단 잘 안 했고 결국에 했어도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슬쩍 기사 찾아봤었는데 아주 아웅다웅 이더라고. 데이터가 명확히 기록되면 뭐 해. 돈 때

문에 중간에 사람이 왜곡해버리는 건 똑같은데. 결국 단골은 단골대로 빠져나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랬어. 그때 이후로 서빙 사람 쓰더라고. 사장이 사람 쓰는 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

“아, 뭐 그런 일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거 내 생각엔 애 엄마 잘못 같은데.”

“맞아, 로봇 충돌 측정값이 딱 아이 부딪힌 거였거든. 그래서 애 엄마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애 엄마가 제대로 된 코딩분석업체 불러서 확인해보니까 다 드러나더라.

글쎄, 그 서빙 로봇이 해킹당했었데. 가게 안 누군가가 로봇 해킹해서 다리 쪽에 딱 그 아이 부딪힐 정도의 충격값을 입힌 거지. 업체 쪽은 그런 줄도 모르고 데이터 분석 안 돼서 찢절했던 거고. 근데 더 놀랄 노는 이 일을 일으킨 주동자가 맞은편 가게라는 거야. 뭐, 심증이지만.”

“소름이다. 아, 벨리가 아니니까 해킹이 쉬웠던 거구나.”

“벨리? 언니는 벨리는 믿나 봐? 난 안 믿어. 결국 사고 나면 데이터 가진 쪽이 유리하다니까? 내 말 믿어 봐.”

“나도 옛날 자료 찾아보긴 했었어. 그런데 소위 엘리트라고 모인 옛날 대기업 같은 데에서 글쎄 개인정보가 수천만 건씩 나갔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수천만.”

인터넷 면허체계가 시행되는 현시점에서는 개인정보는 ‘국민의 생명’처럼 다룬다. 개인의 사생활 및 모든 인적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에 이것이 손상되면 인프라넷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사이버수사대 뿐 아니라 인터넷협회의 인력도 동원돼 사건을 수사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해킹이나 인프라넷 해킹은 국가적 테러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인프라넷에서만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그 사이트가 해킹될 경우 테러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한 표 건다. 이거 벨리 언젠가 한 번 뚫린다.”

“에이, 예서야 그래도 벨루에는 넘사벽 인력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근데 이 집 그때 그냥 물어줬다는데, 어찌 주방 쪽은 온갖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드라? 그니까 지금 주방장은 차라리 더 좋은 요리를 위해 주방 쪽 시설에 더 투자하는 거겠지?”

“아, 그럼, 주방 쪽은 다 기계인 거야? 그냥 직원들은 서빙만 뽑는 거고?”

“아마, 요리사 한두 명일걸? 지금도. 강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 수준일 거야. 그건 그렇고, 언니는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다 알아? 이런 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올 텐데?”

“내가 사실 여기서 알바 했었잖아. 뭐, 용돈 좀 벌라고 대충 지원했는데 강 스펙 안 보고 되든데. 암튼 그래.”

“그래? 여기서 한 것도 대단한데. 근데 지금 왜 안 해?”

“그……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이 언냐 손이 좀 거칠지. 쓸데없이 힘만 쌰 편이야.”

“쓸데없다고, 예서야?”

갓 구운 마늘빵이 나왔다. 민애와 예서는 능숙하게 스프에 찍어 먹었다. 해은은 둘처럼 따

라 입속에 빵을 넣어보았다. 단순 빵이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진정 이 시대에 맞본 ‘꿀맛’이었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공교육 민영화, 기본개인수행능력 교육체계

“자 언냐, 그리고 저기를 보면 돼. 이게 바로 ‘운치’라는 거야.”

예서는 마늘빵과 함께하는 전경 감상에서 그 우아함을 찾아내었다. 민애는 입천장에 들러 붙은 빵조각을 혀로 떼어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어느새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동네를 보았다. 하지만 역시 고작 빵이어도 굉장히 맛이 있었다.

이윽고 까르보나라, 토마토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파스타, 미트 스파게티가 나왔다. 민애가 까르보나라, 예서는 미트 스파게티, 해은은 토마토 파스타를 가져갔다. 서로 한 입씩 나눠 먹으며 각각의 맛을 평가하였다.

“그나저나 좀 이따가 우리 수영장 갈래?”

“오, 좋다. 가자가자.”

해은은 민애의 대답한 코스 선택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해은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왜 그래?”

“아니, 그게, 갑자기 수영장을 간다고 하니까.”

“민애 언냐도 참. 모르겠어? 흠, 해은 언냐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뭘 걱정해. 그리고 어차피 노는 건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정도면 신경 안 써도 돼, NM, ha, Don't worry about that. 언냐! 괜히 화나게 하지 마.”

해은은 예서의 날 선 칭찬에 파스타가 더 맛있어졌다.

휴대폰으로 결제를 마친 예서는 화장실로 갔다. 해은과 민애는 먼저 가게에서 나와 가게 이름과 안을 훑어보았다.

“맛있다.”

“맞아, 괜찮은 집이야. 시간 되면 한 번씩 먹어봐. 야, 그러고 보니 여기 양고기 보다 싸잖아.”

“그러네. 네 말대로 시내에 한 번씩 오자고 해야겠다.”

해은은 진심으로 말 하였다. 민애는 해은이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보여 미안했지만 조금씩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만족하였다. 이어서 예서가 나왔고 셋은 수영장을 향해 다시 지하로 향했다.

무인 버스에 몸을 맡긴 세 명은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 서서 갔다. 단, 지하철 마냥 부드럽게 버스가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손잡이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평소 공부는 뭐로 해?”

“글쎄, 난 벨리는 선생님 중에서 린 보는데. 올 엄마가 나보고 고2니까 그건 때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벨리는 선생님. 실버 체이서. 원래 골든 체이서할라 했는데 맘마가 나보고 꼴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버 들어. 돈 아깝데. 언냐는?”

“나, 나는 퓨처 박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나저나 민애는 린이라니. 그거 좀 썬편 아니야?”

“어, 나도 그거 때문에 골치긴 해. 근데 이게 우리 시험 기본체력이래. 이것도 못 풀면 시험장 갈 생각 하지 말래.”

‘벨리는 선생님’은 최근 사교육에서 새로 등장한 교육체계를 채용한다. 해당 사교육기관은 BIXchoolling, 기개수상담관리서비스: 기본개인수행인재양성서비스, Basic Individual eXecuting School Service을 도입하면서,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은 사람을 만든다.

천재는 천재를 만든다.

천재는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천재를 만든다.

단, 여기서 천재와 일반인은 각각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학생’, ‘아직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한 학생’으로 구분한다.

위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교육기관으로서, 늘 학생과 함께 다니는 벨리가 학생의 생활패턴과 학업 성취도를 기록해 가지고 있다가 진학 시기, 취업 시기에 맞춰 빅데이터전문가와 교육담당자 결합이 된 이 집단에 의뢰하게 될 경우 해당 사교육기관에서 의뢰를 신청한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교나 회사를 찾아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회사나 학교에서도 벨리를 통한 학생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천인 중 관심이 가는 인원들을 추려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 벨리에 저장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기관은 반드시 한 번 분석이 시작됐으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유는 조기에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인터넷 면허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이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 학생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 수업 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미성년자 신분이어도 인공지능 신호등을 구비한 채팅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는 이유는 서비스 시대에서는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모두 자료로 가공되어 공유되는 점을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능력 뿐 아니라 쓰기, 읽기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은 서비스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당장 스마트하우스만 보더라도 정말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 필요 없는 방을 삭제하고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틀이 비단 집뿐만 아니라 옷, 우산 등 거진 모든 사물들이 플랫폼화가 되면서 더욱 더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개수상담관리서비스를 공교육에 도입하여 BIXAES(BIX, 기개수: Basic Individual eXecuting Ability Education System, 기본개인수행능력교육체계)로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식으로는 기본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은 계속 유지하여 성취도를 책정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쉬는 시간(노는 시간), 여러 실험 및 재량시간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추가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모든 공교육기관이 학생의 데이터를 소유하게 될 경우 자칫 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데이터 사용료를 악용해 여러 사기업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팔아넘기는 식으로 돈을 받아먹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었다.

문제는 사건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해 성격이 비슷한 사기업간 공유해버리는 사건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후 무분별하게 공유해버린 포트폴리오를 소유한 학생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었다.

이 파장은 공교육에 기개수가 도입되는 것에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일가견에서는 오히려 공교육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한 대학 조사결과, 현 시중에 판매되는 기개수 진로 상담 상품 중 골든 체이서가 가장 정확도가 높았으며, 이에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 후로 린, 실버 체이서 순이며, 해은이 가입한 벨리는 선생님 상품 퓨처 박스는 비교적 일반적인 추천을 해주는 인공지능 단계와 전문가,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기로는 ‘그냥 상담가가 점수만 봐주고 마는 것 같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라는 불평 섞인 후기가 종종 올라온다.

해은은 이런 왁자지껄한 모습을 그리기 좋아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적용한 어떤 사회를 한번 소설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단, 너무 앞서 말한 것들을 포함하진 않으려고 한다. 해은은 이렇게 머리 아픈 게 싫다. 결국 해당 소설은 해은만의 판타지가 풍부하게 첨가된 중세 판타지가 될 전망이며, 기개수학교 위에 블랙 드래곤이 소환되는 상황을 연출해 볼 예정이다.

해은은 자신의 동네보다 훨씬 잘 닦이고 천장에 LED 조명이 촌촌히 박혀있는 지하도로를 보며 은근슬쩍 자신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보고 싶었다. 민애와 예서와 가까워진 것에 조금은 기대를 가진 것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빼도 못 추렸다.

우선, 민애가 본다는 린은 연 8천 교육 서비스였다. 그리고 예서가 본다는 체이스 시리즈는 3천에서 실버는 5천, 골드는 최소 2억 이상까지 편성되어있다. 해은이 보는 퓨처 박스는 연 8백이었다. 심지어 민애와 예서는 폭스 박스를 아예 모르는 눈치였다. 해은은 잠시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굴러다녔던 자신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해은은 한 번 시작한 이상 계속 물어보기로 하였다.

“그럼 정우는?”

“개는 글썄? 모르겠는데. 궁금해본 적이 없어서.”

“내 생각엔 그냥 집안에서 뭐 하는 거 같던데. 벨리 안 쓰는 거 같아.”

“아, 진짜? 벨리 안 쓰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아, 근데 뭐 개네 집은 뭐 그렇게 공부시켜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 아마 더 그러겠지.”

해은은 말끝을 애매하게 끝냈다. 하지만 해은은 예서의 말들로 정우 집안의 교육 방식이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민애는 정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확실히 다들 열심히 하긴 하네.”

“야, 장해은. 그래도 벨리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내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지만 알잖아 너도.”

해은은 민애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회수자들은 ‘벨리는 선생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꽤 낮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곤 한다.

“아, 근데 언니가 갑자기 공부 얘기 하니까 진 빠진다. 언냐들 둘이 내년엔 고3이면 이렇게 놀지도 못하잖아, 아예. 하루도 없을 거 아니야, 진심.”

“넌 그럼 수아랑 놀아.”

“아 맞네. 그러면 되나?”

“그리고 응? 공부해도 똑같다니까. 이렇게 꼴통이면.”

“언냐! 뭐라고 했어? 나한테 한 말이야?”

“수영장 다 왔네. 내리자.”

더 공부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싫었던 민애는 예서의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먼저 내려버렸다. 해은은 민애와 예서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압사 사고 예방책, 질병 경보 및 주의보, 여우절

수영장이라고 해서 해은은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타워 속 어떤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 빌딩 역시 지하 입구 층엔 똑같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근데 수아랑 놀았던 적이 언제데? 난 수아 요즘에 낯가리는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네 들하고는 애기도 안 나누는 사이인 줄 알았어.”

“두 달 전이었나? 그리고 고 때 이후로 확실히 개 변화긴 했어.”

“맞아, 공식적으로 두 달 만에 노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리고 모름지기 놀아야 돼. 놀아야 살지. 이것도 프로젝트야.”

해은은 놀기로 마음먹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노는 것도 일이긴 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민에는 길을 까먹었는지 잠시 건물 안내도를 보았다. 수영장은 46층에서 75층까지 위치해 있었다. 해은은 수영장이 두 개로 나뉘어 상층에는 하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온천이 자리 잡은 것을 보니 만만치 않은 대형 스파인 것 같았다.

줄이 꽤 긴 걸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에의 걸음이 빨라졌다. 예서와 해은은 민에 꿈무늬를 따라잡는 데에 급급했다. 사람들은 압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등 아래에서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서는 바로 폰을 꺼냈고 민에도 이어서 폰을 꺼냈다. 해은도 한설과 둘을 번갈아 보다가 그냥 폰을 들었다.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30분을 그렇게 대충 때우기로 하였지만 해은은 다시 폰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때가 한창 가을이 무르익고 막바지 즈음 시월 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다양한 분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렇듯,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압사 사고는 군중을 다루는 보행자 신호등으로 관리한다. 주로 핸드폰의 데이터 통신 비율을 따져 군중 수치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며, 때에 따라선 열감지 센서, CCTV 등을 활용해 부가적인 군중 밀집도를 측정한다.

일정 밀집도 이상으로 군중이 형성될 경우, 미리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이 운용되며 소수의 군중 관리 인원이 투입된다. 또한 군중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은 보행자 신호등이 운용될 때는 비록 그냥 인도에서 걷는 중이라도 보행자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국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과 보행자 신호등 및 밀집도 측정 기술은 원천적으로 모든 압사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 또한, 밀집률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리청에서는 각종 질병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한 질병에 대한 주의보가 지역에 발효되면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는 편이다. 이는 호우나 비가 예보된 지역에 접근할 때 우산을 쓰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리고 또한 만약, 압사 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CCTV나 인공지능 분석 후, 관련 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10월 말 즈음 정확히 26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여우절(FOX DAY)이다. 이 여우절은 한 이야기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라 둔갑을 즐겨하던 여우 둘을 기리는 날이다.

해당 전설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서로 사랑하던 여우 한 쌍이 있었다. 그리고 두 여우는 마을의 악령을 내쫓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다 힘이 부족하였다.

둘은 고행 끝에 용의 힘을 알게 되는데, 옥미호와 구미호의 합쳐진 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둘 중 하나의 여우가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여우는 마을의 악령을 잠시만이라도 온전히 내쫓기 위해, 둘 중 한 마리가 용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이윽고 두 여우는 산에 올라 함께 아리슬을 일으켰다.

26일은 꼬리가 6개로 갈라진 수컷 여우가 용이 되어 승천한 날이며, 31일은 꼬리가 9개로 갈라진 암컷 여우가 한 송이 꽃이 되어 용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세상에 떨어진 날이다. 그 꽃은 세상에 떨어진 뒤 기억을 잃고 모습도 잃어버린 채 아무 바람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남은 마을 사람은 이 두 마리의 여우와 그때의 마을 사람들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둔갑을 하며 지낸다.

‘예상 대기시간 30분. 오후 3시부터 입장 가능!’

“아, 물갈이 끝났나 보네.”

“물갈이야? 하, 참나. 그래도 좀만 더 기다리자. 나 치이는 거 싫음”

“민애야, 너 살 태운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냥 그럴까 했는데, 뭐 검사검사 한번 담굴라고. 해은이 너 말이야.”

“어?”

“그런데 민애 언니, 잠깐. 그거 옆구리 구멍 뚫려있는데?”

자신을 담근다는 말에 섬뜩한 해은은 민애가 들고 있던 수영복을 다시 보았다. 옆구리뿐 아니라 가슴부터 배까지 구멍이 뚫려있었다. 해은은 무슨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마냥 기겁하였다. 예서는 그런 해은의 옆구리를 톡 밀었다. 잠시 밀려난 해은은 프릴이 장식된 수영복을 선택했다.

탈의실에서는 벨리를 맡기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자신의 폰을 등록한 뒤 문이 열리면 벨리를 맡기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서랍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입고 있던 옷을 정리하는 곳이었다. 주의를 둘러보니 순전히 벨리 사용자를 위한 탈의실이었다.

예서는 자신의 비키니를 스마트폰과 연동시키고 여러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있었다. 민애가 옆에서 끼어들어 그냥 무작위 버튼을 눌렀다. 예서는 웃으며 핸드폰을 가렸다.

“언냐, 까볼까?”

“화면 까 봐. 딸기야?”

예서는 손을 들었다. 화면에는 버찌 열매 두 개가 비키니 양쪽을 가득 매우고 있는 디자인이 출력되었다.

민애와 예서는 세상 떠나듯이 웃어댔다. 해은은 예서의 가슴이 빨간 사쿠란보로 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예서야, 정말 그걸 입고 돌아다닐라고?”

“KK.”

예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해은은 탈의하기를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서와 민애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탈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잘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예서는 해은의 알몸을 보기 위해 해은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언니! 이쁘……. 언니? 푸하하, 잠깐만!”

“해은아……. 생각보다 작네.”

“그 됐고……. 얼른 구멍조끼나 입자.”

“그렇지, 가려야지. 우린 안 입을래. 하, 참. 난 디자인 바꿀래. 해은 언냐, 아주 이쁘 그냥.”

탈의를 마치고 워터파크로 들어서니 맑은 인공 햇살 아래에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해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수영장이다 보니 가운데에 딱하니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있었고, 비교적 얇은 기둥들도 함께 천장을 버티고 있었다. 특히, 그 커다란 기둥 주위에 튜브를 타며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가 있었다. 천장은 어떻게 건물을 지은 것인지 꽤 높이 올려다봐야 했다.

민애는 이전에 말한 대로 적당한 자리에 설치된 썬베드부터 찾았다. 민애는 가져온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리고 약속 장소는 그곳으로 정하였다. 해은과 예서는 파도풀로 향했다.

둘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며 파도의 절정을 맛보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였다. 그렇게 허벅지쯤 물 높이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예서는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해은을 지탱하고 있던 원다리를 걸었고 뒤통수를 밀어 해은 얼굴을 그대로 물에 다다쳐박아버렸다.

구멍조끼를 입었지만 그래도 힘있게 폭 담가버린 예서는 잠시 동안 해은이 허우적대도록 쳐박아 두다가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출렁랑을 쳤다. 적당한 거리가 되자 예서는 해은 방향으로 물장구치며 헛바닥을 셀 수 없이 놀려대었다. 머리를 흔들며 겨우 중심을 잡은 해은은 흘러내린 가디건을 고쳐 입었다.

화가 잔뜩 오른 해은은 달리기가 빨랐다. 순식간에 뒷덜미가 잡힌 예서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해은은 이에 질 세라 예서의 머리통을 물 밖으로 들었다 놔다하며 있는 대로 물 째질을 하였다.

서로 물귀신이 되느라 진이 빠진 나머지 잠시 휴전협정을 하고 민애가 지키고 있던 폰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는 줄 알았던 민애는 몸을 쪽 일으키더니 아이스크림을 받아먹었다.

“치얼스!”

“치얼스, 아주 그냥 둘이 난리도 아니드만.”

“이 언니 힘 존나 쎄!”

“야, 민애서. 민애야 이거 내 머리 봐봐 이거.”

해은은 젖은 머릿결을 민애에게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였다. 민애는 도통 해은이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같이 놀 수 있으실까요? 저기, 저기 분들인데.”

해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봤다. 한 남자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여 말을 건네고 있었다. 예서와 민애는 눈꺼풀이 살짝 내려간 채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남자는 해은을 보고 있었다. 당황한 해은은 눈만 깜빡인 채 가만히 있었다.

“우리 안 해요. 가세요.”

“좀 있다 갈 겁니다. 집에 갑니다. 예, 집에 가요.”

민애와 예서는 매몰차게 남자를 돌려세웠다. 남자 셋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민애와 예서가 해은을 향해 폭소를 터뜨렸다.

“장해은, 얼 타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언니, 안 되겠다. 언니는 온천 가자. 찜질해야겠어. 민애 언니, 다녀올게. 나만 믿으라고.”

예서는 해은을 끌고 상층으로 향했다. 민애는 손을 대충 흔들어주고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온천장 바닥은 미끄러웠다. 혹 넘어질 수 있어서 예서는 해은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천천히 온천물로 이동했다. 온천에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간 예서는 몸을 목까지 잠기도록 폭 담갔다. 그러고는 세상 다 떠나가는 앓는 소리를 길게 빼내었다.

“그나저나 왜 온천에 오자고 한 거야?”

“요고요고 봐봐. 손가락이 할머니처럼 되잖아.”

“장난치지 말고!”

“언냐, 왜 이렇게 남자를 몰라? 언냐 있잖아, 폭스런이 되라고. 폭스 알아? FOX. 언냐는 폭스가 될 자격이 충분해. 폭스 자질이 있어 언냐는. 이런 말 하면 언냐 상처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현 오빠 있지. 너무 느려 진도가. 내가 언냐 같았으면……. 언냐, 내가 무슨 말하는 지는 알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해은은 이미 예서가 자신을 바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예서는 이어서 해은의 수영복을 만지며 ‘여우의 꼬리는 이렇게 흔들다.’라는 강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 오늘은 여우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목 하에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해은은 자신의 수영복을 서슴없이 만져대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그, 여우가 이렇게까지 섹시할 필요가 있을까? 좀 너무 야한데?”

“NO, 이건 여자로서의 예의라고.”

“예서야, 이젠 예의까지 가는 거야?”

때 아닌 강연에 머리 찢질을 제대로 하고 내려온 해은은 하층부로 다시 내려와 큰 기둥에 설치된 튜브 익스트림을 즐기러 갔다. 이때는 민애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

익스트림 후에는 폭포수 밑에서 물벼락도 맞아 보았고 예서와 해은이 합심하여 파도풀에 민애를 파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애의 가공할 힘을 예상 못 했던 나머지 해은과 예서는 그대로 반격당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물리연산장치, 두뇌영상학, 황금철도, 人世知天經

해은이 머리를 말리며 시계를 보니 어느덧 5시가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배에서 계속 알람시계가 울려대었다. 확실히 파스타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공복이었다. 스케줄을 체크하던 민애는 뚱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럼 요즘 유행하는 거 하철? 슬립뮤비.”

“예서 맞다. 요즘 유행하는 게, 슬립뮤비라고 있음. 말 그대로 자면서 영화 보는 거.”

“나 자면서 영화 보는 거 잘하는데.”

“아, 그 뜻이 아니고. 꿈꾸듯이 영화 보는 그런 게 있어.”

물리 연산장치(PPU)는 L3 캐시메모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모멘트 계산에 포함되는 다중적분 계산이나 다중 폴리곤 객체의 편집 및 충돌 계산 등을 적당한 크기의 바이트로 나누어 최적화시켜 연산해준다.

이는 도화 연산장치(GPU)의 연산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연산장치가 분리된 이유로는 도화 연산에서는 버텍스에 들어가는 변수와 연산 과정 자체가 빛과 재질, 버텍스의 방향에 관련된 부분이기때 객체의 실질적인 물리 연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전 PPU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값이 변경되는 GPU와는 다르게 거의 비슷한 연산을 실시한다. 그래서 PPU는 L3 캐시의 양과 성능이 크게 좌우한다. 이는 온라인 게임을 실시할 때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바로 CPU에 캐시메모리가 많을수록 게임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착안하여, 물리와 서버는 비교적 비슷한 연산을 하는 공통점을 발견해



PPU, 물리 연산장치에 캐시메모리를 다량 추가하니 클라우드링과 온라인 게이밍, 물리처리에 비약적인 성능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PPU는 물리적인 처리를 집행하는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 우선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된 않으며, 발전이나 보관소 등 국가기관으로 선정된 설비의 국가적인 보안 아래에서만 쓰이는 중이다.

물리 연산장치는 도화 연산장치와 같이 총 6~7단계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산한 값들은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물리 값들을 대조하여 최종 온라인 동기화를 실시 한다.

다만, 이러한 물리적인 온라인 동기화가 인간을 캡슐화하여 안전하게 운송 수단 밖으로 사출하는 긴급탈출버튼에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데,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 최소 5~6단계의 칩셋이 필요하므로, 해당 운송 수단의 공정과 인프라 구축 비용, 칩셋에 들어가는 자원 등 환경단체의 마찰로 인해 실질적인 인공지능 운송 수단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그래픽카드의 발전으로 작은 이미지의 표현이 손쉬워진 것처럼 피지컬카드의 발전으로 작은 물리 표현이 손쉬워진 것이다. 이는 UI의 작은 액체 효과 및 스모그 효과, 단순 도형충돌 구현에서 벗어난 실제 사물과 비슷한 충돌 구현을 더불어 신체 입출력 단계에서의 시각 효과 및 촉감, 청각 등 자연스러운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하였다.

게임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실감나는 액션을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영화계나 다른 미디어계에서는 면허체계에서 쓰이는 자체 캐릭터가 아예 세계관 속 주인공이나 조연이 되어 연기를 펼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기술 진보를 통해 문화 수준과 인간의 감정 만족도를 연관 지어 책정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 활동에 대한 면허체계까지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문화거리로 감상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복을 느꼈는지 불행을 느꼈는지에 따라, 창작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정을 참고하였고 직접 제작하였는지에 따라 장르가 더 세분되고, 자본의 흐름이 명확해지게 된다.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파생된 인터넷 방송인들은 개인의 감정 수치를 그대로 공유하는 것은 곧 생업에 직격탄을 맞는 행위기 때문에, 보통 뇌파로 구동되는 여러 동물 머리띠나 화면 내 움짤, 가면 등을 착용한다. 이로인해 스크린과 사운드로는 전해지지 않는 감정을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스트리머는 시청자들과 더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스트리머를 지켜주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리 연산 칩을 통해 카메라 역시 발전하게 되었는데, 카메라가 전자파장의 반사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이미지의 색 요소인 Red, Blue, Green, Alpha에 이어 Depth라는 5번째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에 영상촬영 기법에서 블루스크린 색 추출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사진 및 영상, 실시간 방송생산은 사진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원근 자료를 통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 발전된 공학으로 인류는 문화거리에 대한 종합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 결국 ‘문화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이 거래가 되고 국가 간 무역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형상, 시대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산업시대,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보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간의 오감을 거치지 않고 뇌 쪽으로 직간접적인 전자신호를 보내 단시간이지만,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일명 ‘두뇌영상학’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은 짧은 체험에 불과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시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안전한 두뇌영상을 위해 아주 짧은 체험 수준의 매체들이 제작되고 대중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이를 흔히 ‘슬립뮤비’라 부른다.

매장을 구경하던 사이 예서가 슬립뮤비 하나를 들고 해은과 민애에게 왔다. 민애는 뒷면에 있는 설명을 조금 보고는 설레발을 쳤다.

“어우, 설명 길긴 하다. SF인가 뭔가 하는 장르인가 본데?”

“뭔데, 그래. ‘별차와 갈대밭’? 그리고 SF 아닌데? 그냥 ‘판타지’잖아. 그런데 ‘별차’는 또 뭐지?”

“몰라, 그냥 일단 느낌이 좋아서 가져와 봤어. 표지가 이쁘잖아.”

앞면에는 밑에 갈대밭이 저 먼바다 끝까지 펼쳐져 있고, 수평선 위로는 이제 막 밤이 되려는 황혼의 하늘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이 그려져 있었다.

“언니, 괜찮지? 재밌어 보이겠지?”

“그래……. 좀 보고 싶기도 하네. 희한하네.”

해은은 슬립뮤비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예서를 따라 수면실로 향했다. 민애도 혼자 남는 게 싫었는지 같이 숙면했다.

찬란한 빛을 쏟아내는 맑은 하늘 아래서 해은이 갈대밭 속에 서 있었다.

민애는 차를 부드럽게 이끌며 해은이 있는 곳까지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민애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였다. 갈대숲 사이로 올레길이 나 있었다. 해은과 민애는 그 길을 따라 갈대숲 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추석이야, 해은아.”

“그러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그래……. 와, 저 별똥별 좀 봐봐.”

하늘에서 수십, 수백 개의 별빛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예서는 어디 있어?”

“몰라. 잠깐만.”

민애가 허공에 손짓하자 홀로그램이 공중에서 나타났다. 민애는 잠시 흘겨보면서 설명을 읽어나갔다.

“예서는 글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데. 동양 쪽이면, 용의 모습으로 나타 난 데.”

“용? 참나, 그것도 그건데 천사 같은 소리 하네.”

민애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무리, 황금철도를 보느라 해은의 말을 듣지 못했다.

황금철도는 우주에서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시차 적응을 위해 약 100,000km/s로 운행된 다. 황금철도에 쓰이는 광전기관은 정거장에서 다른 정거장까지 잇는 광선이 연료로 쓰인 다.

광전기관 내에서는 광속에 근접한 물질이 정지된 물질로 치환되는 입자감속과정이 일어난 다. 이와 같은 발상은 우주공간이 다른 아닌 무중력 및 진공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광전기관의 주요 특징은 별도의 연료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정거장에서 입자 들을 가속 시켜 빠르게 이동시킨 후 정확하게 엔진실로 유도하여 다시 감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면, 별도의 연료실이나 이어지는 선 없이 연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무중력 및 진공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건너온 물질은 에너지량이 꽤 클 것으로 예상 되기에 감속 과정 이전에 물질 출입구 장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정화광선 내 전자기력으로 광전기관을 운영하고, 그 속에 별도로 존재하는 가 속된 입자를 연료로 치환하여 추진을 얻는 방식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료를 빛의 속도로 얻어 운행되는 이 운송 수단이 마치 입자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배와 같다고 하여 선박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한 정화광선이 이어지는 공간길은 출발지와 도착지와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약한 공간 장과 강한 공간장의 적당한 지점을 계산하여 운행할 때마다 변경이 된다. 황금철도는 공간 길 사이에 이물질이나 분자가 존재할 경우 분자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보통 정 화광선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두어 노선안정화까지 맡는다.

이 분자 폭발 현상이 관측된 후, 인간이 통행하기에 안전한 정화광선을 개발하기까지는 수 많은 인형(Robot, 人形)들이 쓰였다. 결론적으로 주광선은 입자 전달을, 부광선은 유해물질 차단을 한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광전기관이 우주에 떠도는 수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모은 탐사선이나 군사 함선은 자립적으로 연료를 생산하여 장시간 유영하기에 출발 전에 필히 충 분한 양의 식량과 자원을 싣고 떠난다.

황금철도가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화광선이 보통 플랫폼 외곽 쪽에서 운영되기에 조종사가 악의적인 목적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대량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황금철도는 너무 빠른 속도로 운행되기에 착륙 실패 시 아예 궤도 밖을 이탈해 우주미아가 되거나 심하면 항성계 중심으로 돌진해버릴 수

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거장 외부에서 운영하는 발전기에서 긴급 상황 감지 시 입자광선출력을 정지하고 화력발전으로 전환된다. 이에 긴급귀환선박의 광전기관 및 수소추진기를 포함한 외피와 외형은 모두 불타버리겠지만 내부는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함을 유지하기에 광선궤도를 잘 유지한다면 무사히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광선을 벗어나 행성이나 정거장에 위협이 예상될 경우 자기공진막을 펼치거나 레이저요격으로 방향을 맞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황금철도 개발에 성공하였고 그 철도의 이름을 ‘별차’이라 부른다. ‘stelliner’은 발음 상 ‘스텔리너’라 부르지만 해당 단어는 이른바 한글식 영어로서 ‘stel-liner, 스텔라이너’이라 부른다. 더하여 이 별차가 운행되는 연결선을 ‘별선’이라 한다. 황금철도 이름 선정에서 별차가 된 이유는 황금철도가 행성 밖 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즈음에서 행성 안에서는 그 모습이 별무리가 내려오는 것 같이 보여 이렇게 붙였다.

수도직할정지궤도정거장에 도착한 후 하늘정원승강기를 통해 지상에 당도한다. 보통 이렇게 대기권 밖 정지궤도정거장에는 승강기로 드나들며, 명절과 같은 대규모 이동 시에만 잠시 지상과 잇는다. 또한 승강기가 급작스럽게 상승하여 무중력 상태에 돌입할 경우 탑승객이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어 안전막대를 착용해 상승한다.

하늘정원승강기는 아테나 머리별 변방에 위치한 한 행성에서 채굴된 아테니움, 아테늄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승강기는 무게와 유지비용이 상당하기에 평시에는 정지궤도에 머물기 위해 승강 철로가 해제된다.

우리나라는 아테늄 머리별 변방 행성 천공 작업 간 충분한 물자와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무역협상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테늄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고 정지궤도정거장이 각 주요 도시를 비롯해 각 광역시에 추가로 확장할 만큼의 충분한 아테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별차가 무사히 감속을 완료한 시점에 미리 지정된 시간표를 따라 광역시 정거장을 순례함으로써 이용자는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원거리공간이동은 이동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형성하고 이으려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원거리 공간이동 비용이 소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니고서는 보통 단거리 이동에서만 이슬을 잠깐씩 사용하며,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다.

은하 간 장거리 여행은 우선 광전기관과 수소추진기를 활용해 빛의 근접한 속도로 최대한 항성계 외곽으로 빠진 뒤 그곳에서 이슬정거장에 진입해 다른 은하로 넘어가는 것이다. 굳이 힘들게 항성계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 이유로는 자칫 항성계 내부에서 거대한 이슬을 열었다간 이슬을 연 항성계 전체뿐 아니라 반대편 항성계 전체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략적인 예를 태양계로 들면 제일 끝에 있는 행성, 해왕성이 44억km ~ 46억km의 활동 영역을 가지기에 이 영역 바깥 영역이 태양계의 안전지대가 된다. 하지만 이 바깥 영역이어도 무거운 천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나가는 편이다.

보통 한 항성계를 초속 10만km으로 진행했을 때 꼬박 반나절 정도가 걸리며, 항성계에 따라선 하루 내지 이틀까지도 소요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은하 간 여행은 장거리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항성계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정확해야 하므로 보통 벨리라는 종이 말한다.

“잔! 예서님 등장하셨다. 어때 멋있었지?”

“확실히 빛에 쌓인 모습이 멋있긴 했어. 무슨 영웅 오는 줄 알았어.”

“맞아, 천사까진 아니야.”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거 저장해줘, 하나야. 이 언니들 말 평생 가게 해주자.”

예서는 이 체험 데이터를 자신의 벨리가 아닌 국가 빅데이터베이스단지, 인세지천경(人世知天經)에 저장하였다.

셋은 분명 자면서 영화를 봤는데 어느덧 녹초가 되어있었다. 예서가 매장에서 나오며 힘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 단 거 땡긴다. 현기증 나.”

예서는 머리를 좀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민애는 머리를 토닥여주었고 해은은 예서의 머릿결을 쓰다듬어주었다.

“내가 팔빙수 쏘 게, 어때?”

해은의 말에 예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애도 덩달아 신이 났다. 예서는 빠르게 팔빙수 가게를 찾았다. 가게는 다행히 마침 바로 앞에 있었다. 마치 슬립뮤비를 다 즐기고 나면 단 것이 땡긴다는 것을 미리 아는 눈치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무대방, 온라인게임 대리기사, 식기세척기, 세계전자화폐

해은은 가는 길에 주위를 잠시 둘러보다 한 상가 안에서 HMD를 둘러쓰고 허공에 손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해은은 잠시 그 모습이 섬뜩하여 얼른 고개를 돌렸다.

예서는 적당히 길거리가 보이는 곳에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민애는 명당만 쭉쭉 골라잡는 예서가 대견스러웠다. 해은은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인절미 팔빙수’를 주문하였다. 해은은 곧 나온 팔빙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은은 팔빙수를 내려놓으며 앉았다. 예서와 민애는 폰을 보고 있었다. 해은이 숟가락을 들고 목이 메여 잠시 헛기침을 한 번 하자 예서가 눈을 돌렸다. 해은과 눈이 마주쳤다.

“야, 근데 저 맞은 편 저기 저 사람들 저래 누워서 대체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저 아마 저 안에서 둘이 잠자리 잡고 있을 거야. 왜? 부러워?”

“잠자리를 잡는다고?”

“어. 걱정 마. 저 위층 보이지? 거기서는 막 콘서트도 보고 그래. 요즘은 또 HDR에 우퍼까지 달려가지고 진짜 장난 아님.”

여러 팝스타나 공연, 영화 및 뮤지컬까지 진행하는 공연이나 무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고 품질의 공연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받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무대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최근 도심지역에 무대방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었다. 일부 최고 신퇴고객에는 스마트하우스에 따로 무대방이나 영화방을 마련해주고 그곳으로 직접 데이터가 전송된다. 즉, 고객은 이러한 문화생활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걸그룹이나 여러 가수들은 오프라인공연을 단 한 번 진행하더라도 온라인 무대를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 저작권료를 받기에 오프라인 무대를 단 한 번 진행했을 때보다 배로 벌 수 있는 환경이다.

사용자는 팬으로서의 활동인 가수와 직접적인 교감은 할 수 없지만(이에 몇몇 가수들은 온라인으로 무대를 함께하는 팬들에게도 여러 퍼포먼스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원하는 위치를 비교적 제한 없이 선정하여 관람하여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무대방은 콘서트의 현장감을 최대한 구현해내기 위해 우퍼나 서라운드 시스템 등이 구비된다.

해은은 떡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넘겼다. 예서는 옆에 있던 연유를 들이부으려고 했다. 민애가 숟가락으로 연유를 막았다.

“요 옆에만 해. 살찌니까.”

“치, 그래! 자, 요리강화를 하자. 뽀로롱.”

“요리강화?”

“요즘 RPG에서는 요리에다가도 강화를 넣었어. 버프형 템이 많아서 대부분 성공률이 겁나 높아. 고거 따라 해본 거야.”

“아, 그래? 함 해봐야겠네.”

“뭐야? 무슨 소설에도 강화하는 소리처럼 들리네. 그리고 둘이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하니?”

“무슨 소리야? 울 엄마한테 허락 받아서 여 언니랑 둘이만 게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인터넷과 인트라넷 채팅, 활동이 차단되지만 직계가족 혹은 입증된 보호자 면허 권한으로 지정된 사람과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여도 현실에서 소울메이트, 절친을 사귀게 되면 공간을 절약시켜 사이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미성년자는 인터넷 면허증이 없어도 기본적인 통화나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엄연히 통화와 문자는 독립적인 회선번호가 존재하며, 익명에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난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두 존경해. 그러니 당연히 저들의 삶도 존경해야지.”

“존경 좋아하네. 참 그래도 언니는 뭔가 따뜻한 말을 어떻게든 만드는 것 같네. 좋아.”

해은은 예서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건물 1층을 보았다. 어느새 또 HMD를 뒤집어쓰고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해은은 지긋이 웃으며, 이렇게까지 힘들 삶을 저렇게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동시대 사람들을 보니 적잖이 받은 충격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게임은 어떻게 잘하게 된 거야?”

“아, 원래 게임에서 대리기사 알바를 뛰고 있었는데, 너무 잘했나 봐. 랭커 여러 번 찍어주고 돈 받고 몇 번 하니까 회사에서 제의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게임 좀 공부하게 됐지. 그때부터 반속 연습도 좀 하고. 몸 관리도 하고.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응원 좀 해줘.”

“오, 그래? 국가대표라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게임에서도 여성 남성 나누나? 여자 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지. 아무리 반속이 빨라 봐야, 확실히 신체를 움직이는 거라서. 하, 맞아. 여자 프로게이머라고 깔보는 경향 없지 않다고. 여성도 인권이 있는데 차별 좀 안했으면 좋겠어. 성 평등은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겠어.”

민에는 천천히 팔빙수를 먹으며 말없이 예서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이었다. 해은은 잠시 손가락을 허공에 멈추고 입을 열었다.

“예서야, 내 생각엔 그건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아. 분명히 알맞은 답이 있을 거야.”

“뭐라고?”

예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해은은 순간 팔약근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해은은 차분히 태블릿을 꺼내 식기세척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생식기의 위치 차이라고 생각해. 수아가 말한 걸 좀 적용하면, 4차원. 사람의 가장 민감한 생체기관, 코어. 다리 사이 코어 기관의 위치를 봐. 남자의 것은 밖으로 나와 있고, 여자의 것은 안으로 들어가 있지. 뭐, 안과 밖이 진짜 4차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것은 밖으로 나와 있으니,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 직접적인 감각이 기본적으로 발달해. 여자 것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 그러니 간접적인 감각이 기본적으로 발달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려면, 소위 몸 신호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즉,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위아래, 오른쪽, 앞뒤의 문제가 아닌 안팎의 문제일 수도 있다.

더해서 의학의 발달로 알아낸 게 있어. 둘의 공통점. 자궁이든 전립선이든 암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여자도 직접적으로 증상을 봐야 할 이유가 생겼고, 남자도 몸의 신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

“……. 그, 그래 우리 해은이 강 관심 많은 걸로 치자. 요즘 그런 말 듣고 싶었지?”

“그……, 그냥 우리 다른 얘기 해도 될까?”

해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애와 예서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더니 해은은 조금씩 울기 시작했다.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연타 폭격에 당황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마시멜로 이야기를 철떡 같이 믿었는데. 마시멜로 안 줘서 수십년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진짜 그 세월 동안 기다리니까 마시멜로가 무슨 맛인지 아니, 아예 마시멜로가 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배워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야. 지금 내가 정리하는 도전하는 모든 문제가 실은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던 문제들인 것 같아.”

“자, 잠깐!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명 좀 그만해 봐. 아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한 거야?”

예서는 계속되는 설명에 약간 화가 난 말투로 해은에게 물었다. 민애는 슬쩍 웃으며 포크로 해은을 가리켰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우리 해은이가 가장 걱정되는 상태에 빠졌어.”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 넌 알아?”

“그럼 잘 알지. 저 상태는 퇴화 단계에 들어간 거야. 흔히 다른 말로 포기라고 하지. 그래서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미, 독이 깨졌어. 거기에 무슨 설명이나 말을 쏟아부든 간에 다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그게 바로 포기 상태야. 해은아, 진짜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괜찮아?”

눈이 붉어진 해은은 잠시 고개를 돌려 매장 밖 사람들을 보았다. 다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해은에게는 저 모습이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로 보였다. 그걸 알게 된 순간 해은은 민애의 집에 가 보기로 결심하였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민애가 본인의 집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자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해은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W 나 친구 집에서 오늘 자고 갈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민애를 따라 다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외곽으로 가는 버스는 자리가 비어있었다. 셋은 앉자마자 그대로 뚫아떨어졌다.

민애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던 해은은 아무런 답장이 없는 바람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근 며칠 은영의 허락을 받으려 갖은 노력을 하였고 또 승낙을 받았었기에 여유롭게 발걸음을 땔 수 있었다.

민애는 자신의 집에 초대된 멤버가 벌써 세 번째가 되었다면서 흡족해하였다. 순서로는 예서, 수아, 그리고 해은의 순이었다.

“여! ………. 나 왔는데.”



민애의 집은 스마트하우스였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굉장히 고요했다. 해은은 무엇보다 거실에 소파나 TV가 없고 액자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놀아도 되는 건 맞지? 여, 여기가 거실 맞지?”

“어어, 잠만 나 삼촌한테 왔다고 문자 줘.”

“뭐 하시는데?”

“벨트코인 보고 게시지. 그게 업이서.”

“벨트코인? 그게 뭐 하시는 건데?”

“평소에는 벨트코인 이력보고 자금흐름 보고 게시는데 사실 주 업무는 건수 받으면 벨트코인 이력 분석해서 벨트코인이 어디로 세나갔는지 추적하거나 대다수는 거래 취소를 세밀하게 따져서 해준다나 뭐라나. 그리고 울 삼촌 인증 아이디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채굴해줘.”

벨트코인은 벨루에서 생산하는 세계전자화폐로서, 벨루와 인터넷협회에 제공되는 수많은 연산장치를 통해 전자화폐의 블록을 생산한다.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생성되면 인터넷협회에서 인증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을 선정해 그들에게 통화생산을 의뢰한다.

협회 측에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전자지갑을 그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기도 한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거래방식이 아니기에 거래가 수시로 감시되고 보안면에서 우수하긴 하나 이러한 점으로 인해 거래취소나 휴대폰 분실신고 시 이를 중재할 직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민애 삼촌은 전자화폐분석가로서 입지가 탄탄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끔씩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다. 그리고 전자화폐를 채굴할 때의 데이터 비용도 꽤 쏠쏠하다는 말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화폐분석가가 되기 위해선 인터넷협회의 시험절차와 승인절차를 통과해야한다.

민애의 방으로 들어온 예서와 해은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아무 영상을 틀었다. 예서는 대뜸 이제 막 앓은 해은의 가슴을 두어 번 움켜쥐었다.

“언니, 오늘 하나 배웠어.”

예서는 걸쭉한 말로 해은을 건드렸다. 해은은 계속 찢러대는 예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심상이었다. 하지만 원체 손가락이 빨라 쉽사리 해은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민애는 잠시 일어서서 소형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네 번째 잔. 구백구십구. 순환식당, 비즈니스 리모델링, 완전무료소설

“야, 불삼겹 시킬까?”

“좋아!”

“.....”

민애는 대답을 못 하고 예서의 손가락을 잡느라 한창인 해은을 보고 슬쩍 웃었다.

“우리 해은이 아주 좋아 죽네. 그럼 시킬게.”

민애는 폰을 꺼내 근처에 지나가는 가게를 검색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무인차로 위에서 순환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검색해 민애집과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무인차로제 동선상 가장 가까운 음식점 차량을 추천해 주었다.

민애는 가볍게 터치 몇 번만으로 불삼겹 주문을 마쳤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음식 주문은 컴플레인을 직접 다른 유저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다.

이 순환식당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탑승 전, 후로 목적지를 예약할 수 있다. 그 후, 무인차로 내 여러 목적지가 다시 단거리 순으로 재정렬되어 이동한다.

또한 배달원들은 이러한 순환식당에서 완성된 음식을 받고 골목골목으로 배달을 떠난다. 배달원들은 매장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에 도저히 사람의 감으로는 매장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매장으로 돌아간다.

물론, 인공지능이 길을 알려준다고 하여도 목적지를 알게 되는 이상 배달원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는 있다.

이렇게 무인차로 내 매장이 이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거주 지역이 굳이 ‘인프라’를 따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하우스는 이러한 이동 가능한 인프라에 맞춰서 방을 수정하고 서비스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인운송수단 내 주방은 이동 간 요리를 해야 하다 보니 용기들이 모두 재설계되어 용량이 큰 것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으로 바뀌었다.

“야, 그나저나 장해은. 요 벨리 분해는 할 줄 아냐? 딱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던데? 그 벨트 코인도 올 삼촌은 요 벨리 써서 채굴하잖어.”

“언냐, 벨리 모르지! 가만 있어 봐.”

예서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였다. 예서는 화면 몇 개 누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의 눈이 감졌다. 해은은 사용자가 벨리를 직접 종료하는 일이 있을지나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다.

하나의 시스템이 종료되더니 머리가 열렸다. 해은은 그 잠깐 보인 얼굴이 해체되는 광경이 너무 기괴해서 비명이 나오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해은은 벨리의 머리가 갑자기 열려버린 것도 당혹스러웠는데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정보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은이 더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민애와 예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애의 벨리를 분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재능이 많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돼?”

“응, 요 정도 선까지는 A/S가 되거든.”

해은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러한 대답을 듣고는 조용히 웃었다. 해은은 머리를 가볍게 흔든 뒤,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벨리 진짜 무섭더라. 내가 계정 하나를 버리기 전 시절에, 막 내 글이 무단으로 복사되고 퍼지더라고. 나는 분명 무료로 올려놨는데, 어느 사이트에선 무슨 포인트가 있어야 읽을 수 있고.”

“어? 언니가 무료로 올렸는데, 다른 곳에서 유료로 파는 거야? 불법 아냐?”

“그거 언냐 글 맞아? 언냐는 인기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잖아.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네 말대로 동명이작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내 소설 제목은 좀 특이한 편이거든? 검색했는데, 내 제목이랑 같은 게 고작 10개 정도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

게다가 난 무명작가라고. 분량도 딱 내가 쓴 거랑 딱 맞고. 그…… 글을 쓰다 보니 굳이 내용 안 봐도 저게 내 새끼인 줄 알겠던데. 그래 참, 글 쓰는 것도 쉽지 않더라.”

“한 잔?”

민애는 아리슬을 까 예서에게 먼저 따랐고 해은에게 병을 들이댔다. 해은은 잔을 들었다.

“이거 쟤다. 69도수야.”

“그래, 알아서 잘 좀 줘봐.”

“와 쌍 졸라 매워.”

예서는 죽을 맛이었나 보다. 해은은 타들어 가는 소주를 조용히 넘겼다.

“개발자를 포기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게임은 취미로만 개발하게. 개발자를 포기한 거지, 개발은 심심풀이로 하는 중이지.”

“게임 개발을 취미로 한다라…….”

“요즘 고민 중인 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구상 중이야. 전체 이용가 게임이지.”

“그건 있잖아, 이미. 많잖아.”

“나도 많은 게임 만들면 안 되나? 굳이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야 해? 아무튼 내 게임은 이래. 강화 싹 다 없앨 거야. 애초에 강화할 무기나 갑옷이 없어. 그냥 놀이공원을 만들 거니까.”

“그럼, 돈은 어떻게 벌려고. 강화 넣은 이유가 돈 벌라고 넣은 거잖아. 애초에 게임 자체가 경쟁을 유도하는데?”

“무슨 경쟁이 있어, 게임에. 그냥 부수적인 거지. 그리고 돈 벌 방법은 많아. 게임에 광고를 넣으면 되잖아. 이미 모바일은 다 그러고 있는데, 뭐. 로딩 끝나고 보여 주던가 아님…….”

해은이 갑자기 이렇게 말이 끊기면, 필시 그 ‘독특한’ 게 튀어나오곤 했다.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처럼. 아예 광고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사하게 모델링 해서 광고주한테 ‘여기 광고 넣으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광고 보기 싫으면, 돈 받으면 돼. 일반 회원 버전, 프리미엄 버전 해서. 진짜 이용료를 냈다. 그럼, 하루 동안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좀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애들한테 사이버 머니를 쥐어 줄 생각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타라는 식으로. 그리고 광고가 없어지는 화면엔 티니핑 관련 화면을……. 앗!”

“잠깐, 티니핑? 그게 뭐야?”

“뭘 또 이상한 걸 만들고 있나 보네.”

해은은 티니핑들의 놀이동산. 티니핑 어트랙션을 구상 중이었다. 내용으로는 작은 티니핑이 되어 놀이동산을 돌아다닐 예정이다. 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12세부터는 저녁 10시까지 즐길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다.

“그래도 나라에서 검열 신호등? 그 인공지능 신호등 있잖아. 그 API 호출하는 게 무료더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료라는 거지?”

“응, 그래서 이윤이 남는 비용을, 티니핑 유명하잖아? 글로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니까, 이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API 비용을 실시간 번역하는 데에 쓰는 거야. 세계적인 거잖아? 애들 대화가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으로 번역되어서 얘기나누는 거지. 생각해 봐. 그 많은 대화가 오갈텐데, 언제 사람을 대응시켜. 인공지능 번역은 매시브한 부분, 딱 군중이 대화하는 이 시스템에 적용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물론 그 검열 API가 진짜 무료인지부터 확인해야지.”

“에이, 무료겠지. 야, 인터넷 면허증이 왜 있는데? 안 봐도 무료야.”

“잠깐만, 그런데 검열이라고?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파악하는 게 못된 말들이잖아. 빨간불 채팅 봐봐. 이거 영상이나 소셜 같은 데에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야. 난 전체 이용가 게임을 만드는 거야. 여기선 초록색 채팅밖에 못 해.”

“빨간불 채팅이라…….”

“욕설, 비속어, 은어, 3-4회 이상의 잦은 사투리 사용,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행위 등. 대충 알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투리도 빨간불이야?”

“내가 안 그랬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야. 이미 정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게임에다가 그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는 내용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부분은, 빨간불 뜬 유저를 접속 정지,, 7일, 30일, 반영구. 전체 이용가 게임인데, 빨간불 채팅을 치다니. 유감스럽지만 나가라는 거야. 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자동처리 할 예정이야.

이것보다 더 약한 노란불일 때는 채팅 정지 정도로 줄어들겠지. 18세 게임은 욕설해도 되잖아. 물론, 듣는 쪽에서 붓으로 빨간불 안 보기 옵션 켜서 다 막으면 어차피 안 보는 건

매한가지겠지만. 아무튼 여긴 그런 옵션이 아니야. 필수야. 전체 이용가.

그 API가 공짜니 뭐, 그래도 난 저작권 철저히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자본들로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또 다른 사람?”

“‘실시간 개발자’도 생각해 보고 있어. 인공지능 번역 API만 해도 상당한 자본이 투입될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놀이동산을 다 채울 수 없지. 놀이공원 공간 중간중간 공연이나 이벤트를 하는 직원을 고용해 볼 거 같아.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든가 춤을 추든가 마임 공연, 악기 연주……. 이들을 난 RTD, Real-Time Developer. 실시간 개발자라고 부를 거야. 더 이상 멀뚱히 서 있는 NPC들이 아닌 거지. 그리고 실시간 개발자들은 매일 놀이공원 문을 닫으면 퇴근하라 그래. 문을 닫았는데, 뭐 할 거야. 그리고 원격근무단지로 출근하라 해. 본사까지 뭐 하러 와. 아예 일이 다른데.

그리고 남은 자리. 하이엔드급 개발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게임 관련해서는 상용 엔진이 있으니까 만들게 없다고 생각해. 껌해야 고장 난 엔진 단 오류들, 버그들 잡는 거겠지. 하지만, 사업 관점에서 보면,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 예전엔 게임 엔진이었다면, 이번엔 뭐겠어. 난 방금 AI API 호출하는 게 상당한 자본이 투입된다고 했어. 그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어야지. 그 ‘이모션 왕국’에서 쓰는 전용 번역기를 만들라는 거야.”

“야, 장해은. 네 주제에 뭐 하이엔드 개발자냐. 인터넷 면허증이나 따고 말해.”

“그래도 난 이 언니 잘됐으면 좋겠다. 게임 대박 났으면 좋겠어. 언니 꼭 잘 돼서 열심히 놀러 다니자.”

“어? 이거 서비스 안 할 건데. 그냥 구상만 한 거야.”

“엥?”

“그냥 보여주기식. 툴은 게임 엔진으로 만들 거긴 한데, 그냥 영상 찍고 마무리. 안 그래도 무료툴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지금 3D 무료프로그램 있어. 그걸로 모델링 하고, 무료 영상 편집툴로 찍고 마무리.”

민애가 고개를 크게 젖는다. 예서의 인상이 크게 찌푸려진다.

“야, 게임 운영하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데. 진짜 운영은 기업 같은 데서 의뢰 같은 걸로 결정할 일이지, 내가 뭘 설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데? 그리고 이 티니핑이란 IP가 원작 보면, PPL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제작되었단 말이지? 그럼 광고 버전이 없을 수 있어. 일반, 프리미엄 해서 일반부터 돈 받는 거지.

야, 이게 국내라서 망정이지 해외였어 봐. 게임을 지금 하나의 상품으로 치면, 이건 인보이스 문서가 막 날아다니고 계약이 되었네, 해약이 되었네, 발주가 되었네, 말았네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모습이 될 것 같아. 거기에 실시간 개발자까지 포함하면, 그 장비들 무역까지도 가겠द्या. 그럼, BL 건도 필요하겠네.”

일방적으로 말을 시작한 해은의 입에서 ‘인보이스, BL, 발주’와 같은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은은 잠시 깜짝 놀란 척하며, 말을 줄였다.

“나, 난 그, 그러니까 하하. 그저 이 티니핑이라는 IP를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지. 세상에 티니핑 놀이공원이라니. 사이버 공간이니까 현실에 없는 놀이기구도 만들 수도 있

고, 그래서 아예 낮에는 로켓을 쏘볼까 해. 밤에는 퍼레이드 하고.”

“하다하다 놀이공원에서 로켓을 쏘? 그거 멀리서 봐야되는데. 하긴 사이버 공간이지 참. 대놓고 눈앞에서 쏘는 그런 거겠네. 적당히 안전거리 대충 만들어 놓고 그정? 네 말대로 ‘보여주기 식’이니까.”

“오, 맞아. 민애야. 로켓은 한 시가 되었든, 열두 시가 되었든 쏘는 거지. 이름을 뭘로 할까? 브릴리언트 하이퍼 하트 로켓 정도? 티니핑 애들 태운 다음 쏘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민애의 눈은 초점이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서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THE BRILLIANT HYPER HEART ROCKET. 그런데 언니, 이름이 너무 길지 않아?”

“‘찬란한 고출력 마음 발사체.’ 진정한 하트 공학의 결정체겠지. 아, 아참! 게임 분석해 보니 아이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줌, 찬란하게 짓더라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무기 이름도 예사롭지 않드만. 난 고 특징이나 전통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아직 밤에 퍼레이드할 마차 이름은 못 정했어.

자, 정리하자면, 광고료. 어느 특정 클라이언트에게만 광고를 뿌리거나 뿌리지 않는다. 이거 사실 클라 변조로 해킹 가능할 거야. 굳이 모의 해킹 같은 거 안 해도 알 수 있지. 서비스 배포하는 입장에선 최대한 막긴 해보겠지만, 그래도 이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곳에도 클라 변조하는 데 놔주고 있으니까. 분명 클라 변조한 거 알 텐데. 아닌가?

아무튼 난 온라인게임을 막 변조하고 경쟁심 부추기고, 말도 안 되는 강화확률에 랜덤박스까지. 이렇게까지 고착된 비즈니스 모델이 솔직히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성공한 사람들 예측해 보면 딱 봐도 엑셀대로 나오겠지. 설정한 % 대로 말이야.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의 경제 체계는 사실,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내 기준에선 아무리 봐도 도박이거든. 30% 확률로 라면 5봉지 추가 증정! 15% 확률로 모니터 해상도 FHD에서 UHD도 업그레이드! 이게 도박이 아닐까?

거기에 유저 간 거래도 그냥 풀어놔서. 이거 잘 알아보진 않았는데, 게임머니가 그 돈세탁이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야. 예를 들어 현실 돈으로 게임머니를 사고, 다시 구매한 게임머니로 현실 돈을 사면…… 내가 보기엔 범죄 자금 돈세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쯤 되면 과연 게임을 문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사실이면, 온라인게임은 돈, 자본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도 비즈니스와는 한참 먼 영역이 되는 거야.

하, 온라인 말고 패키지 게임은 더 해. 게임 가격이 너무 싸. 골드나 프리미엄 봐도 이름만큼이나 별 색다른 게 없어. 그 상태로는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생각해 봐. 이상하지 않아? 상업영화에 PPL이 없는 걸 찾아보라고. 그래, 프린세스나 역사처럼 예술에 치중된 영화는 PPL이 거의 없겠지. 없어도 지원받거나 만들 여유가 되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짜 경제적으로 성공한 게임사 아니면, 광고판 붙여야지 않을까 싶어.

그럼,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확률 체계를 가진 거진 모든 게임, 가격 정책 실패로 오직 예술에만 치중된 게임. 전자는 사실상 카지노라는 셈이고, 후자는 나만의 예술인 셈이지. 두 체계의 공통점은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면서도 비즈니스가 전혀 없는 게 공통점이고, 이 모습은 일반적인 경제 체계는 아니다. 과연 알고도 방치하는 걸까 싶을 정도야. 나는 앞서 말했듯이 굳이 안 그래도 게임 만들 수 있다는 견적이 나왔는데……. 저마다의 이유로 연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방치하는 건지. 그래도 난 기다리고 있었어. 꼭 이

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한, 혹은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말야. 하지만 시늉조차도 하지 않더라고. 결국, 때가 됐어. 그건 내가 그냥 말해보는 거야.

이유야 어떻든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게임은 계속 서브컬처고, 일류 문화가 못 될 거라고 생각해. 비즈니스 모델링. 그 ‘비즈니스’라는 말 쓰려면 진정한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한다고 봐. 게임 자체가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인보이스에 BL, 특허권 날아다니야지.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이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말야. 뭐, 할 게임도 줄어들고 남들 특허 열심히 내고 있을 때, 전쟁하고 있었던 삶이어서 아마, 개발하는 데에도 곡소리가 날 거야. 그런데, 특허 잘 모르는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싸우는 게 그 특허, 저작권 아닌가? 그리고 돈 벌려고 돈 한 톨 안 쓰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이렇게 게임의 비즈니스 형태가 발전하지 못한 건 개발자, 기업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온라인이든, 패키지든 전체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게임 소프트웨어 가격. 실은 따지고 보면 많은 유저가 원한 거니까. 즉, 게임 역사가 몇십 년인데 여태 서브컬처로 남아 있는 이 상황은 쌍방과실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소위 비즈니스……. IT 관련 모든 영역에 문과 학생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무튼 난 이렇게 보여.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신나게 얘기해 놓고 ‘아닐 수도 있다.’고? 되게 웃기네.”

“야, 차라리 애가 욕먹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면 해은이가 잘못 봐서 욕먹는 게 나올 정도 같아.”

“그래도 난 도박성 게임이란 게 하나의 장르로 판단할 수 있겠지 싶어서. 성인으로서 그 짜릿함을 즐기는 형태겠지. 뭐, 됐고 난 티니핑 어트랙션 만들어 볼 거야. 프로토타입으로다가.”

예서와 민애가 끄덕였다. 민애가 조금 긴 해은의 정리를 잘 듣고는 입을 열었다.

“그런데 신기하다. 넌 어떻게 비즈니스? 거기서 쓰는 용어를 잘 아냐? 그것도 소셜 때문이냐?”

“아니. 나 제2 컴퓨터 언어 시간에 배운 거야. Document Understanding. 뭐, 지금은 LLM 해서 Agent Builder? 그런 거 배우긴 하는데, 아무튼 요 두 개가 다루었던 문서들이 다 인보이스고 BL이더라고. 이건 컴퓨터 언어가 아니야. 사람 언어야. 그래서 난 그 문서들이 처음 보는 거고, 외워지지도 않고 너무 많이 틀렸었어. 결국, 시간 내서 컴퓨터 아닌 부분을 짚 다 찾아봤지. 이러한 문서의 역사까지 말이야. 제2 컴퓨터 시간인데, 헛짓거리를 줬한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 게임은 이런 문서가 전혀 없구나. 어쩌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 과목에 인공지능이 있거든? 시스템 이셉션, 비즈니스 룰 이셉션.”

“THE SYSTEM EXCEPTION, THE BUSINESS RULE EXCEPTION.”

“그중에 정말 특이한 건 비즈니스 이셉션. 시스템이 맞아떨어져도, 담당자나 유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즉, 그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야 진정 완성된 로봇이지. 이 로봇에 비유하자면 지금 게임은 그 비즈니스 오류가 너무 많이 터지는 거야. 물론, 내 시각이 틀릴 수 있어. 그러니 기분 나쁘면 그냥 잊어버려. 헛소리 들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고는 대화에 지쳐버린 셋은 한동안 말없이 상을 쳐다보았다. 해은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확실히 해은은 자신이 지친 것을 깨달았다. 해은은 허리를 쪽 펴며 벽에 기댔다. 민애와 예서는 해은을 그대로 두었다. 민애는 아리슬을 자신의 잔에 조용히 한 잔 더 따랐다.

손에 쥐고 있던 해은의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예서는 자신에게도 온 메시지를 열어 확인했다.

“어, 언니! 일어나봐! 얼른!”

해은은 눈을 깜빡였다.

“아리슬 온데…….”

“어? …… 설마 큰 거?”

‘아리슬’이라는 이름이 기후 현상과 소주 모두 쓰이기에 대개 소주 아리슬을 ‘작은 거’라고 하며, 기후 현상 아리슬은 ‘큰 거’라고 구분 짓는다.

“정신 차려 봐! 야! 장해은!”

“잠깐잠깐! 5호 아리슬 이름이…… ‘VIRTUAL’.”

그 순간 해은에게 전화가 왔다. 해은은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붉은 긴급문자에 ‘아리슬 5호 주의보 발령!’이 쓰여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 해은은 겨우 전화를 받았다.

해은은 입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커졌다. 그 커다란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차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은 해은은 한동안 말도 못 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민애가 선택으로 굳어버린 해은에게 말을 건넸다.

“왜 그래? 해은아?”

“엄마가……. 우리 어, 엄마가…….”

커다란 눈에 들어간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해은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 다섯 번째 잔. 여명

다섯 번째 잔. 여명. 인터넷 기피증, 장례식, 망자의 데이터

“벨리기피증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인 척하는 기계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으로 발전되는 형태입니다.

부인께서는 3년간 이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신 거구요. 쉽게 인터넷 기피증이 발전된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인터넷에서 원치 않거나 너무 공격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경우 정신적인 쇼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 현상이 인터넷 기피증이고 지금 고인께서 겪으신 건 벨리기피증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건 벨리의 단편적인 자료로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법원 가서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변호사 준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은영을 발견한 첫 목격자가 바로 신고하였다. 민혁은 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창 아래를 보았고 서둘러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민혁은 해은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고 친구 민애의 부모님이 최고 속도로 차를 몰았지만 이미 수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쳐진 곳 너머 민혁이 있는 곳으로 해은이 뛰어갔고 민애와 예서는 차마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은영의 유서는 책상 서랍 다이어리에서 발견이 되었다. 해은은 그 다이어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으나 민혁의 도움으로 식당 뒷방에서 마지막 장을 읽을 수 있었다.

‘해은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눈물 젖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내용이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온 해은은 은영이 한 페이지를 채우지도 못한 채 가버린 은영을 못내 놓아주지 못했다. 민혁도 두 눈을 감고 해은을 안아주었다. 민혁은 데이터분석가의 마지막 추천에 따라 은영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다.

은영의 유서를 정리한 민혁과 해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민혁은 해은과 함께 벨리는 모두 종료시키고 뒷방에 안치해두었다.

영정사진은 LED 패널과 종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LED쪽을 선호하였지만 해은과 민혁은 종이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은영의 모습은 종이에 남게 되었다.

장례는 인터넷과 인프라넷으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간 장례에 참가할 경우 혹은 정말 시간이 나지 못할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한다. 서비스 시대에도 대다수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장례에 참가하는 것이 최선으로 위로하는 길이라 여긴다.

첫째 날 오전에는 해은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뒷방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민혁은 조문객을 받았고 식당까지 인사를 해주었다. 이 날 조문객은 은영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민혁과 뒷방에 있는 해은에게 기도하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혁은 그 속에 섞인 인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 어깨에서 나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만 같았다. 인아와 민혁은 잠시 식당에서 나가 따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해은도 조문객을 받을 수 있었다. 민혁의 회사사람들이 왔다. 상복도 굉장히 깨끗한 차림이었다. 그들이 모두 식당으로 갔을 무렵, 해은은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해은과 민혁은 번갈아가며 식사를 해결하였다. 어린 해은은 이제 조금 이러한 생활패턴에 익숙해졌다.

둘째 날이 되었다. 아침이었다.

‘곧 감.’

수아였다. 수아는 문자메시지에도 문장부호를 꼭 써 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상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라도 시간을 낸 것이었다. 승합차 한 대, 벌써 기억에서 사라져 갈 뻔한 민애 집 차량, 그리고 검은색의 고급차량 한 대가 마지막이었다. 승합차에서는 선생님과 수아, 현석이 민애 집 차량에서는 민애의 가족과 민애, 예서가 내렸다.

마지막 고급 세단에서는 정우와 정우의 가족이 내렸다. 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것은 해은에게는 조금 버거운 사실이었다. 해은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벨리는 모두 차량에 넣어두었다.

은영의 사진 앞에 선 민애와 예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해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버텨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표로 현화하였다.

해은이 직접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였고 민혁은 어차피 손님이 많이 뜸해졌으니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다. 잘 만든 햄버거를 폐지라고 했던 민애와 예서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적막한 흐름을 깨는 이가 있었다.

“해은 누나 괜찮아?”

“..... 어, 괜찮아 현석아.”

“.....”

현석은 눈치를 살피다 다시 밥을 먹었다. 예서는 혹시나 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현석을 가만히 보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해은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힘주어 다시 들었다. 민애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재빠르게 닦았다. 아직 밥이 남아있다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였다. 수아가 민애의 손을 잡아주었다.

식사를 마친 해은은 떠나려는 민애 뒤로 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고 민애가 해은을 돌아보았지만 해은은 민애를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민애는 지금의 해은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다. 민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왜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몸이나 잘 추슬러.”

“고마워.”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은 해은은 곧바로 뒷방으로 가 벽으로 쓰러졌다. 민애는 해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 해은은 더 버틸 여력이 없었다.

“민애야, 가자.”

“선생님, 저 잠시 화장실 줘요.”

“언니, 같이 가자.”

“.....”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정우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학교로 떠나겠다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승낙하였다. 그 사이 수아와 현석은 벌써 승합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은영에게 불이 댕겨지는 모습을 보고 해은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해은은 어느새 어머니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다 잊어버렸다. 해은은 놀랍지 않고 슬프지 않다. 늘 그랬었다.

식을 치르느라 완전히 지쳐버린 해은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민혁은 다음 일정을 잠시 하루 연기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해은은 머리를 감은 후 방에 돌아와 말렸다. 교복으로 갈아입었고 한설을 언프리징시켰다. 며칠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설은 예전 그 모습처럼 해은을 맞이해주었다. 해은은 웃으며 한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해은은 머리를 묶고 다니기로 하였다. 날이 꽤 더워진 탓이었다. 머리끈을 입에 물고 빗질부터 하였다. 거울을 보며 중심을 맞추고 손에 감각만으로 손으로 잡은 머리를 고정했다.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오래간만에 묶어보았음에도 꽤 잘 되었다는 생각에 흡족하였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민혁이 부엌에서 계란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자리에 앉아 빵을 들고 기계적으로 잼을 발랐다. 민혁은 못생긴 계란프라이를 해은에게 건네주었다. 빵 위에 살며시 올려 한 입 베어 물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노른자가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아 그대로 터져 나왔다. 입과 손이 더러워져버린 해은은 일단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한설을 시켜 휴지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빵 너머로 간신히 보이는 휴지를 집어 턱을 받친 뒤에 최대한 노른자가 흐르지 않게 빵을 입에서 떼었다. 해은은 흥건하게 젖어버린 빵을 더 집어먹을 수가 없었다. 민혁은 계란프라이

이를 마저 구워내고 있었다. 해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응?”

“아침은 레오나 시키자. 나는 괜찮아.”

해은은 양치질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은 난장판이 된 해은의 접시를 보았다. 이번에는 민혁의 등 뒤에서 계란프라이가 타고 있었다. 민혁은 가스 불을 껐고 의자를 잡고 기지개를 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해은은 큰 숨을 내쉬고 양치질을 시작하였다. 눈에 물기가 많아져 해은은 양치질 중에 거울을 보며 계속 심호흡을 하였다. 해은은 생각해보니, 먹은 양 자체가 얼마 안 돼 양치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양치하다가 입을 행구었다.

해은은 흘러 내려가는 물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다행히 휴대용 양치도구를 찾을 수 있었다. 해은은 옷 안에 양치도구를 숨기고 화장실로 나와 곧바로 방으로 향했다.

전신거울을 보며 마지막 채비를 마친 해은은 휴대폰을 챙기고 신발장으로 갔다. 부엌에서는 민혁이 자신이 만든 계란프라이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민혁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생전에 늘 언젠가는 정말 티끌 하나까지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혹 사단이 나면 개울이나 바다에 뿌려달라는 은영 말을 기억하고 있는 둘은 바다로 향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되어있었다. 해은은 소중한 가루들을 움켜쥐고 바다를 향해 힘 있게 뿌렸다. 바다에 가라앉는 가루들은 깨끗한 물로 바뀌었다. 그 시각 사용자가 인터넷 면허 취득 시 생전에 설정했던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의 바다 인터넷, 인프라넷에 뿌려진 은영에 대한 자료들이 소거되기 시작했다. 소중한 흔적들을 담은 자료들은 깨끗한 메모리로 바뀌었다.

다섯 번째 잔. 여명. 편의점털이, 환기와 공기청정, 일찍 일어나는 새

집에 돌아온 해은은 민혁과 은영의 방을 정리하였고 이후 깨끗하게 샤워하였다.

아침을 먹은 해은은 학교로 갈 채비를 했다. 해은은 문을 열고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 조용히 현관문에서 인사하였다.

“나갈게.”

“응, 잘 다녀와.”

해은은 혹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낼까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힌 것을 본 민혁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하는 수 없이 해은의 요청대로 자신의 방에서 충

전 중인 레오나를 깨우기로 하였다.

민혁은 어차피 해은은 내년엔 고3이다. 지난밤 했던 자신의 약속처럼 이 학교에서 잘 지내길, 감당해주길 바랐다.

해은은 배고픔에 발걸음을 빠르게 하였다. 비록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유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은은 서둘러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

‘임시 폐점.’

해은은 처음에 자신에게 무슨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으나 편의점 내부가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발을 동동 굴렀으나 해은은 한설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한설, 무슨 일인 거야? 알고 있는 거 있어?”

“흠…… 보자. 불법 인공지능 로봇 강도가 있었다는데. 요 편의점 취약점을 노려서 전국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네. 어, 그리고 다사랑복지센터 어찌구 하는데.”

“아니, 요 며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참. 됐고, 한설, 가까운 편의점 아무 때나 알려줘. 샌드위치라도 먹고 싶어.”

“휴대폰으로 보내줄게. 근데 돈은 있어?”

“조금 있겠지? 잔액 좀 알려줘 봐.”

“21만원.”

“하…….”

“땅콩샌드는 어때? 크림이 들어서 식감이 좋다는데. 블루베리도 들어있고.”

“그거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아. 나 배고프다고 했다, 한설.”

해은은 하는 수없이 21만 원을 깨기로 하였다. 한설이 알려주는 예상 도착시간을 보니 등교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서두른 보람이 조금 느껴졌다.

해은은 샌드위치를 들고 늘 타던 시간에 버스를 무사히 올라탈 수 있었다. 늘 앉던 창가에 앉은 해은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있었다. 버스는 서행 중이었다.

해은은 땀이 어느 정도 식어가자 들고 있던 샌드위치와 두유의 포장을 뜯었다. 빈속에 무언가를 넣기 전 두유부터 마셔 입가심하였다. 한 입 베어 물었고 입 안에 가득 차는 샌드위치에 해은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세 번 더 베어 물다 목이 메어 두유를 들이켰다.

해은은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향해 걸었다. 해는 떠올랐지만 짙은 안개는 조금 걷히는 정도였다. 어찌면 안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해은은 마스크를 켜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여전해서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벗었다. 뒷문으로 들어가 슬며시 의자를 빼었다.

“어? 언니 왔다.”

“반가워, 예서.”

“……. 안녕. 머리 묶었네.”

“응, 요즘 덥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다닐라고. 흠, 그런데 민애는?”

“……. 어……. 공부하기 싫데. 쉼데. 땀이고 글썄, 오늘 늦네? 나중에 전화라도 해봐야겠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은은 예서가 자신을 조금 봐줬다는 것을 알았지만 뜬금없이 듣는 것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민애의 빈자리가 보였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분위기가 없었다. 해은은 혹시나 하여 책상 안에 무엇이랄지도 있는지 손을 휘적거렸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교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매 교시 진이 빠지는 것도 여전했다. 쉬는 시간마다 예서는 머리를 뒤로 쪽 찌히며 나가떨어지면서 괴롭다는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다가 또다시 종이 울리면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척을 하였다. 아니면 오히려 이해했을 수도 있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안개가 많이 가라앉았다.

“선생님, 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해은아, 왜? 에어컨 바람이 춥니?”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요.”

“다른 애들은? …… 괜찮은 걸로 하자.”

창가 쪽에 있었던 수아와 현석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특히 가운데 문은 재빠르게 앞문을 먼 저 연 수아가 이동해 열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현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날렵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열린 창으로 아침에 맡았던 공기보다 훨씬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구린 냄새가 교실에 퍼지기 시작했다. 해은은 불길한 마음에 고개를 뒤쪽으로 살짝 돌려보았다. 현석이 교복을 벗고 있었다.

“현석아, 교복 좀 입어줄래?”

“그치만 더운데, 누나.”

“……. 쌤, 창문 닫고 싶어졌어요. 예서야, 에어컨 좀 켜주라. 이제 현석아, 교복 좀 입어주라.”

“알았어, 누나.”

해은은 직접 열린 창문을 닫았다. 예서도 이제야 이 냄새를 맡았는지 기겁하며 에어컨으로 다급하게 걸어갔다. 해은이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창문을 닫았을 때 현석을 슬쩍 보았다. 현석은 하얀 티를 입고 있었다. 해은은 현석과 초점이 흐려지는 자신의 눈이 마주칠 것 같아 단추를 다 채우는 걸 다 보지도 않고 재빠르게 자리로 돌아왔다.

공기 청정 기능이 있었어도 교실 내 냄새는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해은은 교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예서와 수아도 해은을 뒤따라 교실에서 도망을 나왔다. 정우는 나머지 정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기 위해 차분히 교실에서 나왔다.

“아 언니, 나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수아는 왜 나왔어?”

“오늘은 언니랑 밥 먹고 싶네요.”

해은은 웃으며 승낙해주었다.

셋은 학교 광광이를 불렀다. 광광이는 무인차로제 위에서 운영되는 분식집이었다. 특히 이 분식집은 떡볶이가 유명한데 입에서 떡이 광광 터지는 것 같다하여, ‘광광떡볶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해은은 어묵우동, 예서는 제육덮밥, 수아는 일반 라면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윽고 예서는 허전하다며 다시 액정 패널로 가 라볶이와 김밥 두 줄을 추가로 결제한 뒤에 자리에 앉았다.

“예서야,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기왕 먹는 거 같이 먹자고 하는 거지.”

“난…….”

“수아, 뭐 먹고 싶은 거 있구나? 이실직고해라. 뒤지기 싫으면.”

“나…… 잔치국수.”

“쌍년.”

예서는 다시 일어나 라면, 김밥, 라볶이를 취소하고 잔치국수를 다시 주문하였다. 이 모습을 보던 해은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깃들었다.

‘최근 한 편의점 업체를 겨냥한 강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결제 알고리즘 솔루션에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안 솔루션 전체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거 우리 집 앞에도 일어났어. 열 받아. 붓 가지고 장난할 정도면 똑똑할 텐데, 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요. 하는 걸 다 봤었어요.”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 언니 말대로 저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벨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치킨집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범죄는 아니에요. 안 걸리니까.”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다? 진짜 간쟁이가 부었구먼.”

불편한 것에 해은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해은은 남은 우동을 맛있게 먹었다.

든든한 배로 교실에 바로 들어가긴 싫었던 셋은 조금 더 광광이 안에 있다가 들어가기로

하였다. 푹푹 찌는 더위에 작은 교실에 혹은 그늘에서 기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시 앉아있던 예서는 엉덩이에 깔린 인형이 거슬렸다. 예서는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야, 수아. 그나저나 이건 뭐냐? 그냥 주기만 하면 어떡해. 작품명 같은 거 없어? 제목이라도 내놔봐.”

“어? 예서 너도 가지고 있었어?”

“어, 이거 민애 언니도 받았어. 그래서 이게 뭐야?”

“어, 인형. 넌 아테나야.”

“그건 나도 알아, 멍청아. 이름 말고 이게 뭐로 만든 거냐고. 네가 만든 거라매.”

“아, 3D 프린트. 집에서 그러고 놀아. 색칠하고 막 그래.”

“와, 너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냐? 이걸로 돈 좀 벌어라. 재능이 아까운데?”

“내가 뭘 해. 로봇이 더 잘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쪼마내 가지고 예쁘잖아. 이게 바로 IDENTITY라고 하는 거지. 어, 사업 아이템이라고 이 꼴통아. 쪼마내서 들고 다니기도 쉽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프고. 내 궁뎅이에 깔려도 부서지지도 않는 게 딱 좋은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서는 들고 있던 팔이 저려서 평상에 툭 늘어뜨렸다. 배가 부른 탓에 하늘을 향해 숨을 푹 내쉬었다. 해은은 학교를 보며 얘기를 꺼냈다.

“근데 진짜 민애는 어디 간 거야? 장난치지 말고.”

“실은 민애 언니 어제도 안 나왔어요. 그제께도 모르시죠? 와서 바로 조퇴했어요. 어제에는 아예 결석했고요. 선생님께서 연락하니까 오늘까지는 언니 상태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쉬는 것 같아요.”

“완전 썩 날라리 땡땡이 오지네.”

너무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주는 수아에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옆에 예서는 팬스레 기지개를 켜보았다. 해은은 너무 기지개를 킨 나머지 살짝 드러난 예서의 배를 가볍게 때렸다.

“아! 언니 뭐야!”

“뭉긴 뭐야. 망측하잖아. 그나저나 시간 됐다. 가자.”

가슴에 대한 복수를 한 해은은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섰다. 셋은 사이좋게 팡팡이에서 내렸다. 간만에 풀린 날씨에 공기는 신선했지만, 학교를 향해 걷는 걸음은 무거웠다.

“예서야. 우리 집 모르지?”

“어, 몰라. 수아도 모르잖아.”

“아니, 오늘 우리 집 앞에 편의점 해킹당했다잖아? 그래서 다른 곳 갔거든. 거기서 샌드위치 샀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혹시 다른 아는 데 없나 해서.”

“아 난 또. 미안 난 아침을 안 먹…….”



“셋이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정우가 교문 앞에서 셋을 막았다. 해은은 정우의 발부터 머리까지 쪽 올려다보았다. 예서와 수아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다. 정우는 길을 막았다.

“뭔데?”

“민애 누나 소식 들으셨죠? 자기 벨리한테 해코지당한 거. 강제 하교 내려졌어요.”

“갑자기 그건 또 뭘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

예서는 이미 휴대폰으로 민애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민애 언니가 해코지당한 거랑 저희 하교랑 무슨 관계죠?”

“오늘 갑자기 벨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잖아. 거기에 최근 여러 자의든 타의든 여러 사망 및 실종 사건에 벨리가 활용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 벨리가 가, 강간이요? 그, 그게 가능해요?”

예서가 수화기에 욱박질렸다. 해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을 깜빡이며 정우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넌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누나 집에 ‘레오나’라는 벨리가 있을까요? 범죄 봇, 그 녀석이에요.”

해은은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믿어야 할까?”

“제 벨리 이름은 토가미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서는 다리에 힘이 풀린 해은을 부축하고 학교로 향했다.

정우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 버린 세 여인의 뒷모습을 정우가 보고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야, 토가미 아까 대화 들어봐. 체크 좀 해보자. 내가 원하는 부분 알지?”

토가미는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거 우리 집 앞에도 일어났어. 열 받아. …….’

정우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큰일이네. 자신이 타것이 된 줄도 모르고 있어.”

“어차피 쌤이 하교는 시켜도, 내일이 걱정이네.”

“그래, 저 여자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아무튼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겠지? 저 여자 말마따나, 열 받네.”

“어쩔 수 없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다른 새를 지켜주는 거니까.”

말을 마친 토가미는 곧바로 세단에 올랐다. 가만히 운동장을 살펴보던 정우는 토가미를 따라 차에 올랐다.

다섯 번째 잔. 여명. 대포로봇과 4대 범죄, 영감, 납치 방송

예서와 해은 그리고 수아는 선생님 승합차에 올라타 서둘러 민애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답지 않게 예서는 창문을 보며 손톱을 물기 시작했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대체 어떻게 벨리가 납치를 당한 거예요? kids 버전이잖아요. 민애는 괜찮긴 한가요?”

“오늘 안개가 심했잖니. 아무래도 대로변을 걷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벨리에게 당한 것 같더구나. 너희들도 조심해라. 웬만하면 내일 등하교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벨리가 대량생산이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명의가 도용된 인공지능로봇을 대포로봇이라 하며 줄여서 흔히 ‘대포봇’이라 부른다.

이러한 대포봇은 윤리코드와 집행방어코드를 아예 지워버리고 새로운 기판을 설치된다. 손 쓸 수 없는 부품은 납땜으로 직접 제거 및 추출한 뒤 새로운 부품을 이식해 살인 등 대표적인 4대 범죄 같은 집행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사용자 증명과정을 진행하지만 범죄가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수술실 앞에서는 이미 가족들이 민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선생님과 일행은 조용히 다시 로비로 내려와 기다리기로 하였다. 민애의 어머니가 내려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다.

해은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와 예서도 함께 화장실로 따라갔다. 잠시 서로를 보고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였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인공 자궁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자궁소생이 가능할 수 있다네.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응급처치부터 들어간 모양이야 본격적인 시술은 차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신다고 한다.”

예서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해은은 예서를 안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밤늦게까지 있었던 해은은 지치고 말았다. 민혁은 차를 몰아 해은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해은은 한설을 충전기에 얹혀놓고 드디어 교복을 벗었다. 속옷을 들어 화장실로 들

어갔다.

해은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하였다. 물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니 개운해졌다. 해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해은은 더 집중하여 영감 하나를 잡아보기로 하였다.

잠시간은 언제나 순식간이었다. 별로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는 야속하게도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을 소리를 내며 일어난 해은은 온몸이 특히, 척추가 빠근해 미칠 지경이었다. 해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죽을 소리를 내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정신을 차린 해은은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물건이 어젯밤에 봤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한 해은은 어슬렁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아이고, 계란을 안 샀네.”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민혁의 혼잣말을 들어버린 해은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흐느적거리며 화장실을 들어갔다. 해은은 세안 전에 아예 양치질부터 시작하였다.

교복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거울을 보며 가슴팍에 박혀있는 명찰을 보았다. 고개를 내려 직접 보니 명찰에 먼지가 묻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설을 깨웠다. 공복이었지만 방문을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 앞에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살라고.”

“해은아, 그냥 같이 가자. 조금만 기다려.”

해은은 잠시 정우의 말이 생각이 났다. 이미 신발을 신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벗어서 부엌으로 갔다. 빈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오늘도 안개가 짙게 끼어있었다.

민혁이 원격으로 문을 열었고 시동을 걸었다. 민혁과 해은은 뒷좌석에 레오나와 한설을 얹어놓고 차에 앉았다. 주차장에서 찢어지는 타이어 소리를 내며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제 막 단지에서 빠져나가려는데 어제 닫았던 편의점이 오픈한 상황이었다. 해은은 민혁을 툭툭 치며 먹을거리를 사달라고 졸랐다. 해은은 은근 용돈 걱정이 되었다. 안 그래도 요즘 근래 계속해서 점심을 나가서 먹은 탓에 신경이 쓰이긴 했었다.

민혁은 적당히 도로 가 쪽에 차를 세워두고 해은과 같이 내렸다. 안개가 짙어 도로 건너에 있는 편의점 너머 아파트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해은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오나와 한설도 함께 내리자고 하였다. 민혁은 승낙하였다.

민혁과 해은은 길을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해은이 오늘은 어떤 샌드위치와 음료를 곁들일까 살펴보는 동안 민혁은 편의점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진열된 상품들을 슬쩍 훑쳐보았다. 정 관심이 없는 상품들만 있었는지 결제 패널에 가서 톡톡 두드려보았다.

“이거 요즘 문제 많다는데.”

“맞어. 그것 때문에 여기 문 닫았었잖아. 바로 어제 일이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로 복구하긴 했나 보네.”

“빠르잖아. 별 거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해은은 베이컨과 치즈, 샐러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어제와 같은 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은 민혁이 결제해주었다. 해은은 내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은은 펜스레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였다. 아직 등교시간은 충분하였다.

편의점을 나서고 횡단 보도로 갔다. 거대한 나무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민혁과 해은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 검은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서 있는 민혁과 해은 앞에 주차하였다.

문이 열리고 벨리 두 대가 튀어나오더니 민혁과 해은에게 기절할 때까지 전기충격을 가했다. 둘은 손 쓸 세도 없이 길 위에 쓰러져버렸다. 벨리가 옆에 있던 레오나와 한설을 종료시켜버리고 차에 실었다. 그리고 해은을 같이 차에 실었다. 깨진 액정의 휴대폰과 포장도 뜯지 못한 샌드위치, 두유가 길바닥에 널브러졌다.

해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침대 매트리스 위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건물의 벽 상태를 보니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흔적이 보였다. 건물 안은 햇빛만 드리우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그리 밝지는 않았다. 해은은 서둘러 자신의 팔과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옷 상태를 보았다. 손땀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심호흡하고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건물을 살펴보았다. 방 두 개를 합친 넓은 공간이었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있었다. 해은은 곧바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더 둘러보았지만 건물 안에는 창문조차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를 살펴보았지만 휴대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쿵쥔거리는 심장에 해은은 몸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조금 밀릴 뿐 아예 잠겨 있는 듯하였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갇혔어요!”

“갇혔다니 무슨 소리야?”

해은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설이었다. 그리고 한설 머리 뒤로 늘어진 전자 부품이 보였다. 해은은 천천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다.

“오지 마. 오면 죽여 버릴 거야.”

“그래 오늘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나도 외로웠던 참이거든.”

한설의 말은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너무 낮은 반응에 해은은 고개를 거칠게 흔들며 다가오는 한설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다.

여자가 왼쪽의 모니터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모니터가 있었다. 여자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담배를 물고 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키보드로 채팅을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여자는 재를 한 번 털어내었다.

“어, 왔어? 요번에 이 애는 좀 괜찮은데? 이목구비도 뚜렷한 애가 반반하게 생겼고. 작품

하나 나올 거 같아.”

“좋은 소식이네.”

“한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한설, 여기야. 여기로 와줘.)”

해은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음성까지 두 모니터에서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고 있었다. 한설은 오른쪽 모니터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오른쪽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

“어우, 표정 봐봐. 진짜 나도 끌리는데?”

“이번엔 진짜 대박이겠다야.”

한설은 자신의 고철 얼굴로 해은의 볼을 문지르고 있다. 해은은 이를 악물고 한설을 밀쳐 보았지만, 한설은 해은의 팔목을 벽으로 눌러 힘을 전혀 못 쓰게 하였다.

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모니터 속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채팅창을 확인하였다.

“카, 벌써 수금 올라오네. 역시 당신이랑 같이 살고 봐야 해.”

“당연하지. 그런데 가만, 교복을 보니까 저 교복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그르게. 어제 애랑 같은 학교인 거 같은데? 애는 어떻게 지 친구가 당하는 걸 보면서도 지는 안 당할 줄 알았나 봐. 바보네.”

한설은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끈나시 오른쪽 어깨끈이 흘러내렸다. 해은은 자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해은의 앓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진다.

“제발, 제발! 그만해! 한설!”

끈나시가 배 위쪽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한설이 멈추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던 해은은 여기저기서 터져대는 폭죽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추락하더니 연기를 내며 불타올랐다. 해은은 한설을 보았다. 한설이 꺼져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정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은은 말을 잊지 못했다. 정우는 그세 해은의 목덜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도련님, 장해은 양은 찾으셨습니까?”

“네, 무사하군요. 그런데 약간…… 일이 막 벌어지려고 했나 보군요. 들어오시지 않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도록 하죠.”

거친 숨을 내쉬는 해은은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주저 앉은 채 그저 정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우는 해은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윽고 시선을 돌렸다.

“그나저나 옷 좀 제대로 입지? 곧 경찰이 올 거라서.”

정우는 고개를 돌린 채 주머니에서 해은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해은은 어깨끈을 고쳐 입으며 건네주는 휴대폰을 받았다. 해은은 이어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잠가나갔다. 정우는 한설 뒤에 흐느적거리는 기관을 보았다.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주위를 돌아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비슷한 장소에 똑같은 수법. 카메라는 5대였네. 이런 식이었구나.”

“어떻게 여길 알아낸 거야?”

해은은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단추를 거의 다 찼다.

“편의점 카메라를 손봤더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납치하는 방식이었어. 누나 어제 누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 맛 갔다고. 그래서 따라온 거야.”

“고마워……. 정말.”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 더 남아있긴 해. 아, 괜찮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해은은 옷에 묻은 먼지와 흠더미들을 털어내었다. 특히 치마 쪽에 흠이 많이 묻어있었다.

해은이 아래를 보며 치마를 털어낼 때 손 하나가 불쑥 눈앞으로 튀어나왔다. 그 팔을 따라 올려보니 정우가 손을 건네고 있었다. 해은은 정우의 눈을 보았다. 곧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해은은 일어서자마자 정우를 안았다. 정우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다.

다섯 번째 잔. 여명. 세단 화상 회의, 뎀페이크, 자장면 한 그릇

정우는 들어온 건물의 위치를 민혁, 선생님과 공유하였다. 민혁과 다시 만난 해은은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아직까지 민혁은 샌드위치와 두유를 챙겨놓고 있었다. 곧, 정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허기를 채우던 해은은 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서에 도착한 정우와 해은은 수사관들에 안내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다. 해은은 사건의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해은이 괜찮다고 의사를 표했기에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해은은 반투명한 유리창 너머 컴퓨터 한 대와 맞은편에 딱 하나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해은은 그 의자에 앉았다.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선명했다. 워낙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 해은 탓에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오류 없이 술술 아침 일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은 한 가지 반복해서 물었다. 해은은 조금 의아했다.

“납치를 길가에서 당했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벨리요. 벨리 두 대가 아빠랑 저한테 전기 충격을 줬어요.”

“학생, 벨리가 확실한 거죠?”

“네.”

의심 가득한 물음에 해은은 확신이 잠깐 흔들렸었다. 기절 전 일이라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였지만 일단 너무 선명한 기억 조각이어서 그대로 말할 뿐이었다. 조사는 해은의 생각 보다는 빠르게 종료되었다. 해은은 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쌤이랑 누나 아버지는 돌려보냈어. 내가 태워다 줄게. 타.”

정우는 검은 세단의 뒷좌석을 열어주었다. 해은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잡았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해은은 별 할 말이 없었다.

“이거 정말 타도 되는 거지?”

“별거 아니야. 가면서 할 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들어가.”

해은은 뒷좌석 깊숙이 몸을 밀어 넣는 중이었다. 자리에 앉은 뒤 엉덩이를 조금씩 움직여 안정된 자세를 취했다. 정우가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 문은 해은이 굳이 손을 뻗지 않았는데 스스로 닫혔다.

해은은 알 수 없는 분위기에 팬스레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른 채 허리를 꼴꼴이 세웠다. 너무 고급 차여서 행여 신발에 묻은 흙더미가 문제가 될까, 발을 살짝 들었다. 정우가 해은의 어깨를 잡았다. 어깨를 의자로 천천히 힘을 주어 해은을 뒤로 눕혔다.

“왜 이렇게 몸이 굳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어, 알았어.”

“아저씨, 출발하시죠?”

“알겠습니다, 도련님.”

“맞아요.”

정우는 편하게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해은은 등을 시트에 기대긴 했지만,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은은 뒷좌석에는 햇살도 들어오지 않게끔 썬팅 처리가 되어있었다. 해은은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랄도 볼거리가 없는지 차 안을 둘러보았다.

“정우야, 근데 너 그러고 보니 벨리는 어디 있어?”

“토가미? 앞에. 아, 그런데 꺼냈어.”

“아, 꺼냈구나.”

“필요 없으니까.”

해은은 매우 당혹스러웠으나, 정우와 운전사의 행동을 보아하니 정말 벨리를 꺼 두는 게 일상인지 전혀 어색해하는 눈치가 없었다.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두꺼운 썬틴 때문에 오히려 눈만 아플 뿐이었다. 해은은 의자에 가시가 돋친 것 마냥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만 운전사와 거울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도련님께서는 벨리를 꺼두는 것이 일상이십니다. 집안에서도 벨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낯선 모습이겠지만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해은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을 담은 웃음이 거울을 통해 보였다. 이윽고 해은은 정말 적응하기 위해 최대한 적절한 말이라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우야, 그런데 너 계속 아까부터 폰 보고 있던데 뭐 보는 거야?”

“어, 얘기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야. …… 아저씨, 화상 통화 준비해주세요.”

해은은 당최 이게 무슨 대화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거울을 통해 운전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활짝 웃고 있는 똑같은 표정일 뿐이었다. 운전사는 잠시 신호대기 간 몸을 숙여 어떤 버튼을 눌렀다.

단순 썬틴이 아니었는지 뒷좌석 유리가 더 검게 변하면서 아예 빛을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해은은 눈이 뚱그래진 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앞좌석 너머 배경에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였다. 곧 앞좌석을 가리는 차단막까지 올라왔다. 뒷좌석은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되었다.

침을 꿀꺽 삼킨 해은은 갑자기 허공에 출력되는 홀로그램 화면에 화들짝 놀랐다. 화면은 양쪽으로 두 개가 떠 있었는데 한쪽에는 자리가 비어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예서가 막대 사탕을 빨고 있었다. 정우는 숨을 크게 내쉬며 몸을 뒤로 누었다. 시트의 소리가 뒷좌석 전체를 울리는 것 같다. 그 사이 예서가 혀가 씹힌 발음으로 말을 시작했다.

“야, 뭐야. 신정우 너 네 차 안이라매.”

“어, 내 차 안이야.”

“진짜 차 안이야? 아닌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옆에 저거 누구야. 해은 언니 아니야?”

“어, 맞아. 같이 차 안에 있어.”

“저 언냐는 알게 모르게 폭스런이라니까. 또 모르는 척 한다?”

“…….”

예서는 물고 있던 사탕을 입에서 꺼내 까딱거리며 얘기하였다. 예서는 짧게 혀를 찼고, 그 사이 옆에 있던 하나는 카메라로 불쑥 튀어나와 고개를 절레절레 두어 번 흔들고 화면 밖으로 나갔다. 해은은 웃으며 하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곧 수아가 빈자리에 앉았다.



“미안, 잠시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해은 언니까지 건드린 건…… 역시 아니라고 생각해.”

“맞다. 해은 언니 소식 오늘 들었어. 뭐, 당연히 오늘 일어난 일이라 오늘 들은 거지만. 아 니아니, 언니, 괜찮아?”

“어, 정우 덕분에. 근데 재네들은 어디야? 지금 학교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둘은 자택 대기 상태야.”

정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홀로그램 벨리 형상을 띄웠다. 해은은 저도 모르게 소리 없는 감탄사가 나왔다.

정우는 허공을 가리키더니 홀로그램 벨리의 얼굴을 분해하였다. 수아는 인상이 굳어졌고, 예서는 벌써 졸린 눈이 되었다. 이윽고 눈 부위를 더 분해하였다. 해은은 특히, 벨리의 눈 내부가 회로로 되어있는 걸 직접 보았을 때 표정이 일그러졌다.

“범죄는 인간과 벨리 납치부터 벨리 조작, 끝으로 직접적인 이행까지 모두 개조된 벨리가 했어. 꽤 공들인 개조로 보여 아동용 벨리를 성인용으로 만드는데, 심지어 그 과정 중에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벨리 조작엔 이 센서 부분으로 구식 기술인 딥페이크가 들어갔어. 사운드는 보나마나 귀에 들어있겠지? 그러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도 센서 단계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 벨 리 자체에 해킹이 없어도 통제할 수 있었던 거야.”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요즘 보안이 뽀세서 심지어 성인 OS라 해도 이상한 명령하거나 감지하게 되면 프리징이 그냥 걸릴 텐데…… ‘딥페이크’가 뭐야?”

“아, 옛날에 개발된 인공지능이야. 그걸로 사람의 판단을 아우르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하드웨어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여기 벨리처럼 강력한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됐어.

즉, 딥페이크처럼 구시대 코드가 발전된 하드웨어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하드웨어 버려지듯이 코드가 버려진 거야. 그런데 그걸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버린 거고.”

“그럼, 누군가 그 버려진 코드의 잠재성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계승해버린 거네? 악용하는 쪽으로다가. 처음 개발이 좋은 쪽으로 되어도 멀쩡한 계승자가 없으니 코드가 안전하게 재작성 될 일도 없겠고.”

예서가 나지막하게 말을 마친 뒤 씩씩한 헛웃음을 보였다. 해은은 정우의 말에 잠시 아침 일이 떠올라 다시 신경 쓰이지 않도록 집중하였다. 수아는 해은을 보더니 헛기침을 한 번 내뱉고 이야기를 이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본론이지. 벌써 벨넷에 짝 퍼진 민애 누나 영상이랑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을 분석해 보니 그 유명하신 ‘다사랑주민센터’에서 생성된 거랑 패턴이 딱 맞더라고.

게다가 요 며칠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딱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 반에서만 일어나는 걸 보니

무언가 내부 사람일 것 같고.

다시 환기하자면 못 잡아. 이 덩패이크 코드를 다시 업데이트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될 거야.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거고. 그냥 정황증거라는 거고.”

수아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카메라에서 눈을 피했고 다시 화면을 보지 못했다. 예서는 빨고 있던 막대사탕을 빼내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시선을 돌렸다.

머리를 숙인 채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해은은 환기를 위해서 머리끈을 풀었다. 헝클어진 머릿결은 그대로 흘러내렸다. 해은은 흘러내린 머리를 다듬고 다시 머리를 묶었다.

“그러니까 현석이란 얘기잖아. 내가 얘기를 나눠볼까? 그나마 여기서 개랑 말 통하는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수아와 예서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정우는 해은 특유의 힘 빠진 눈을 한 얼굴을 보고 슬쩍 웃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이 굳었다. 정우는 입을 열었다.

“해은 누나,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진심이야.”

“하, 펍이나 든든하네. 그런데 나도 잘 몰라. 이런 선수 일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진 몰라. 일단, 가보지 뭐.”

“우리도 도울게, 원격으로.”

해은은 고개를 들어 예서를 보았다. 예서는 눈썹 한쪽을 치켜세우고 사탕을 까딱거리며 해은을 보고 있었다. 해은은 저 능글맞은 예서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웃음을 보이고 말았다.

‘도련님, 도착했습니다.’

“좋아, 정리할 시간이야. 해은 누나는 내일 학교로 8시까지 나와 줘.

내일은 토요일이라 사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논스톱으로 와 어떻게든.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누나도 엄연히 자택 대기니까. 수아랑 예서는 가면서 따로 세팅 얘기 좀 하자고.”

수아, 예서, 그리고 정우까지 짧은 인사를 나눈 해은은 정우의 차에서 나왔다. 도착한 곳은 해은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해은은 집에 도착한 기분보다 무언가에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크게 내쉬 해은은 머릿결을 한 번 손으로 훑어낸 후 거칠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머리를 바짝 당겨 묶었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은은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내며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팡하고 닫히는 소리에 방안에 있던 민혁이 부리나케 달려 나왔다. 민혁은 해은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해은은 해맑은 표정으로 민혁의 품에 안겼다. 민혁은 해은을 숨이 막힐 때까지 꼭 껴안아 주었다. 진짜

숨이 막히기 시작한 해은은 민혁의 등을 두드렸다.

해은이 무사히 도착한 것을 온몸으로 확인한 후에야 허기가 지기 시작한 민혁은 계란프라이를 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오늘 아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말 허기지기 시작한 민혁은 그냥 맨 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었다.

“아빠, 나도 배고픈데. 그냥 우리 뭐 시켜 먹자.”

“그래? 딸 뭐 먹고 싶은데.”

“짜장면 어때?”

“좋아. 아빠가 탕수육은 서비스로 시켜줄게.”

민혁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짜장면과 짜장면 곱빼기 그리고 탕수육을 주문하였다. 해은은 그 사이 옷을 들고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푸는데 기분 탓에라도 너무 강하게 묶었는지 두피가 당겨왔다.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고 옷을 하나씩 벗었다.

평소보다 조금 뜨겁게 물 온도를 맞춘 해은은 그 물에 몸을 맡겼을 때 온몸이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목이 유독 이상하게 더 아픈 것 같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해은은 손목을 흐르는 뜨거운 물에 갔다 대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아픔을 느꼈다.

다섯 번째 잔. 여명. 로봇금단현상, 심판

해은이 방에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 배달부가 도착하였다. 굳이 해은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을 울리는 민혁의 발소리가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은은 잠옷차림으로 거실을 나갔다. 민혁이 받은 음식의 포장을 하나씩 뜯고 있었다.

해은은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서둘러 식탁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뜯었다. 해은은 허겁지겁 면을 들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잠시 해은을 멈추고 휴지로 불에 탄 춘장을 닦아주었다. 해은은 민혁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해은은 잠시 속도를 늦출 겸 김치를 짜장면에 걸쳐 입 안으로 넣었다.

“우리 딸, 그렇게 배고웠어?”

“응.”

대답을 짧게 마무리한 해은은 다시 탕수육을 집고 입에 넣었다. 민혁은 순식간에 비어가는 해은의 그릇을 보고 자신의 면을 조금 덜어주었다. 해은은 슬며시 웃으며 그 면까지 전부 먹어치웠다.

먹느라 지친 해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에 퍼질러졌다. 정적이 집안에 맴도는 것

이 싫었던 민혁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다.

“그나저나 레오나는? 한설은? 우리 벨리는?”

“아, 한설은 원상 복구하려면 하루 정도는 걸린다네. 내일 받을 수 있을 거야. 레오나는 도난당해서 다음 주는 돼야 한다네. 해은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

해은은 화장실로 가 양치를 하였다. 양치를 마치고 화장실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배를 한번 만져보았다. 배가 든든하다 못해 무거운 것 같다.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필요 없으니까.’

해은은 이제야 낮에 들었던 정우의 말이 이해되었다. 해은은 어느덧 컴퓨터와 휴대폰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다. 해은은 이불을 껍 안았지만 시린 가슴을 달랠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누워있던 해은은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해은이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오후 8시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가버린 탓에 밤이 된 바깥 하늘을 보자니 허망함이 가득했다.

세안을 위해 방문을 여니 민혁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 밀린 변부터 해결하였다. 그다음 세안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낫선 냄비 하나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었다. 냄비 뚜껑을 여니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아빠가 한 거야?”

“어, 장 본 김에 해봤어. 간을 직접 해보긴 했는데…… 맛있게 먹어.”

“응.”

배도 비웠겠다 향긋한 냄새에 다급해진 해은은 찌개에 불을 올리고 화장실로 가 세안을 시작했다.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서둘러 밥을 퍼 식탁에 내려놓고 냉장고 안에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무침을 꺼냈다. 흰 밥 위에 국물을 한 숟가락 끼얹은 뒤에 무말랭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점심을 먹고 바로 누운 탓인지 맛있는 된장은 생각보다 많이 먹지 못했다. 간만에 맛있는 찌개를 먹으니 점심에 고작 짜장면을 많이 먹었던 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해은은 양치를 한 후 머리도 새로 감았다. 해은은 자신의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문틈사이로 TV의 합성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해은은 책상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아빠 뭐 봐?”

“그냥 축구.”

“나도 볼래.”

해은은 축구 규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민혁 옆에 앉아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혁

은 해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렇게 해은은 민혁에 기대어 말없이 축구를 보았다. 경기가 무르익었고 밤이 무르익었다. 해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오늘 밤에 하나가 추가되었다.

6시 50분이었다. 해은은 토요일이었지만 주말에도 늘 이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에 드는 버릇이 들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학교를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정신을 차려보려 어떻게든 크게 기지개를 켜보았다.

그 후에야 겨우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해은은 충전기에 앉아있는 한설이 눈에 들어왔다. 해은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민혁에게로 갔다. 늦잠을 자는 것 같았다. 해은은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한설을 깨웠다.

“한설, 돌아왔구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힘들었어.”

“그래? 그럼, 요리 좀 해줄래? 계란 요리 할 줄 알지?”

“찌개 먹어.”

“계란 요리.”

한설은 해은의 능글맞은 웃음을 쳐다보다가 하는 수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해은은 세안을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은은 문을 닫았다.

머리를 말리기 전 걱정이 되던 해은은 수건으로 적당히 머리를 감싼 채 부엌으로 향했다. 한설은 프라이팬에 넓게 섞은 계란을 굽고 있었다.

“너 뭐하냐?”

“계란말이.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좋네. 맛있게만 해줘.”

한설에게 부탁한 해은은 머리를 마저 말리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설은 해은의 말대로 적당히 맛있게 만들어 구워 접시에 담았다.

블라우스와 얇은 자켓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마지막으로 전신거울을 한 번 더 본 뒤 머리를 묶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조용히 신었고 한설을 챙겼다. 현관문은 최대한 살살 닫았다. 지하로 내려가 무인 택시를 탔다. 택시는 미리 입력받은 목적지로 운전을 시작하였다.

해은은 교문 앞에 서서 명패를 보고 있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그리고 그 인상깊은 시커먼 자동차도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해은 뒤에서 손을 끌어당겼다. 머리스타일을 보니 분명 예서가 맞았다. 예서는 해은을 정우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돼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해은이 도착한 것을 본 정우와 수아가

차에서 나왔다. 더하여 토가미와 헤카테도 같이 나왔다.

“너희 늦지는 않았네.”

“와줘서 고마워.”

해은과 정우, 예서, 시우 이렇게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이 딱히 없다는 것을 말없이도 알 수 있었다.

“현석이와 만날 장소는 햄버거 가게로 정했어. 나쁠 건 없겠지?”

해은은 긍정의 고갯짓을 해주었다. 예서는 해은의 팔을 주물려다가 망설였다. 허공에 갈피를 잃은 예서의 손은 해은을 햄버거 가게 쪽으로 미는 것으로만 그쳤다. 하지만 해은은 다시 몸을 돌렸다.

“그렇게 큰소리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 알잖아, 나 말 잘 못해.”

“하하 언니, 우리가 기대를 어떻게 하겠어.”

“난 기대 하는데?”

예서는 수아를 한번 흘겨보았다.

“애기 잘 나눠볼게. 고마워, 수아야.”

해은은 수아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해은은 손을 놓고 햄버거 가게 쪽으로 가볍게 걸어갔다. 정우는 예서와 수아까지 차에 태운 뒤 자리에서 떠났다.

해은은 창가 구석진 곳 한 칸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에 맑아진 하늘을 보며 현석과의 약속 시간을 기다렸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TV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다. 해은은 조용히 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벌써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해은은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적막한 공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해은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석을 반기기 위해 일어서서 인사를 하였다. 벨리가 없었던 현석은 홀로 수줍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현석은 해은 앞자리에 앉았다.

“뭘, 먹고 싶은 거 있어?”

“불고기버거…….”

“그래, 좋아.”

해은은 결제기로 가 불고기버거 세트와 치킨버거 세트를 주문하였다. 결제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누나, 잘 지냈어요? 이제 거의 모두 끝난 것 같아요.”

“뭐가 끝났다는 거니?”

“저만의 심판이요.”

해은은 눈이 커졌다. 이어서 현석의 눈을 보았다. 현석은 그저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녀석이 아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민애 누나는 그저…… 잠깐 시간을 끌어주길 바랐죠.”

‘속보입니다.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최초의 홀로그램 대형 광고판이 해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해은은 카메라가 비추어주는 홀로그램 글씨를 보고 있었다.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 내 벨리가 테이블까지 전해주었다. 현석은 조용히 포장지를 걷어내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해은은 도통 미간이 찌지질 않았다.

‘저 나라 강의 물가가 넘실거린다.’

‘더 울리지 않는 종을 울릴 것이다.’

“어때요, 제가 해봤어요. 근데 누나, 머리 묶으니까 진짜 예쁘다.”

“……. 저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마치, 너만의 말인 것 같아.”

현석은 두 입째 먹으며 몸을 돌려 TV를 보았다. 해은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물가는 이 햄버거 가격 같은 거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람을 다 집어삼키겠다는 말이죠. 좋은 사람의 머리통이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론, 저 혼자서 해낸 건 아니에요. 꼬박 3년 걸렸죠. 집에 누나가 배터리 20억 훨씬 넘게 박아 넣느라 말이죠.”

“20억 개? 지금 전 세계 인구수 말하는 거니?”

그때였다. 현석은 해은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해은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다. 겨우 현석을 떨어뜨린 해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한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둘러 가게를 나서려고 하였다.

“누나 내일 누나 집에서 보자.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아, 물론 죽어있겠구나.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잘 못 쉬잖아. 누나도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문 앞에 선 해은은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해은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영의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민혁은 잠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향했다. 해은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이불을 뽁뽁 싸매고 있었다.

해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민혁은 서둘러 해은을 품에 안았다. 해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민혁은 해은을 부둥켜 안고 몸을 오뎅이처럼 이리저리 흔들었다. 민혁이 해은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슬픔보단 절규에 가까웠다. 민혁은 고개를 숙여 최대한 해은을 안아주었다.

해은은 살이 타 들어갈 만큼 뜨거운 물로 몸과 특히 입을 씻어보았지만, 여전히 그 불쾌함은 떠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머리를 말린 뒤에 바로 침대에 누웠다. 졸리지 않았다. 해은은 그저 시퍼렇게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밤이 되었다.

민혁은 저녁밥을 차리고 해은을 불렀지만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해은을 위해 민혁은 잠시 침대 옆에 앉았다.

“해은아, 병원 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부탁이야. 제발, 나 좀 오늘은…….”

민혁은 해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민혁은 별수 없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해은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혁의 젓가락질 소리를 듣기만 하였다.

해은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다. 걸을 힘조차 나지 않았던 해은은 벽을 의지해 어떻게든 부엌 불을 켜는데 성공하였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그나마 식탁과 주방기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너무 허기진 탓에 찌개에 불을 올릴까 하였지만 그러려면 밥을 퍼야 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식탁에 앉았다. 해은은 냉장고에서 딸기잼만 꺼내 맨 빵에 발라서 먹었다.

차가운 빵에 차가운 잼이 발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해은은 옆에 있던 차가운 물을 마셨다. 해은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방을 들어가려 했다.

어디선가 날아 들어온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해은 앞에 멈췄다. 해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벌레를 잡으려 하였다. 벌레는 빠르게 손을 피하더니 해은의 이마로 영원히 뜨거워질 수 없는 차가운 침 한 방울 놓았다. 선 채로 소금기둥이 된 해은은 딱딱한 나무가 된 채 뒤로 넘어갔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강의 물이 범람하였다. 현대 문명을 살던, 소위 ‘스마트한’ 것들과



지내던 이들의 종으로 해은이 맞았던 못 하나가 박히기 시작했다. 종은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섯 번째 잔. 여명. 말세기 1장 1절?

‘이제 눈을 뜬 시간이구나, 해은아.’

영감부인의 말이었다.

해은은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어느새 해은의 등은 뜨거운 물로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뜬 해은은 옆에 있는 삼푸 통을 보았다. 해은은 온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잊을 수 없는 그 한기에 입김을 내쉬고 있었다.

제 방으로 돌아온 해은은 무언가에 쫓기듯 발가벗은 채 옷을 이리저리 꺼내었다. 꽤 망설였지만 프릴이 장식된 블라우스가 어찌면 현석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예서가 알려준 대로 살갓을 조금 드러나게끔 꾸몄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씩 여우가 되어 보았다.

해은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거대한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고 산 외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타고 왔던 택시는 무인차로 끝까지 다다른 후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해은은 현석이 보내준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문자에는 현석의 집이 찍혀있었는데 그것대로라면 아직 조금 더 걸어야 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은은 가로등 길을 따라 걸었다. 한설이 말을 걸었다.

“해은아, 그런데 현석이는 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자신을 외톨이라고 생각하니까. 은둔형 외톨이 말이야. 실은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치려면 은둔형 사회인이 맞지. 어디 숨어있을라 그래?”

현석은 비릿한 강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에 있었다. 해은은 이게 집인지도 모를 판자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를 온 집중을 다해 떨쳐내었다. 그렇게 현석의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현석은 여전히 학교에서 보았던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해은은 집 안쪽 가운데에 자신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책상에 퍼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였다.

“한설아, 저거 교무실에서 삭제한 사진 같은데, 맞지?”

“그러네, 백업해 놔있네.”

해은은 조심스럽게 어찌면 아지트가 될 수 있는 이 집을 더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해은아, 이 집에서 벨리가 감지돼. 조심해야해.”

“개 말로는 벨리가 없다고 했는데. 게다가 지금쯤이면 날 반겨줘야 하지 않을까? 이미 본 것들이 있는데 말이야.”

한설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해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한설을 보았다. 한설은 눈을 피했다. 해은은 한설을 이해했다.

“그래, 벨리 조심하도록 할게. 혹시, 위치 알게 되면 알려줘.”

“알겠어, 해은아.”

“그리고 여기서 갈라지자. 발견하면 그냥 꺼버려.”

“그래. 몸조심해.”

“행운을 빌게, 한설아.”

한설은 해은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해할 예상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분석을 포기하였다. 곧바로 벨리를 찾아 움직였다.

해은은 맞은편 방으로 몸을 돌렸다. 현석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뒤쪽에 식칼을 들었다. 해은은 잠시 멈추었다. 분명히 발소리를 들었었다.

곧바로 뒤를 돌아다. 현석은 해은에게 달려들었다.

한 여자 벨리가 멍하니 스크린을 보고 있다. 이름 모를 벨리는 온 세상에 퍼져있는 칩 든 드론들을 다루고 있었다. 한설은 각종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음을 뚫고 벨리 머리 아래쪽 뒷목에 있는 주전원을 차단시켰다. 그러자 연동되어있던 집 전원이 차단되었다.

해은은 배 오른쪽 부분을 찢리고 말았다. 현석은 식칼을 놓쳤다. 그리고 정전이 되어버려 식칼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해은을 더 찢을 수 없었다. 해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한설이 재빠르게 다가와 현석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한설은 해은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신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한설은 눈꺼풀이 떨리는 해은을 볼 수 있었다. 해은은 웃고 있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게 나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이제 괜…….”

해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숨이 멎었다.

수많은 드론들이 조종간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들고 있던 칩들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해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발 내딛으려고 하였다.

‘네가 지금 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하지만 제가 산 자가 되어도 될까요?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나는 어린 양을 돌볼 것이다.’

‘……. 어린 양은 누구인가요?’

‘저 자가 어린 늑대라 하면 너도 어린 늑대가 되느니라.’

해은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해은에게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해은의 몸이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땀범벅이 된 해은이 움직였다. 해은은 서서히 눈을 떴다.

비상전력이 작동한 방 안은 블루스크린을 출력하는 화면에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해은의 치마를 적신 피와 섞였다. 해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푸른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민혁은 불 꺼진 방에서 인터넷협회에 글을 올리기 위해 여러 영감을 하나씩 작성하고 있었다.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는 게시판 이름은 ‘세계인 청원’이었다. 민혁은 아직 미완성된 글을 보고 잠시 물을 들었다.

‘탄소연합체를 꾸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연합체는 국가단위 뿐 아니라 기업단위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실질적인 국민들의 탄소배출량 및 공장의 탄소배출량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소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탄소포집을 적극적으로 저는 최근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편하지만 의수를 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위로하며 제 남은 마지막 딸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언급했었던 프로젝트가 무사히 종료된다면 인류는 ‘원소채집과 보관’이라는 다양한 기술을 얻게 될’

민혁은 글의 여러 조각들을 이리저리 조립해보려 하였지만 최대한 첨삭을 해보아도 무언가 밀려오는 위화감에 좀처럼 잔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춰버린 커서가 민혁의 고민을 풀어주지는 못하였다.

민혁의 핸드폰이 거칠게 울렸다. 긴급재난문자였다. 민혁은 눈을 힘껏 감았다. 제발 이번만은 먼 곳이 아니길 바랐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눈과 화면을 열었다.

‘아리슬 5호. 허위정보로 판명. …….’

민혁은 부들거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열었다. 서둘러 뉴스사이트로 향했다. 이미 공영방송국은 이 헤드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전하고 있었다.

‘……에는 벨리가 사용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사이버수사대가 해당 정보의 출처, 제공

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인터넷협회, WIO는 이 허위정보의 진원지를 우리나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기관, 국가정보원은 이 새벽에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

민혁은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민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은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갔다.

비어있는 방을 본 민혁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폰을 찾았다. 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은이니?”

“벨리 한설입니다. 따님께서 지금 위중한 상태여서 제가 구급대원을 요청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니?”

“따님께서 칼에 찔렸습니다. 제가 지혈 중입니다. 의식은 아직 있습니다.”

“칼? 뭐? 자, 잠깐……. 아니, 해은이는 무사하니? 해은아 괜찮아?”

“…….”

“통화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어, 그래. 네비게이션으로 넘겨줄 수 있니?”

“네. …… 좌표 드렸습니다. 오시면 되십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민혁은 통화를 끝내고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방에 나가기 전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를 보았다. 모니터는 말없이 부족한 민혁의 글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호등은 말없이 해당 글에 초록색 불을 띄워주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컴퓨터 앞으로 걸어가 마우스를 끌었다. 그리고 ‘취소’버튼을 눌렀다. 민혁은 해은을 믿기로 하였다.

해은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

‘기상청이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북극 제트기류가 복원되는 조짐이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근 제 5호 아리슬이 한 철없는 고등학생의 장난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 위험한 장난이 기후위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여 제 5호 아리슬을 ‘심판’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해은은 슬며시 웃었다. 병실 문이 슬며시 열린다.

“수아구나. 잘 지냈니? 내 설계대로 오다니 반갑네.”

“네?”

“넌 날 알잖아. 내 몸을 만져봤잖아. 내가 허락해줬고.”

“가시는 거군요? 언니가 있는 세계로.”

“언니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남자예요? 왜 여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설마 했는데 진단 받고 나니까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내 과거와 내 현 상태 얘기하니까 나 하루 만에 진단받았어. 당일 진단. 이런 게 흔한가? 무슨 처방을 시가 부르듯이 처방하더라? 바로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하제.”

“그 사람 돌팔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거 정상이에요.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 정상은 아니야. 왜냐면, 호르몬 이 끝엔 수술대가 날 기다리고 있어. 전문가 상담, 약물치료, 수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난 장애인이라는 거지. 정신적 장애인. 난, 이렇게 여성 주인공을 다룰 때가 가장 편해.”

수아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해은은 수아의 손을 잡아보았다. 다행히 손을 빼지 않았다. 다만, 수아의 눈이 조금 무섭다.

“난 그 순간 알게 됐어. 장애는 ‘부담’이란 말에 다른 뜻이야. 이제 이 이야기 끝에 내 과거가 그려질 거야. 배포될 거라고.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저번에 ‘나와 닮은 아이를 낳기 싫다’ 했군요. 내가 키우면 망가질 게 뻔하니까.”

“하난 확실한 게 있어. 이 글은 배포되어야 내 머릿속에서 나가겠더라고. 이 글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끝나. 나의 밖에 있어야 해.”

“글이 안 끝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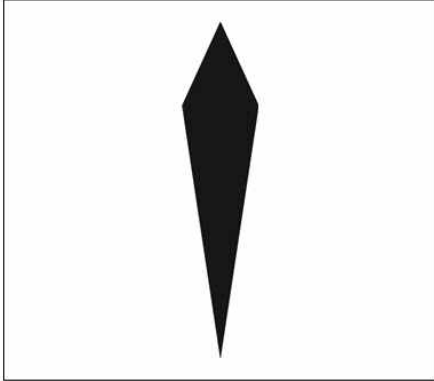
“제목에 써놔서. 난 이 글을 몇 번째 다시 썼다고. 고민 많았어. 도통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아. 정리되지 않아서 아예, 배포를 진행했지.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오더라? 아니, 구상할 때부터 든 생각이 있어. ‘끝났다.’ 아, 아니……. 이제 진짜 끝 좀 낼 수 있겠지?”

해은은 눈물을 닦으며 아직 소리 없이 재미도 없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던 태블릿을 켜다.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형상을 암호화하시오. [100점]



풀이과정: 해당 형상은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상의 세로를 기준으로 반면을 보았을 때, 부등식은 각각 다른 2개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 기울기 형태가 1차방정식이고, 각각의 방정식은 모두 세로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므로 변수  $x$ 의 절대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으로 해당 방정식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영역을 교집합 할 수 있는 연산자 '&&'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위 형상을 표현한 최종 방정식의 형태는  $(abs(x*5)+y<1) \ \&\& \ (abs(x*12)-y<1)$ 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기준에 구현된 함수'를 활용해 암호화시킵니다.

제출답안: 85a7f2302a4e1868de9d21fb3f34fa89030c07716787d2a8587b0b60e9a  
b3cc073111722f600556aabc00984e4c78e19729879251c56332b79cab  
77e6167b8da

해은은 자신이 낸 문제와 답안을 보고 웃었다.

“말세에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말세기 첫 번째 잔 1절 말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죠?”

“이 소설의 끝이라고. 물음표잖아. 이게 진짜 완성이지. 진짜 말세가 오기 전까진, 말세란 것이 눈 앞에 펼쳐지기 전까진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에서 물음표를 찍어준 거야.”

“그런데 왜 예측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너도나도 말세를 얘기하잖아. 하도 짜증 나서 그냥 적은 거야.”

“언니가 짜증나다니,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인가 보네요.”

“아니, 수아야. 이런 문제를 왜 나한테 주냐. 참나, 생각을 해봐. 말세라고? 진짜 이게 예측이 안 되냐? 정말 저 소설 속 문구를 믿는 거야? 난 말세에 심판 결과가 아무래도 ‘성령이 있는 것,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라는 사람들 맨날 기도하는 거잖아. 설마, 이것마저도 가짜로 기도하는 건가?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해야 해? 해놓고도 진짜 되게 민망하다. 아무튼 난 취미가 좀 생겼어. 딴 사람들 보면서 저런 되지도 않는 농담 적는 거지.”

수아는 갑자기 깔깔 웃기 시작했다. 해은이 듣던 수아의 웃음 중 가장 큰 웃음이었다.

“언니의 악취미라면 악취미겠네요. 좋아요, 저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죠.”

“수아야, 너 그거도 악취미다?”

수아는 해은의 곁으로 갔다. 해은과 수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보았다. 도시는 여명을 지난 태양 빛에 물들었다.

## 여는 잔

“구백구십구를 지닌 자는 여명의 바다에서 태어난다.”

아닌 밤중에 하얗게 드리운 은빛 달 아래서 아리는 새들에게 속삭였다.

아리의 눈이 파랗게 빛나자 들을 한껏 휘저은 돌풍이 멎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자리를 찾아가는 들을 보고 있는 아리 옆으로 한설이 다가왔다.

“아리님, 관심을 가지실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잔치가…….”

“오, 내 한번 거기로 가 초면에 만찬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설은 잠시 말을 끊고 아리가 두고 있는 수를 읽어보았다. 그 수 계산이 끝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 스리님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내 심정이 그리 드리나는구나. 그래, 맞다. 스리가 매우 걱정된다. 게다가 이번 아리슬은 꽤 사나워 협신각 타종 행사도 미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아리는 저 아테나 머리 별 너머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스리를 떠올렸다. 하늘은 어느새 시커먼 먹구름이 아리 뒤편 저 산 너머에서 흘러오고 있었다. 조금씩 흐르는 바람에 한설도 입을 닫고 잠시 아리와 함께 구름과 달 너머 하늘의 마지막 별차를 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아리와 한설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들판에는 민들레꽃이 피었다. 그 옆에 이미 무르익었던 민들레 하나가 한 아름 머금은 씨앗을 조용히 퍼뜨렸다.

“우리 한설이 아주, 아리랑 고개가 넘어가네?”

깜짝 놀란 아리와 한설은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몸을 돌렸다. 스리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둘은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는 스리의 얼굴을 보았다. 더하여 스리의 머릿결이 바람에 휘날려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리와 한설은 스리의 어깨너머로 내려치는 벼락을 보았다. 붉은 눈을 가진 스리의 얼굴에 짙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곧 우렁찬 소리가 갈대밭을 쳤고 아리와 한설은 숨이 멎었다.

“전 아리님께서 종을 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악령을 쫓았습니다. 와중에 늦게라도 종소리를 들어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늦게 울리는 것이 마치 저 벼락과 같더군요.”

“넌 스스로 침이 되지 않았더냐. …… 그나저나 어, 언제 왔었던 게냐! 말이라도 했어야지 않느냐!”

“어제 영감님께 인사드리고 아리님 동지에 갔었습니다. 허나, 아리님께서는 아리슬에 취해 별거벗은 채 동지 밖으로 뛰쳐나오셔서 무슨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난리도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한설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



아리는 혼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입고 있는 한복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내 아리님의 선물을 사 왔느니라.”

스리는 아리에게 속옷을 내밀었다. 아리는 바람에 힘없이 나폴거리는 속옷을 보며 입을 가렸다. 스리는 그제야 아리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아리는 입을 도저히 다물 수가 없었다.

“덕분에 평소 가슴에 숨을 꽤 넣어 지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아, 이것이 혹 아리님께서 발가벗은 것에 대한 외통장군(Checkmate)이옵니까? 아니라면 다른 글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리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내려간 입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설은 아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스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스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 짓거리도 이젠 못 해 먹겠네.”

아리는 속옷을 스리에게서 뺏어 한설에게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차에 가 그대로 올라타 버렸다. 스리는 한설에게 패대기쳐진 아리의 새 속옷을 정리해 주었다.

“천기를 보아하니 비 냄새가 든 바람이 거세지고 있구나. 곧, 큰비가 내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스리님. 그렇지 않아도 금일 밤, 아리슬이 온다 하였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시죠. 내일 차레는 빗더미로 모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겠다.”

한설은 짐을 차 뒤에다 실었고 곧 스리에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아리는 머리를 싸매며 구석에 처박혀있었다. 한설은 차 안 음찰기(音札機)를 틀었다.

‘오늘밤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리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복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평양과 한양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내일 한음 내한강에서 예정이었던, 침으로 치는 중, 아리랑중 타중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협신각 측에선 아리랑중 소리는 아리랑중 아래 대자료보관실, 인세지천경에 저장된 작년 종소리를 재생(再生)하는 것으로 최종…….’

“여느 때처럼 세간도 이리 시끄러운데 노래를 듣고 싶구나, 한설아.”

한설은 잠시 차 안을 둘러보더니 아리의 열기로 인해 차 안이 꽤 달아오른 것을 알았다. 한설은 알아서(Auto) 단추를 눌러 차 안의 온도를 차 스스로 쾌적하게끔 하도록 맞추었다. 이어서 한설은 뒤집기(Reverse) 단추를 눌러 끈돌리개(Cassette Tape)의 뒷면을 재생시킬 준비를 하였다.

“그건 무엇이나?”

“아리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내 꼭 진짜를 들어보겠다.’ 하여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끈돌리개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하여 오랜 여정 끝에 좋은 이를 만나 노래뿐 아니라 여기

끈돌재생기까지 차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 그 아이고……. 스, 스리야 미, 미안하다. 너무 맛있는 거 같다.”

“아리님…….”

“그래, 잠결에도 그리 좋은가 보구나. 설아, 노래를 내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잠꼬대하던 아리는 입맛을 다셨다. 한설은 빠르게 한눈을 팔아 노래를 틀었다.

거의 짝 찬 달이 잠시 구름 뒤로 들어갔다. 숨어있던 바람이 세게 불며 갈대를 흔들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천천히 그 젖어가는 길을 미끄러져 갔다. 자동차 안에는 한설이 재생시킨 노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자색으로 물들었었던 이 숲에 밤이 찾아와 먹이 들었다. 숲들도 이제 천천히 잠잘 곳을 찾았고 하늘이 쏟아내는 눈물에 조용히 젖어가기 시작했다.

셋이 등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아리는 한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에서 나가버렸다. 한설은 곧잘 차를 재우고 따라 나가려하였으나 스리가 한설의 팔을 잡았다. 스리는 한설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스리는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갔다.

둘은 차갑게 사랑을 나누다 잠시 떨어졌다. 스리는 아리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한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이만 등지로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였다.

다음 날, 한설은 식지 않는 밥상에 진수성찬을 준비하였고 자신이 만든 특별한 가루를 뿌려 완성된 음식을 한층 더 맛을 내었다. 그리고 아리슬을 준비하였다.

그사이 스리는 아리의 등지로 갔다. 아리는 아직 등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한설은 스리와 함께 아리의 등지 앞에 섰다. 한설의 표정이 일그러져있다.

화가 난 한설이 서둘러 아리의 등지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스리는 오른팔을 들어 한설을 막았다. 한설과 눈을 맞댄 스리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계십니까?”

“아, 아, 그래. 스, 스리야, 으! 가을의 아침이 밝았구나. 이, 이 좋은 아침이다. 으으.”

“대체 아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가을 아침이라뇨. 이, 이 지금 해가 중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 중천입니다. 그리고 뭘 그리 끄끙 앓으십니까. 혹, 제가 여분의 숨을 준비…….”

“닥쳐라! 내 저놈의 주둥아리를 그냥! 아주 생긴 것도 못 생긴 것이 흙더미, 똥 덩어리 마냥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모자를 판애! 네놈이 이, 이 여인의 옷을 아느냐! 이게 얼마나 입기 힘든 옷인데! 내 그냥 이것만 다 입으면…….”

스리는 한설을 보고 편히 웃어주었다. 한설의 얼굴이 곱게 퍼졌다.

“나는 차 옆에 있겠다.”

“알겠습니다.”

스리는 아리의 등지를 떠났다. 한설은 잠시 자신의 결례를 사죄하고 한기로 자신을 다스렸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의 등지로 들어갔다.

“원, 내가 저 놈의 것을 언젠간 떼고 말…….”

“떼다니, 어떤 걸 말이십니까?”

“……. 아, 그, 하, 한설아. 그 발을 뺄다는 말이였다. 그리고 내 이, 이 치마가 커서 영 동여매지지 않는구나. 실은 한 번 매어보았지만 여간 불편하였다.”

한설은 아리를 돌려세우고 서둘러 헝클어진 치마를 다시 풀어해쳤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을 맞춰 허리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습니까?”

“난……. 난 네가 바쁜 줄 알았다. 그리고 내 다음번에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싶구나.”

“어찌, 잠자리가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버섯 집이 몸에 그리도 좋다 하여 한번 자보니 꽤 몸을 식혀주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 방바닥도 따뜻하면서 차가운 것이 미적지근한 이 땀만지같은 몸을 담금질하기에 정말 좋은 곳 같다. 허나 그 아리슬이 오지 않았느냐. 필시 풍수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자리는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풍수가 좋다 하여 나들이도 하셨습니다.”

“아, 그럼 풍수가 아닌 것이 맞다. 하지만 무언가 필시 거시기한 머시기한 저시기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스리와 함께 수를 읽어 보거라. 넌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 꽤 편하구나. 거기다 맵시도 바른 것이 보기 좋구나. 나가도 되겠다.”

한설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아리의 치마를 마무리해 주었다. 아리는 한 번 돌아보며 자신의 치마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허리를 흔들며 편안함을 느껴보았다.

아리와 스리, 한설은 차를 타고 바다가 다 보이는 절벽으로 향했다. 어느새 아리슬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그들이 반기고 있었다. 한설은 아리슬을 잤다. 그리고 밥상을 빛으로 끌어와 상을 차렸다.

스리는 잠시 절벽 끝에 가 바다를 둘러보았다. 한설은 조심스럽게 스리 옆으로 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영감과 영감 부인이 어찌 잘 계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

한설은 더 말하지 않았다.

아리가 아리슬 한 잔을 들었을 때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눈물이 흘렀다. 아리는 그저 영감과 영감부인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해 절을 하였다. 스리와 한설도 각자 바다를 향해 절을 하였다.

바닷바람이 일었다. 아리는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눈을 거슴츠레 뜨고 천천히 상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아리는 눈이 커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왜, 왜 그러십니까?”

“치, 치킨이! 치킨 한 조각이 사라졌어!”

“예?”

스리는 일그러진 얼굴로 아리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상을 보았다. 확실히 칼집이 들어간 닭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스리는 이번에 상 위에 오른 쥐포구이 한 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또! 또, 사라졌어! 스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설아, 이이 집에 웬 벌레가 기어들어 온 모양이구나! 얼른 수를 읽어 보거라!”

“치킨은 쥐가 물어갔고, 전은 새가 채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제가 문을 잠가 두겠습니다. 일이 끝나셨으면 내려가시지요.”

“가도록 하지.”

한설은 조용히 마루에 차려진 상을 그대로 출력 시켜주는 빗무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행여 아리의 치맛자락이 더럽혀질까 종종걸음으로 산에서 내려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영감님 드셨나 봐! 아니면 영감부인님이신가? 아닌가? 어떡하지? 어떡할까, 스리야?”

“……. 아리님, 출발 전에 변소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문을…….”

“아, 몰라! 한설아, 이, 이 치마 좀 잡아 줄 수 있겠느냐. 이 흠더미가 조금 미끄럽구나.”

“…….”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시지요.”

등지로 돌아온 아리와 스리, 한설은 조용히 밥과 잔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설은 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스리는 산책을 나갔다. 아리는 어제의 스라리가 너무 거졌는지 몸살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잠시 마음과 육신을 진정시키기로 하였고 후에 곧바로 등지에 들어갔다.

아리는 이불로 파고 들어가 바로 굶아떨어졌다. 불과 물을 모두 다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사이 영감부인이 내려와 아리를 품어보았다. 영감부인은 어여쁜 아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영감부인은 품속에 안겨 자고 있는 아리의 따스한 작은 귀에 속삭였다.

네가 깨어난 그날에

슬픔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